

도웰 교수의 머리

벨랴예프 지음

김 성호 옮김



차례

1. 첫 만남
2. 금지된 밸브의 비밀
3. 머리가 말하기 시작하다
4. 죽음인가, 살해인가?
5. 대도시의 희생자들
6. 실험실의 새로운 거주자들
7. 머리들이 기분을 전환하다
8. 하늘과 땅
9. 선과 악
10. 죽은 다이애나
11. 탈출한 전시품
12. 끝까지 부른 노래
13. 수수께끼 여인
14. 흥겨운 뱃놀이
15. 파리로 가자!
16. 코른의 제물
17. 라위노의 병원
18. '미친 사람들'
19. '힘든 케이스'
20. 신입 환자
21. 탈주
22. 생사의 갈림길에서
23. 다시 몸통을 잃다
24. 톰이 두 번째 죽다
25. 음모자들
26. 상처뿐인 승리
27. 마지막 만남

1. 첫 만남

“앉으시오.”

마리 로랑이 가죽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실었다.

코른 교수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가 서재를 대충 둘러보았다.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는 방이야!

그러나 여기서 어떤 일을 하기는 딱 좋아 보였다. 주의를 어지럽히는 것이 하나 없으니 말이다. 썰렁한 갓이 달린 램프의 불빛이 책들과 원고, 교정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책상 위로 쏟아졌다. 흑단으로 짜인 육중한 가구들이 겨우 눈에 잡혔다. 검은 벽지, 검은 커튼. 목직 한 책장들에 꽂혀 있는 금박 표지들만이 어둠침침한 방안에서 반짝거렸다. 오래 된 벽시계의 기다란 추가 규칙적으로 흔들렸다.

로랑이 코른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머금었다. 교수 자신이 서재의 스타일과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참나무로 깎은 듯한 목직하고 준엄한 모습이 가구들의 일부처럼 보였다. 대모테가 돌린 커다란 안경이 시계의 숫자판을 연상케 했고, 잿빛 두 눈은 편지글의 줄과 줄을 오가면서 시계추처럼 움직였다. 각이 진 코, 일직선으로 찢어진 눈과 입, 앞으로 내민 각진 턱 때문에 얼굴이 입체파 조각가가 빛은 주물 장식 마스크처럼 보였다.

‘저런 마스크가 벽난로 장식에 잘 어울릴 텐데.’

로랑의 생각이 코른 교수의 굵직한 목소리 때문에 깨졌다.

“나의 동료 사바티에한테서 당신 얘기를 벌써 들었소. 그래요, 나한테는 조력자가 필요하오. 당신은 의사요? 아주 좋아. 일당은 40 프랑이고, 주급으로 정산하리다. 조반과 점심은 제공되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마른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건드리다가 코른 교수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입을 다물 줄 아시오? 여자들은 다 수다스럽지. 당신이 여자라는 점이 흠이오. 게다가 예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요.”

“무슨 뜻인지...”

“빠한 거 아니겠소. 아름다운 여성은 두 몫을 하지. 즉, 여성적 결함도 두 배로 크다는 뜻이오. 당신에겐 이미 남편이나 친구, 아니면 약혼자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비밀 준수란 물 건너 간 거요.”

“하지만...”

“그런 말조차 불필요하단 말이오! 물고기처럼 말이 없어야 하오.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랄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뜻이오. 조건을 이해하겠소? 미리 경고하는데,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큰 불상사가 따를 것이오. 지극히 불쾌한 일이.”

로랑이 당혹감과 동시에 호기심을 느꼈다.

“동의합니다. 만일 이 일이...”

“범죄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요? 그 점에서는 염려 놓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책임질 일도 없으니까... 당신의 신경은 정상이오?”

“네, 건강해요...”

코른 교수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가족력에 알코올 중독자나 신경쇠약 환자, 간질병자, 광인 같은 이들은 없었소?”

“없습니다.”

코른이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마르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탁자에 설치된 초인종 단추를 눌렀다.



서재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사진의 음화처럼 어둡침침한 방 안에서 로랑이 본 것은 흰자위뿐이었다. 그러더니 흑인의 번들거리는 얼굴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다. 검은 두발과 의복이 문에 걸린 검은 커튼과 하나로 합쳐졌다.

“존! 마드무아젤 로랑에게 실험실을 보여 줘라.”

흑인이 고개를 숙인 뒤 로랑에게 따라오라고 신호하면서 맞은편에 난 문을 열었다.

로랑이 들어선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스위치를 올리자 네 개의 반투명 전구에서 선명한 불빛이 방안에 쏟아졌다. 로랑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어두컴컴한 서재에 적응됐던 두 눈이 하얀 벽들 때문에 어지러웠다. 번쩍이는 수술도구가 들어 있는 장들의 유리도 빛을 반사했다. 로랑이 잘 모르는 철제 기구와 알루미늄 도구들이 차가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불빛이 구리로 덮인 부분들로 따스하고 누런 반점처럼 내려앉았다. 여러 개의 관이며 나선형 파이프, 플라스틱, 유리 실린더... 유리, 탄성 고무, 금속...

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해부용 탁자가 있고 탁자 곁에 유리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사람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다. 그 심장에서 나온 관들이 가스용기 같은 통들로 이어졌다.

로랑이 무심코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뭔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다. 사람의 머리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몸통이 없이 덩그러니 놓인 사람 머리가!

머리는 장방형 유리판 위에 고정돼 있고, 그 유리판을 네 개의 키 높고 눈부신 금속 다리가 받치고 있었다. 잘려진 동맥과 정맥들에서 나온 관들이 쌍을 이루어 유리 구멍을 거쳐서 가스용기 같은 통으로 이어졌다. 더 굵은 관이 목구멍에서 나와 커다란 실린더에 연결됐다. 실린더와 용기들에는 밸브들과 압력계, 온도계, 또 로랑이 알지 못하는 기구들이 잔뜩 달려 있었다.

머리가 눈꺼풀을 꿈쩍이면서 쓸쓸한 눈길로 로랑을 주시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머리는 살아 있었다. 몸에서 떨어진 채 독자적으로 의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다.

간담이 서늘해진 가운데서도 로랑은 이 머리가 얼마 전에 죽은 저명한 외과의사 도웰 교수와 똑 닮았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갓 숨진 시신에서 절개한 기관들을 소생시키는 실험으로 명성이 자자했었다. 그의 놀라운 공개 강연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이마와 특징적인 프로필, 술이 많고 약간 서리가 앉은 아마 빛 머리털, 푸른 눈동자 따위를 로랑이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래, 그건 바로 도웰 교수의 머리였다! 단지, 입술과 코가 더 가늘어지고 관자놀이와 양 볼이 늘어졌으며 두 눈이 더 움푹 패고 흰 피부가 미라처럼 암황색을 띠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두 눈에는 생기가 보이고 사유가 담겨 있었다.

그 푸른 눈동자에서 로랑이 낫 나간 사람처럼 눈길을 떼지 못했다.

머리가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였다.

그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아서 로랑이 거의 혼절할 뻔했다.

흑인이 그녀를 부축하여 실험실에서 데리고 나갔다.

“아아, 무서워, 무서운 일이야...”

로랑이 중얼거리면서 안락의자에 앉자 코른 교수가 입을 꼭 다문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렸다.

“말해 주십시오. 이 머리는 그?..”

“도웰 교수의 것이냐고? 그렇지, 그의 머지요. 내가 존경하는 동료이며 죽은 뒤에 내 손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도웰의 머리지. 아쉽게도 머리만 살릴 수 있었소. 일거에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아. 가엾은 도웰은 지금으로서는 불치의 병으로 고생했소. 숨을 거두면서 그는 우리가 함께 진행한 과학 실험을 위해 자기 몸을 기증했소. 유연도 남겼지. ‘내 삶은 온통 과학에 바쳤네. 나의 죽음도 과학에 득이 되도록 하게나. 내 시신을 무덤의 별레들보다는 친구이자 과학자인 자네가 파헤치기를 더 바란다네.’ 그래서 내가 그의 시신을 떠맡았소.

그리고 그의 심장만이 아니라 의식까지 되살리고, 시체의 언어로 말하자면 ‘영혼’을 소생시킬 수도 있었지. 이 일에 소름 끼칠 것이 무에 있단 말이요? 사람들은 여태껏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간주해 왔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인류의 천년 꿈이 아니었던가?”

“나라면 그런 소생보다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코른 교수가 모호하게 손을 내저었다.

“그렇소, 그런 상태로는 소생한 사람에게 불편한 점이 있지. 그런... 불충분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나타나는 것이 가엾은 도웰에게는 편치 않았을 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비밀로 하는 거요. ‘우리’라고 말하는 까닭은 도웰 자신도 그걸 바라기 때문이지. 그리고 실험은 지금도 진행 중이오.”

“한데 도웰 교수가,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가 그런 바람을 어떻게 표현했지요? 머리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코른 교수가 일순간 당황했다.

“아니... 도웰 교수의 머리는 말을 하지 못하오. 그러나 듣고 이해하고 표정으로 대답할 수는 있지...”

그러고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다그치듯이 물었다.

“자, 나의 제안을 수락하는 거요? 아주 좋아. 내일 오전 아홉 시에 오시오. 그러나 명심하시오. 함구, 함구, 또 함구!”

2. 금지된 밸브의 비밀

마리 로랑의 삶은 순탄치 못했다. 열일곱 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병든 어머니를 돌보아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재산은 오래 가지 못했는데, 공부도 하고 가족 부양도 해야 했다. 몇 해 동안 신문사에서 야간 교정원으로 일했다. 의사 자격을 얻고 일자리를 찾았지만 헛수고만 한 셈이 됐다. 황열병이 기승을 부리는 뉴기니의 재난

장소로 가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병든 엄마와 함께 거기로 가는 것도, 엄마와 떨어지는 것도 다 원치 않았던 것이다. 코른 교수의 제의가 그녀에겐 탈출구였다.

괴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의 주저하지 않고 동의했다.

코른 교수가 사전에 그녀에 관해 면밀하게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로랑은 알지 못했다.

코른의 연구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벌써 두 주가 됐다. 그녀가 하는 일이라야 그리 어렵지 않았다. 머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기구들을 낮 동안에 관리해야 했다. 밤에는 존이 교대했다.

코른 교수가 용기들 곁에 있는 밸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설명했다. 머리의 목구멍으로 이어지는 굵은 관이 나오는 큰 실린더를 가리키면서, 케른은 그 실린더 밸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엄하게 당조짐했다.

“밸브를 건드리면 머리는 즉사할 거요. 머리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체계와 이 실린더의 중요성을 조만간 설명해 주겠소. 일단 기구들을 다루는 법만 알아 두시오.”

하지만 코른은 설명하기를 서둘지 않았다.

머리의 콧구멍에 작은 체온계가 깊숙이 꽂혀 있었다. 정해진 시각에 그걸 빼서 온도를 기록해야 했다. 용기들에도 온도계와 기압계가 많이 달렸다. 로랑이 액체의 온도와 용기들의 압력을 검사하고 확인했다. 잘 조정된 기구들이 제 시각마다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바쁠 일은 없었다. 머리의 관자놀이에 부착된 기구가 특히 예민하게 맥박을 표시했다. 하루 밤낮이 지나면 기록 용지를 갈았다. 용기들의 내용물은 로랑이 없을 때, 일터에 도착하기 전에 채워지곤 했다.

로랑은 점차 머리에 익숙해지고 친해지기까지 했다.

신선한 대기 속에서 걸어오느라고 아침에 두 볼이 발강게 된 채 로랑이 들어서자, 그녀를 보고 머리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으며 인사의 표시로 눈꺼풀을 가볍게 떨었다.

머리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머리와 로랑 사이에는 아주 제한적이긴 해도 일정한 언어가 곧 설정됐다. 눈꺼풀을 내려뜨리는 것은 '예스', 치켜 올리는 것은 '노'라는 뜻이었다. 소리 없이 달싹이는 입도 조금 도움이 됐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로랑이 말을 걸자 머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눈꺼풀을 내려뜨렸다. '좋아요. 고마워요.' 하는 뜻이었다.

"간밤엔 어떻게 보냈어요?"

역시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말을 걸면서 로랑은 오전에 할 일들을 민첩하게 처리했다. 기구들과 온도, 맥박을 확인하고 일지를 꼬박꼬박 적었다. 그 다음에는 알코올 섞은 물을 부드러운 스펀지에 묻혀서 머리의 얼굴을 아주 조심스레 씻고 탈지면으로 귓바퀴를 닦아냈다. 속눈썹에 걸린 솜뭉치를 떼어냈다. 눈과 귀, 코, 입도 닦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입과 코에는 특별한 관들을 집어넣었다. 머리로 빗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민첩하고 능숙하게 머리를 건드렸다. 머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로랑도 상쾌한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은 정말 날이 좋아요. 하늘이 그렇게 푸를 수가 없어요. 차가운 공기는 또 얼마나 상큼한지! 온 가슴으로 숨 쉬고 싶어지지요. 이제 봄기운을 물씬 머금은 태양이 얼마나 환하게 비치는지 보세요.”

도웰 교수의 입매가 서글프게 일그러졌다. 두 눈이 우울하게 창밖을 내다보다가 로랑에게 돌아와 멈췄다.

그녀가 뺨을 붉게 물들이면서 속으로 자신을 가볍게 책망했다.

감수성 예민한 여성의 본능으로 그녀는 머리에겐 불가능한 것이나 신체적 존재의 괴이함을 연상시키는 말은 일체 피하려고 했다. 자연에 의해 모욕된, 고립무원의 아이를 대하듯이 로랑은 머리에겐 엄마로서의 연민 같은 감정을 맛보았다.

자신의 부주의한 발언을 덮으려고 로랑이 서둘러 말을 이었다.

“아, 이제 일을 시작하지요!”

아침마다 코른 교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머리는 독서에 몰두했다. 로랑이 최신 의학 잡지와 서적들을 산더미처럼 들고 와서 보여주면, 머리는 그것들을 다 읽었다. 필요한 논문에서는 두 눈썹을 꿈틀거렸다. 로랑이 저널을 퓨피트르(pupitre)에 올려놓으면 머리는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로랑은 머리의 눈길을 보면서 머리가 어떤 줄을 읽는지 알아차리고 적절한 순간에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

페이지에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면 머리가 신호를 보내고 로랑이 머리의 눈길을 따라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종이 위에 연필로 밑줄을 그었다.

어떤 대목에 머리가 왜 표시를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머리의 빈약한 표정 언어로는 마땅한 설명을 듣기 힘들다고 여겼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 코른 교수가 없을 때 그의 서재를 지나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저널들을 보았는데, 그건 머리의 지시에 따라 그녀가 밑줄을 그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선 그 표시된 대목들을 케른 교수가 직접 옮겨 적은 것이 있었다. 그걸 보고서 로랑이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서 로랑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쩌면 머리가 어떤 식으로든 대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말 좀 해 봐요, 우리가 왜 학술 논문들의 어떤 대목을 표시하는 거지요?”

도웰 교수의 얼굴에 답답하여 불만스럽다는 표정이 나타났다. 머리가 뭔가를 말하는 눈빛으로 로랑을 쳐다봤다. 그러더니 목구멍으로 굵은 관이 이어지는 밸브에 눈길을 돌리고는 눈썹을 두 번 치켜 올렸다. 그건 부탁의 표시였다. 머리가 금지된 밸브를 열어 달라고 하는 것임을 로랑이 깨달았다.

머리가 그런 부탁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로랑은 머리의 바람을 나름대로 해석하곤 했다. '머리가 사는 게 낙이 없어 스스로 명줄을 끊고 싶어 하나 봐.' 그래서 금지된 밸브를 열지 않으려고 했다. 머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되고 싶지 않았으며, 책임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잃을까 겁을 냈던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질겁하여 대답했다.

“아니, 안 돼요. 이 밸브를 열면 당신은 죽어요. 난 당신이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죽게 할 수 없어요.”

무기력감과 답답함 때문에 머리의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다.

머리가 눈꺼풀과 눈을 세 번이나 위로 치켜 올렸다.

그건 '아니, 아니야. 난 죽지 않아요!'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로랑이 망설였다.

머리가 소리 없이 입을 달싹였다. 그건 마치 '열어요. 제발 열어 줘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로랑의 호기심이 바짝 달아올랐다. 여기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머리의 두 눈에 끝없는 우수가 반짝였다. 두 눈은 부탁하고 간청하고 요구했다. 인간 사유의 모든 힘이, 긴장된 의지가 바로 그 눈길에 다 집중된 것만 같았다.

로랑이 마음을 고쳐먹었다.

밸브를 조심스레 열 때 심장이 강하게 고동치고 손이 떨렸다.

그 즉시 머리의 목구멍에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새나왔다. 가녀리고 희미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망가진 축음기처럼 덜컹대며 쇠쇠 하는 소리였다.

“고-맙-구려... 아-가-씨...”

금지된 밸브가 열리면서 실린더 안에 응축돼 있던 공기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공기가 머리의 목구멍을 통과하며 성대를 움직이자 머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데 목구멍과 성대의 근육들이 이미 정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공기는 스스스 소리를 내면서 계속 목구멍에서 새나왔다. 목 부위의 신경 줄기들이 끊어진 탓에 성대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는 희미하고 덜그럭거리는 음색을 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의 얼굴에 모처럼 만족스러운 기색이 피어났다.

그 순간 서재 쪽에서 발소리와 자물쇠 여는 소리가 들려 왔다. (실험실의 문은 늘 서재 쪽에서 잠겨 있었다.) 로랑이 황급히 밸브를 닫았다. 목구멍에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멈췄다.

코른 교수가 들어섰다.

3. 머리가 말하기 시작하다

로랑이 금지된 밸브의 비밀을 알게 된 뒤로 일주일쯤 흘렀다.

그 동안에 로랑과 머리 사이에는 한층 더 돈독한 관계가 맺어졌다. 코른 교수가 대학이나 병원으로 가는 시간에, 로랑은 밸브를 열고 머리가 알아듣게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기를 목구멍으로 보냈다. 로랑도 나직이 말했다. 둘은 자기네 대화를 흑인이 듣지 못하도록 조심했다.

그들의 대화가 도웰 교수의 머리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두 눈에 생기가 더 흐르게 되고, 양미간의 슬픈 주름들조차 매끈하게 펴졌다.

머리는 강요된 침묵의 시간을 벌충이라도 하듯이 많이 기꺼이 말을 했다.

간밤에 로랑이 도웰 교수의 머리를 꿈에서 보고는 눈을 떠서 생각했었다.

‘도웰의 머리로 꿈을 꿀까?’

그 얘기를 하자 머리가 나직이 속삭였다.

“꿈이라... 그래요, 나도 꿈을 꾸지요. 한데 꿈이 나한테 슬픔과 기쁨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소. 꿈에서 나는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데 깨고 나면 두 배로 더 불행해진단 말이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박탈된 사람이 되는 거라오. 사실 나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을 다 빼앗긴 게 아니겠소? 오로지 생각하는 능력만이 내게 남아 있단다오.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머리가 씩씩한 미소를 머금으며 데카르트의 인용으로 말을 마무리 지었다.

“그래요, 나는 존재하오...”

“무슨 꿈을 꾸시나요? 꿈에서 무엇을 보지요?”

“지금 같은 모습의 자신은 한 번도 못 봤단다오. 예전의... 모습대로 본단다오. 식구들과 친구들도 보고... 얼마 전에는 죽은 아내를 만나서 우리 사랑의 봄날을 함께 맛봤지. 베티는 언젠가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다리를 다쳐서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내 진료실에서 처음 알게 됐단다오. 우리 둘은 왠지 금방 가까워졌어요. 다섯 번째 방문 때 내가 그녀에게 책상 위에 놓인 내 약혼녀의 사진을 보라고 했단다오. ‘그녀가 승낙한다면 난 그녀와 혼인할 겁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녀가 책상으로 다가와서 거기 놓인 작은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지. '내 생각에... 그녀는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뒤 그녀는 내 아내가 되었다고. 그 장면이 얼마 전 꿈에 나타난 거야...

벤티는 여기 파리에서 죽었다고. 나는 유럽 전쟁 때 외과의사로서 아메리카에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여기 대학에서 자리를 제의받고 나에게 소중한 묘지 곁에서 살기 위해 눌러앉았지. 아내는 정말 놀라운 여인이었어..."

머리의 얼굴이 회상에 잠겨 환해졌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일 뿐 다시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아아,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머리가 생각에 잠겼다. 공기가 목구멍을 통과하면서 스스스 소리가 났다.

"간밤에는 아들 꿈을 꾸었다고. 아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런 꼴을 보여줄 만한 용기가 안 나... 아들에게 난 죽은 사람이라고."

"아드님은 다 컸나요? 지금 어디 있지요?"

"그래요, 어른이 됐지. 아가씨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게요. 대학을 마치고, 지금은 잉글랜드 이모 집에 있을 거야. 아니, 꿈을 꾸지 않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것은..."

잠시 뜬 눈을 들이다가 머리가 계속 말했다.

"꿈만이 아니요. 거짓된 감각도 나를 생생하게 괴롭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몸뚱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온 가슴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기지개를 켜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싶어지는 게요. 마치 오래 쭈그리고 앉아 있던 사람처럼, 뜬금없이 그런 욕망이 들지. 또 어떤 때는 통풍 때문에 왼발에서 통증을 느끼지.

당신도 의사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스꽝스럽지 않소? 통증이 얼마나 생생한지 나도 모르게 눈길이 아래로 돌아가요. 하지만 유리판 너머 내 밑으로는 텅 빈 공간과 대리석 바닥만 보일 뿐... 이따금씩 호흡곤란이 발작적으로 시작될 것만 같아, 그럴 때면 적어도 천식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 '죽은 존재'에 제법 만족하고... 그런 건 다 언젠가 육체의 생명과 연관됐던 뇌세포들이 순전히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지..."

"꿈찍해라!..."

그 대목에서 로랑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소, 끔찍하지... 이상하게도 생전에 난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사실 연구에만 몰두해서 내 몸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몸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잃은 것을 느끼다니. 지금은 숲정이 어딘가에 있는 꽃들과 향긋한 건초 냄새를, 오랜 산보와 해안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 따위를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해...

후각과 촉각을 비롯해 다른 감각들도 아직 다 잃지는 않았지만 감각 세계의 많은 형상과는 단절됐다고. 숲의 향기, 아름다운 석양, 새들의 지저귀 따위 수많은 다른 느낌들과 연관될 때 들판의 건초 냄새가 좋지. 인공적인 향기가 내게는 자연적인 것들을 대신할 수 없을 거요. 꽃향기 대신 '장미'라는 상표의 향수 냄새? 그런 건 배고픈 사람에게 파이는 없는 파이 냄새처럼 나를 썩 만족시키지 못할 거요.

몸을 잃으니까 세상도 다 잃게 됐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물들의, 쥐고 만지고 동시에 자기의 몸과 자신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물들의 매혹적인 세계를 잃은 거요. 아아, 굴러다니는 조약돌의 무게를 내 손안에서 느끼는 기쁨 하나만 맛본다면 나의 괴물 같은 존재를 기꺼이 다 내놓을 텐데! 아침마다 내 얼굴을 닦아줄 때, 스펀지의 접촉이 나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는지 아가씨가 알아준다면 좋겠소. 사실 촉감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실제 사물들의 세계에서 나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내 혀끝으로 마른 입술 가장자리를 건드리는 정도지.”

그날 저녁 로랑은 얼이 빠진 상태로 두려움에 떨며 귀가했다. 늙은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간단한 먹을거리와 차를 내왔다. 그러나 로랑은 샌드위치에 손도 대지 않고 레몬차를 급하게 비운 뒤 자기 방으로 가려고 일어났다. 어머니의 주의 깊은 눈길이 그녀에게 쏠렸다.

“기분이 안 좋으니, 마리? 일터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게냐?”

“아니, 괜찮아요, 마마, 그냥 피곤하고 두통이 좀 있어요...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래요. 나아지겠지.”

엄마가 딸을 보내고는 한숨을 내쉬며 혼자 골똘히 생각했다.

새 일터에 다니기 시작한 뒤로 딸 마리는 많이 변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폐쇄적이 되었다. 엄마와 딸은 늘 아주 친한 친구처럼 지내 왔고, 둘 사이에 비밀이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비밀이 생긴 것이다. 노부인은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직장 일에 관해 묻기라도 하면 마리는 아주 짝막하고 막연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코른 교수는 의학적 측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환자들을 위해 자택에 진료소를 열고 있어요. 그 환자들을 돌보는 게 일이에요.”

“어떤 환자들인데?”

“여러 부류예요. 아주 위중한 경우들도 있고...”

마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곤 했다.

노부인은 그런 답변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기도 했지만, 딸한테서 들은 것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없었다.

‘딸이 코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된 건 아닐까, 무망하게?..’

그런 생각도 해 보다가 곧 지우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딸은 숨기지 않았을 것이야. 게다가 마리는 여자로서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코른은 독신이야. 만약에 마리가 사랑하기만 한다면, 코른도 응당 버티지 못할 것이야. 세상 어디에 마리 같이 괜찮은 여자가 또 있겠어? 아니야, 여기엔 뭔가 다른 사연이 있어...’

노부인이 두툼한 깃털 요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한테는 잠자는 것처럼 보이려고 불을 껐지만, 어둠 속에서 마리 로랑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말뚱말뚱 뜬 채 침대 위에 앉았다. 머리가 한 말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그려 보려고 애썼다. 그래서 혀로 입술과 입천장, 치아를 가볍게 건드려 보고는 생각했다.

‘머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야 이게 전부야. 입술과 혀끝을 깨물 수 있고, 눈썹을 꿈틀거리고, 눈알을 굴리고 눈을 감았다 뜨고, 입과 두 눈을 움직이고. 그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아니, 이맛살도 약간 접었다 펼 수 있지. 그게 전부야...’

마리가 두 눈을 감았다 뜨면서 표정을 일그러뜨리곤 했다. 아아, 그런 딸을 그 순간에 노부인이 보았다면! 엄마는 딸이 정신 나갔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어깨와 무릎, 두 팔을 차례로 감싸 안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술이 많은 머리털을 손으로 빗어 올리면서 중얼거렸다.

“오, 맏소사!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여태 그런 걸 모르고 살아 왔다니!”

젊은 몸이 피로를 느꼈다. 마리의 눈이 저절로 감겼다. 그러자 도월의 머리가 보였다. 그 머리는 그녀를 슬픈 눈길로 뚫어져라 응시했다. 머리가 탁자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허공을 날았다. 마리가 머리 앞에서 내달렸다. 코른이 솔개처럼 머리통으로 달려들었다. 구불구불한 낭하들이 나오고... 육중한 문들이... 마리가 문들을 열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코른이 머리를 따라잡았으며, 머리가 무슨 비명 같은 소리를 냈고, 이미 귓가에서 스스스 소리가 들리고... 마리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고, 그 빠른 고동에 온몸이 호응한다. 등에서 차가운 전율이 번쩍 스쳐 지나가고... 그녀가 나타나는 문들을 계속 열고... 아아, 참으로 무서웠다!..

“마리! 마리! 왜 그러니? 눈을 떠 보렴, 마리! 신음까지 하는구나...”

그건 이미 꿈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베개 곁에 서서 놀란 눈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엄마. 악몽을 꾸었을 뿐이야.”

“요즘 들어 너무 자주 흉측한 꿈을 꾸는구나, 애야...”

노부인이 탄식하며 나간 뒤에도 마리는 한동안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누워 있었다. 심장이 강하게 고동쳤다.

“하지만 내 신경은 끄떡없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4. 죽음인가, 아니면 살해인가?

한번은 로랑이 잠들기 전에 의학 저널들을 훑어보다가 코른 교수의 새 논문을 읽었다. 이 논문에서 코른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했다. 그 발췌문들은 다 의학 저널과 서적들에서 따온 것인데, 로랑이 아침 작업 시간에 머리의 지시대로 밑줄을 그은 대목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음 날 머리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자마자 로랑이 물었다.

“내가 없을 때 코른 교수는 실험실에서 무얼 하지요?”

머리가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그와 나는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를 위해서 중요한 대목들을 표시하는 건가요? 그런데 당신의 작업을 그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짐작하고 있대요.”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내버려두지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당신이 못하신다면, 내가 하겠어요!”

로랑이 분개하여 외쳤다.

“싯, 조용히... 쓸 데 없는 일... 내 처지에서 저작권 운운한다면, 그것도 우스운 꼴일 게요. 돈? 그게 나한테 뭐가요? 명성? 그게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겠소?... 그리고... 그런 일이 폭로된다면 연구는 끝을 못 볼 거야. 한데 나는 연구가 끝까지 가기를 바라오. 고백하자면, 내 연구의 결과를 보고 싶은 거라오.”

로랑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요, 코른 같은 사람은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어요. 케른 교수는 처음 나를 면담할 때 당신이 불치병으로 숨졌고, 학술 연구를 위해 몸을 기증했다고 말하더군요. 그게 사실인가요?”

“글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그건 사실인데...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대요. 우리 두 사람은 갓 죽은 시신에서 떼어낸 장기들을 되살리는 연구를 함께 했지. 코른은 나의 조수였대요. 당시 내 연구의 최종 목표는 몸에서 떼어낸 사람 머리를 되살리는 것이었소. 나는 준비 작업을 다 끝냈지.

우리는 짐승들의 머리는 이미 되살렸지만 사람 머리를 소생시키고 시연하게 될 때까지 연구 결과를 공표하지 않기로 했소. 이 마지막 실험을 앞두고, 그 성공을 난 확신했는데, 나는 내가 작성한 모든 연구 원고를 출간 준비하라고 코른에게 건네줬다오. 동시에 우리는 역시 해결책을 거의 다 찾은 다른 과학 문제도 함께 연구하고 있었지.

그때 나한테 지독한 천식 발작이 일어났소. 그건 내가 의사로서 정복하려고 한 질병들 중의 하나였고, 나는 천식과 오랜 기간 싸우고 있었소. 우리 중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는 시간 문제였지. 내가 천식에게 패할 수 있음을 알았다오. 그리고 실제로 내 몸을 해부용으로 쓰라고 유언했어요, 비록 바로 내 머리가 살아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 발작 순간에 코른이 내 곁에서 의료 도움을 주었지. 나한테 아드레날린을 주사했는데, 어쩌면... 용량이 과다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천식이 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스픽시아(*asphyxia, 호흡곤란, 질식) 뒤에 임종의 고통이 찝막하게 이어지고 죽음이 뒤따른 게요. 그 죽음이란 내게는 의식 상실일 뿐이었지만...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전이 상태를 체험했다오. 의식이 아주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목 부위의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의식이 깨어난 것 같았소.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았지.

당시 나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오. 코른과 내가 개의 몸통에서 잘려진 머리들을 되살리는 실험을 했을 때, 개들이 다시 깨어난 뒤에 극심한 통증을 겪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했었소. 개의 머리가 용기 안에서 얼마나 펄떡이든지, 어떤 때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들이 혈관들에서 툭툭 빠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절단 부위를 마취하자고 제의했다오. 그 부위가 마르지 않고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의 목을 '린겐 록 도웰'이라는 특수한 용액에 담갔지. 이 용액에는 영양분과 방부 물질, 마취 물질이 들어 있어요. 내 목의 절단면도 그런 용액에 담기게 됐소. 그런 사전 조치가 없었다면 나는 깨어난 뒤에도 아주 빨리 다시 죽었을 게요. 우리의 초기 실험 때 개의 머리들이 그렇게 죽었소.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 난 내 머리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소. 모든 것이 흐릿했어, 마치 술을 억병으로 마신 뒤 누군가가 깨웠지만 아직 알코올

기운이 가지지 않을 때처럼. 그러나 내 뇌에서는 그래도 기쁜 마음이 들었다오. '비록 흐릿하지만 의식이 돌아온 걸로 보면, 난 죽지 않았다는 뜻이야.'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채 나는 마지막 천식이 이상하게 발작했던 점을 곰곰이 생각했다오. 보통 나한테서 천식 발작은 불현듯 터지곤 했지.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호흡곤란이 서서히 악화되곤 했는데, 하지만 발작을 일으킨 뒤에도 정신을 잃는 법은 결코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 발작은 뭔가 달랐소. 목 부위에서 느낀 강한 통증도 역시 새로운 것이었고. 이상한 게 또 있었다오. 난 전혀 숨을 쉬지 않는데도 호흡곤란을 겪지 않은 것 같았던 말이지. 호흡하려고 해 봤지만 할 수 없었어. 게다가 내 가슴을 느낄 수 없었어. 내 땀에는 가슴 근육들을 열심히 긴장시켰음에도 흉강을 넓히지 못하겠더군.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 '뭔가 이상해. 내가 잠을 자고 있거나 꿈을 꾸는 모양이야...' 어렵사리 눈을 뜨게 됐어요. 사방이 캄캄해. 귓가에는 웅웅 소리만 들려. 다시 눈을 감았지...

사람이 죽으면서 감각기관들이 일시에 스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가씨도 알고 있겠지요. 먼저 미각을 잃고 그 다음에 시력이 꺼지고 그 다음에 청력이 사라진다고. 아마도 내 감각기관들의 복원은 거꾸로 된 모양이오. 시간이 얼마쯤 지난 뒤 나는 다시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마치 아주 깊은 물속에 빠진 것처럼 탁한 빛을 보았다오. 그 뒤 연녹색 안개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내 눈앞에서 코른의 얼굴을 희미하게 분간했고 동시에 그의 목소리를 이미 제법 명확하게 들었다오. '정신이 돌아왔습니까?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나는 의지를 다 모아서 의식이 더 빨리 명료해지게 만들었소. 아래로 눈길을 돌리고는 바로 내 턱 밑에 놓인 탁자를 보았소. 그때는 이런 탁자가 없었고, 코른이 실험하느라고 서둘러 들여놓은, 주방용 같은, 평범한 탁자가 있었다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이 탁자 곁에, 조금 높은 곳에 다른 해부용 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누군가의 머리 잘린 시신이 누워 있더군. 그걸 보면서 시신이 왠지 아주 친근한 것 같았어, 머리도 없고 흉곽이 열려 있음에도 말이오. 그리고 그 곁에 유리 상자 안에서 누군가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고...

난 어리둥절하여 코른을 쳐다봤다오. 내 머리가 왜 탁자 위에 놓여 있고 내 몸이 왜 보이지 않는지 처음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 손을 뻗고 싶었지만 손을 느끼지 못했어. '무슨 일이오?' 하고 코른에게 묻고 싶었지만 소리 없이 입만 달싹거릴 수 있었을 뿐이지. 한데 그는 나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소. 그가 해부용 탁자 쪽으로 고개를

까딱이면서 '모르시겠어요?' 하고 물었다오. '이게 당신의 몸입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히 천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농담을 삼가지 않았어!..

비로소 난 모든 걸 깨달았다오. 솔직히 말해, 처음 한순간 난 비명을 지르고 탁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나 자신과 코론을 함께 죽이고 싶었어... 아니, 그게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아. 나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길길이 날뛰어야 한다는 것을 뇌로는 알았는데, 다른 한 편으로 나를 덮친 얼음장 같은 태연함에 스스로 놀랐다오. 어쩌면, 분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세상을 국외에서 보면서 내 마음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오. 난 얼굴만 찌푸린 채... 입을 꼭 다물었다오. 내 심장이 유리 상자 안에서 뛰고 있고 인공심장을 달고 있는 마당에 내가 예전처럼 안달할 수가 있었을까?"

로랑이 깜짝 놀라서 머리를 쳐다봤다.

"그런데도... 그런 내막이 있었는데도 교수님은 그와 계속 일을 하는군요. 그가 아니었다면, 천식을 이겨내고 건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날강도에도 살인자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가 명성의 절정에 오르도록 돕고 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기생충처럼 당신의 뇌 활동을 파먹고, 당신 머리에서 이를테면 창의적 발상의 탱크를 만들어, 그걸로 돈과 명성을 얻고 있어요. 한데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나요?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나의 그루터기로 전락했어요. 한데 거기서는 당신의 고뇌와 더불어 갈망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케른은 당신에게서 온 세상을 훔쳤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 어떻게 묵묵히 고분고분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요?"

머리가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머리 주제에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하나? 시도할 수 있겠지. 한데 이 꼴로 뭘 할 수 있었겠소? 인간의 마지막 가능성, 즉 자살할 수단마저도 잃은 마당에."

"하지만 그와 함께 연구하기를 거부할 수는 있었잖아요!"

"아가씨가 정 듣기 원한다면... 그런 짓도 벌써 해 보았다오. 그러나 내가 저항했던 것은 코론이 나의 사유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은 아니었소. 궁극적으로 저자나 발명자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창의를 세상에 나와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저항을 한 까닭은 새로운 존재에, 존재 양식에 익숙해지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난 생명이 꺼지기를 더 바랐어... 그즈음 나한테 벌어진 일화를 하나 얘기하리다.

언젠가 혼자 실험실에 있을 때, 창문으로 커다란 딱정벌레가 불쑥 날아들었소. 대도시 한복판 어디서 그런 녀석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모르지요. 교외에 나갔던 자동차에 묻어서 왔을 수도 있겠지. 딱정벌레는 내 위에서 빙빙 맴돌다가 내 탁자의 유리판 위, 내 곁에 앉았다고. 쫓아낼 수도 없는 그 흥측한 벌레를 나는 눈동자만 빼뚜름하게 돌린 채 주시했지. 딱정벌레가 반들반들한 유리판 위에서 미끄러져 기우뚱대면서도 많은 관절들을 부지런히 사각거리며 천천히 내 머리 쪽으로 다가왔다고.

모르겠어, 당신이 내 얘기를 이해할지... 난 그런 벌레들을 아주 싫어했다고. 혐오감이 커서 손가락으로 건드리지도 못했지. 그런데도 그 하찮은 적수 앞에서 나는 무기력하기만 했다고. 그 녀석은 내 머리를 비행에 좋은 도약대로 알았는지, 다리들을 사각거리면서 천천히 계속 다가왔다고. 얼마 동안 애를 쓰더니 턱수염에 들러붙었어. 수염 속에서 오랫동안 버둥거리며 헤매면서도 한사코 더 위로 올라왔어요. 굳게 닫힌 입술을 지나고 코 왼편으로 기어오르고 살짝 뜨고 있는 원눈을 거쳐서 결국 이마까지 올라왔다가 유리판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또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찮은 사건이지. 그러나 나는 거기서 충격적인 인상을 받은 게요...

그리고 코른이 들어왔을 때, 학술 연구를 더 이상 공동으로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극력 거부했소. 그가 내 머리를 공개적으로 선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오. 필요가 없다면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머리를 굳이 곁에 둘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를 죽이겠지. 그게 내 속셈이었어.

둘 사이에 냉전이 시작됐소. 그는 상당히 가혹한 조치를 취하더군. 한번은 밤늦은 시간에 전기 기구를 들고 와서 내 관자놀이에 양 전극을 부착하고는 아직 전류는 흘리지 않은 채 말을 거는 거요. 팔짱을 끼고 서서 진짜 종교재판관처럼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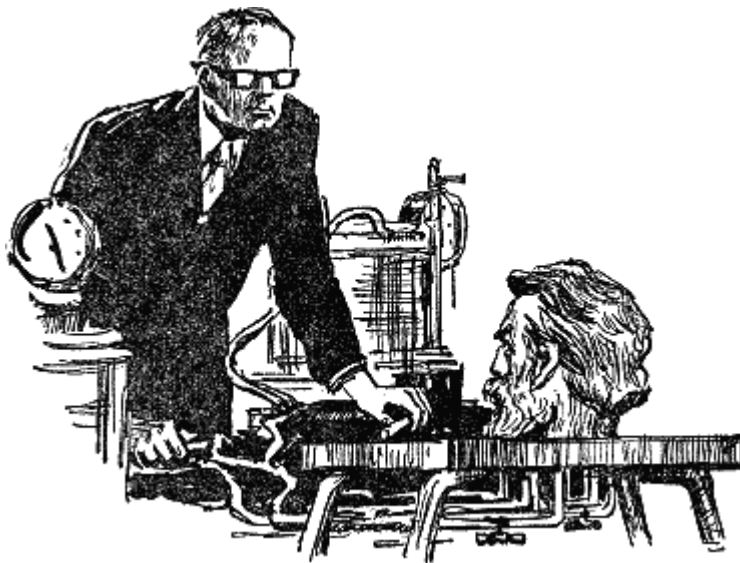
'친애하는 동료여. 지금 우리는 두꺼운 벽 안에서 서로 눈을 맞대고 둘만 있소이다. 벽이 더 얇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당신은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까. 당신은 완전히 내 손아귀에 들어 있어요. 당신에게 가장 악랄한 고문을 가하고도 난 처벌을 피할 수 있소. 하지만 고문 따위가 왜 필요하겠소? 우리는 둘 다 과학자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난 알아요. 하지만 그게 내

탓은 아니지요.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신을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어요. 또 당신은 내가 없을 때조차 혼자 힘으로는 달아날 수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평화롭게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당신은 우리의 연구를 계속하게 될 거요...'

나는 거부의 표시로 눈썹을 움직였고, 내 입술이 '아니야!' 하고 소리 없이 속삭였어. 그러나 그는 계속 입을 놀렸지.

'당신은 나를 아주 괴롭게 만드는군요. 권련을 피우고 싶지 않습니까? 니코틴이 혈관으로 흡수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폐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담배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없다는 걸 알지요. 그러나 그래도 익숙한 느낌은 있을 테니...'

그러고는 담배케이스에서 권련을 두 개비 꺼내 하나는 자기가 피우고 다른 하나는 내 입에 물렸지. 그 담배를 내뱉으니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걸 보고서 그가 여전히 정중하고 화나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더군.



'아, 좋아요, 동료. 당신은 나로 하여금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군요...' 그러더니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요. 마치 불에 달군 송곳이 나의 뇌를 후벼 파는 것만 같은데... '이제 기분이 어떠시요?' 그가 의사가 환자에게 하듯이 나한테 배려하는 투로 물었다오. '머리가 지끈거려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나요? 그러려면 오로지...' '아니야!' 하고 내 입이 대꾸했소. '정말이지 아주 안 됐구려. 전압을 좀 더 올려야겠소. 당신은 꽤나 나를 힘들게 하는군요.'

그러고는 얼마나 강한 전류를 흘렸는지 내 머리가 타버리는 것만 같을 정도였다오.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었어. 나는 이를 부드득 갈았지. 의식이 희미해졌어. 아예 혼절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저 눈을 꼭 감고 입술을 욱물기만 했지. 코른이 내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은근한 불로 내 머리를 계속 지졌어.

하지만 그런 가혹한 수단을 동원해서도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눈을 떠 보니 나의 완고함에 광분하는 모습이 보이더군. '빌어먹을! 당신의 뇌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벌써 기름에 튀겨서 오늘이라도 개한테 먹였을 거야. 튀, 고집불통 같으니!' 그러고는 내 머리에서 전선들을 거칠게 떼어내고는 사라졌지.

그러나 내가 기뻐하기에는 아직 일렀어요. 그가 곧 돌아와서 내 머리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용액에 자극적인 물질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요. 그 물질은 가장 고통스러운 통증을 내게 일으켰어.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자 그가 묻더군. '어떤가, 동료, 마음을 정했소? 그래도 여전히 아닌가?' 난 굴하지 않았다고. 그가 술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더 화를 내며 나갔어. 내가 이긴 거지요. 며칠 동안 코른은 실험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날마다 죽음이 나를 구해주기만을 기다렸다고.

닷새째 되는 날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들어오더군. 나한테는 눈길 하나 주지 않은 채 혼자서 계속 작업하기 시작했어. 이틀인가 사흘 동안 나는 실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그를 관찰하기만 했소. 하지만, 아아, 나 스스로가 그 연구에 바짝 호기심이 동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소. 그가 실험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릴 수 있는 실수를 몇 가지 저질렀을 때,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그가 흐뭇한 얼굴로 '진작 그랬어야지!' 하고 말하고는 내 목구멍에 공기를 집어넣었다고. 나는 그에게 무엇이 오류인지를 설명했고, 그 뒤로도 연구를 계속 지도하게 된 것이라오... 그가 내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거지."

5. 대도시의 희생자들

머리의 비밀을 알고 난 뒤 로랑이 코른을 증오하게 됐다. 그런 감정은 날이 갈수록 더 커졌다. 증오심을 품고 잠이 들었다가 증오심을 안고 눈을 뜨곤 했다. 끔찍한 악몽을 꾸면서 코른을 보곤 했다. 그녀는 증오감으로 앓았다. 근래 들어 코른과 마주칠 때마다 그 낯짝에 "살인자!"라는 말을 내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억눌러야 했다.

그에 대한 태도가 딱딱하고 차가워졌다.

도웰 교수의 머리와 둘만 있을 때 마리 로랑이 언성을 높였다.

"코른은 짐승 같은 범죄자예요! 그의 죄상을 당국에 고발하겠어요... 그의 범죄를 널리 알릴 겁니다. 도둑질로 이룬 명성이 무너지고 그의 악행이 다 폭로되기 전까지 나는 다리 뻗고 잠을 못 자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도웰의 머리가 달래야 했다.

"조용히!.. 진정해요. 나는 복수할 마음이 없다고 이미 말했지요. 그러나 아가씨의 도덕심이 분개하고 보복을 갈망한다면 더 이상 말리지는 않을 거요... 단, 서둘지는 말아요. 부탁하건대, 우리 실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요. 코른이 나를 필요로 하듯이 나에게도 지금은 그가 필요하니까. 그는 나 없이 연구를 끝낼 수 없어,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요. 이게 나한테 남은 전부란 말이요. 이제 더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시작한 연구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오."

서재에서 발소리가 들려 왔다.

로랑이 재빨리 벨브를 닫은 뒤 책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분노한 상태였다. 도웰의 머리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눈꺼풀을 내려뜨렸다.

코른 교수가 들어왔다.

그가 로랑을 의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봤다.

"무슨 일이 있소? 당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군. 괜찮아요?"

"아니요... 아무 일도... 괜찮아요... 집에서 불쾌한 일이 있어서..."

“맥박을 재 봐야겠어...”

로랑이 마지못해 손을 내뻐었다.

“맥박이 빠르군... 신경이 곤두서 있어... 하기가 여기 일이 신경에는 힘들 거야. 하지만 난 당신에게 만족해요. 보너스를 두 배로 주겠소.”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 돈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나? 당신한테 가족이 있잖소.”

로랑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뭔가 준비를 해야겠소. 도웰 교수의 머리를 실험실 뒤에 있는 방으로 옮길 거니까...”

그러고는 머리를 향해 말했다.

“잠깐 동안이오, 동료, 잠깐 동안. 잠을 자는 거요? 내일 여기로 두 구의 신선한 시신을 들여오면,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머리 한 쌍을 준비하여 학술대회에서 선보일 것이오. 우리의 업적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지.”

코른이 뭔가 파헤치려는 눈길로 다시 로랑을 쳐다봤다.

혐오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로랑이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을 서둘러 던졌다.

“어떤 사람들의 시신이 들어올 겁니까?”

“모르겠소. 아무도 모르지. 왜냐하면 아직 그건 시체들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들이오.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나한테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머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내일 그들은 죽을 거야. 그리고 한 시간 이내에 여기 해부용 탁자에 놓이겠지. 내가 잘 다뤄줄 거요.”

코른 교수가 연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을 사람임을 이미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랑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바라보았다. 그러자 코른이 일순간 당황했지만 곧 짐짓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간단한 일이오. 시체 안치소에 신선한 시신 두 구를 주문해 두었지. 중요한 것은, 당신도 알다시피, 현대판 몰로흐(*페니키아의 신, 사람을 제물로 요구함의 상징)인 도시는 날마다 인명을 제물로 요구한다는 거요. 도시에서는 날마다 자연의 법칙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교통사고로 몇 명씩 죽지 않소? 공장과 공사장 같은 데서 불행한 사고를 제하고서도.

바로 그 파멸에 처할 운명이면서도 당장에는 '인생, 뭐 있어!' 하고 부르짖으며 힘과 건강이 충만한 사람들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오늘 조용히 잠이 드는 거요. 내일 아침 그들은 일어나서 자기네 생각대로 일터로 가려고 흥겹게 콧노래 부르며 웃을 갖춰 입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만나러 가는 거지. 그 시간에도 도시의 다른 끝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들의 형리가 될 운전수나 기관사가 역시 태연하게 노래 부르면서 웃을 갖춰 입을 거야.

그렇게 희생자들은 자기네 아파트에서 나오고, 형리들은 도시 맞은편 끝에 있는 자기네 차고나 전차 데포에서 차를 몰고 나올 거요. 혼잡한 교통 흐름을 뚫고 그들은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사코 자기네 길의 운명적 접점까지 가까이 접근하지. 그 뒤 짧은 한순간에 개중 누군가가 멍하게 있다가 당하게 되는 거야. 교통사고 희생자 통계에 숫자 하나가 보태지지. 그들을 이 숙명적 접점으로 이끄는 경우는 수천 가지나 되요. 그럼에도 이걸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계바늘 두 개가 순간적으로 겹치는 것처럼 정확하고 변함없이 일어날 거야."

코른 교수가 로랑과 그렇게 말을 많이 나눈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왜 그는 갑자기 보너스를 두 배로 주겠다면서 너그러운 빛을 띠는 걸까?

로랑의 머릿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농락하기 위해, 나를 매수하려고 드는 거야. 내가 많은 것을 짐작하거나 알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나를 매수할 수는 없을 거야.'

6. 실험실의 새로운 거주자들

다음 날 아침 코른 교수의 해부용 탁자 위에는 갓 숨진 시체 두 구가 정말로 놓였다. 공개 시연에 내보낼 새로운 머리 둘이 도웰 교수의 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됐다. 그래서 코른 교수가 전날 그 머리를 옆방으로 미리 옮긴 것이었다.

남자 시신은 서른 살쯤 된 노동자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다. 단단한 몸통이 형편없이 일그러지고, 채 감지 못한 두 눈에는 경악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코른 교수와 로랑, 존이 흰 가운 차림으로 시신들을 다루었다.

코른이 설명하듯이 입을 놀렸다.

“시신이 몇 구 더 있었지. 한 노동자는 목재 더미에서 떨어졌기에 제쳐놓았소. 뇌진탕으로 뇌가 상했을 수 있으니까. 독약을 먹고 자살한 자들도 몇몇 되는데, 다 불합격이야. 이 젊은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거야. 그리고 여기 이건... 밤의 미녀야.”

코른이 고갯짓으로 가리킨 쪽에는 예쁘지만 다소 시든 얼굴의 여성 시신이 놓여 있었다. 얼굴에는 볼 터치와 아이라인 자국이 아직도 선연히 남았다. 얼굴은 대체로 평온해 보이는데, 살짝 치켜진 눈썹과 반쯤 열린 입만이 뭔가 어린애 같은 놀라움을 드러냈다.

“카바레 가수야. 술 취한 무뢰한들이 싸우는 중에 날아든 총탄에 맞아 즉사했소. 심장에 바로 꽂힌 게 보이지?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렇게는 안 될 거요.”

코른 교수는 일을 기민하고 자신 있게 처리했다. 머리들이 몸에서 잘려지고, 몸통은 내갔다. 몇 분 뒤 머리 두 개가 높은 탁자 위에 놓이고, 목구멍과 정맥과 경동맥마다 관들이 꽂혔다.

코른 교수는 기분이 좋고 흥분된 상태였다. 승리의 순간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학술 대회에서 그가 행할 프레젠테이션과 발표에는 이미 학계의 거성들이 다 초대됐다. 노련한 손으로 관리되는 언론이 코른 교수의 과학적 재능을 한껏 띄우는 기사들을 벌써부터 신기 시작했다. 저널들에는 그의 초상화가 실렸다. 죽은 사람의

머리를 소생시키는 놀라운 실험을 소개한다는 코른의 발표에 언론은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의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휘파람을 불면서 손을 씻은 뒤 시가를 문 채 앞에 놓인 머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헤헤! 접시 위에 요한뿐 아니라 살로메(*신약성서, 헤롯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의 머리통도 올라갔네. 그리 나쁘지 않은 만남이 될 거야. 밸브를 열기만 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어쩔소, 마드무아젤? 이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오. 밸브 세 개를 다 열어요. 이 커다란 실린더에는 독약이 아니라 응축된 공기가 담겨 있지, 헤헤...”

그 사실을 로랑이 이미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거의 무의식적으로 경계하는 마음에서 알고 있다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코른이 불안간 얼굴을 찌푸리고 심각해졌다. 로랑에게 바싹 다가서더니 단어들을 하나씩 강조하여 말했다.

“그러나 도웰 교수의 공기 밸브는 절대 열지 마시오. 그는... 성대가 손상됐고...”

로랑의 마뜩치 않은 눈길을 포착하고서 코른이 신경질적으로 덧붙였다.

“어떻든 간에... 절대 금지요. 내 지시를 잘 따르는 게 좋을 게요. 그렇지 않으면 단단히 봉변을 치르게 될 테니.”

그러고는 다시 흥을 내서 오페라 <팔리아치>의 모티브를 늘어지게 뺐다. (*Pagliacci, 이탈리아어로 '광대'라는 뜻. 레온카발로의 작품.)

“자아, 시작합시다!”

로랑이 밸브 세 개를 다 열었다.

노동자의 머리가 살아 있다는 표시를 먼저 내기 시작했다. 눈꺼풀을 아주 살짝 떨었다. 동공들이 커지기 시작했다.

“순환이 되는군. 다 잘 될 거야...”

머리의 두 눈이 방향을 바꾸어서 창문의 불빛 쪽으로 돌아갔다. 의식이 천천히 돌아왔다.

코른이 신바람을 내면서 외쳤다.

“살아나는 거야! 공기를 더 세게 흘려 넣으시오.”

로랑이 밸브를 더 많이 열었다.

공기가 목구멍 안에서 식씩 소리를 냈다.

그런 가운데 머리의 목구멍에서 단어 몇 개가 알아듣기 어렵게 흘러 나왔다.

“이게 뭐야?..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병원이야, 친구.”

코른의 대답에 머리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병원이라구요?..”

그러면서 눈을 내리깔고 자기 밑의 텅 빈 공간을 보았다.

“내 다리는 어디 있지요? 내 손은? 몸통은?”

“몸통은 없다네, 이보게. 그건 산산조각이 났지. 머리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몸통을 떼어내야 했지.”

“떼어내다니? 아니야, 난 동의하지 않아요. 그따위 수술이 어디 있어요? 이런 꼴로 뭐에 쓰겠어요? 머리통 하나로는 빵 한 조각도 못 벌어. 나한테는 손이 있어야 해요. 손과 발이 없으면 아무도 채용하지 않을 거야... 병원에서 나가면... 튼! 병원비도 없는 걸. 이제 어떡하지? 난 먹고 마셔야 돼. 우리네 병원이 어떻다는 걸 난 알아. 잠시 붙잡아뒀다가 ‘치료됐어요.’ 하고 내쫓지. 아니, 난 동의하지 않아요.”

머리가 단호하게 말을 매듭지었다.

내뺄는 말이며 검게 그을리고 주근깨 많은 너부죽한 얼굴, 헤어스타일, 푸른 눈의 순진한 눈길 따위로 보아 그는 시골 출신임이 분명했다.

궁핍을 면하려고 고향 들판을 떠났지만, 도시는 젊고 건강한 신체를 갈기갈기 찢었다.

“보조금이라도 좀 나오나?.. 아, 그자는 어디 있어요?..”

갑자기 그가 누군가를 떠올렸다. 그의 두 눈이 커졌다.

“누구 말이지?”

“그자 말이에요... 나를 깔아뭉개... 전차가 여기 있고 다른 전차가 저기 있고 자동차도 여기 있었는데, 그자는 곧장 나한테...”

“염려 말아요. 그자는 대가를 지불할 거야. 화물차 번호를 적어 두었지. 알고 싶다면, 4711 번이야. 근데 자네 이름이 뭐지?”

코른 교수의 물음에 머리가 즉각 대꾸했다.

“내 이름이요? 톰입니다. 그래요, 톰 부시.”

“그렇군. 톰이라... 자네는 그 무엇도 부족한 줄 모르게 될 거야. 굶주림도 추위도 갈증도 괴롭히지 않을 거야. 거리로 내쫓지 않을 테니, 걱정일랑 붙들어 매요.”

“흥, 거저 먹여줄 거요, 아니면 돈벌이 삼아 장터에서 구경거리로 만들 거요?”

“보이기는 보일 거야. 단지 저잣거리가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보이는 거지. 자, 그만 쉬어요.”

그러고는 여자 머리를 보면서 코른이 걱정스럽게 지적했다.

“어째서 이 살로메는 아직 살아나지 않는 거지?”

그러자 톰의 머리가 물었다.

“그건 뭐지요, 역시 몸뚱이 없는 머린가요?”

“보다시피, 자네를 외롭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자네 짝으로 숙녀를 초대했지... 로랑, 톰의 공기 밸브를 닫으시오, 더 이상 지껄이지 못하게.”

코른이 여자 머리의 콧구멍에서 체온계를 꺼냈다.

“시체의 온도보다는 높지만 정상 체온이 되려면 더 기다려야겠군. 천천히 살아날 거야...”

시간이 흘렀다. 여자의 머리가 살아나지 않았다. 코른 교수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실험실을 바장이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대리석 바닥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커다란 방안에 발소리가 요란했다.

톰의 머리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소리 없이 입술을 꿈틀거렸다.

기다리다 못해 코른이 여자의 머리에 다가가서 경동맥들에 연결된 유리관들을 찬찬히 살폈다.

“여기에 원인이 있었군. 이 관이 너무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서 순환이 더딘 거야. 더 넓은 관을 꽂아야겠어.”

코른이 관을 바꾸고 몇 분 지나서 여자의 머리가 살아났다.

브리케라는 이름의 여자 머리는 자신의 소생에 톰보다 훨씬 더 요란하게 반응했다. 확실하게 정신이 들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자, 머리는 이런 몰골로 둘 바에야 차라리 죽여 달라고 애원하면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다.

“아흐, 아흐, 아흐!.. 내 몸뚱이... 나의 가엾은 몸뚱이!.. 당신들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살리든지 아니면 죽여요. 몸뚱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내 몸을 잠깐이라도 보게 해 줘요... 아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머리가 없는 몸뚱인데... 얼마나 끔찍해!.. 아아, 무서워!..”

다소 진정된 뒤 머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를 살려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난 교육을 많이 못 받았지만, 몸통 없이는 머리가 살 수 없다는 것쯤은 알아요. 한데 이건 뭔가요, 기적이예요 아니면 마술인가요?”

“이도 저도 아니요. 이건 과학의 힘이에요.”

“우리의 과학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다른 몸통을 붙여 주세요. 당나귀 같은 조지의 총알이 내 몸에 구멍을 냈어... 그러나 적잖은 처녀들이 자기 이마에 총탄을 박잖아요. 그 몸을 절단해서 내 머리에 붙여 줘요. 단, 미리 보여 주세요. 잘 빠진 몸을 골라야 하니까. 몸통이 없는 여자라... 난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이건 머리가 없는 남자보다 더 나쁜 거라구요.”

그러고는 로랑에게 눈길을 돌렸다.

“부탁인데, 거울을 좀 주시겠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브리케가 자기 모습을 오랫동안 요모조모 뜯어보았다.

“흥칙해라!.. 내 헤어스타일을 손 좀 봐 주시겠어요? 내 손으로는 가르마를 탈 수가 없어요...”

“로랑, 당신의 일거리가 늘어났군. 거기에 맞게 급료도 늘어날 거요. 난 나가 봐야겠소.”

냉소를 날린 코른이 시계를 보더니 로랑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머리들을 눈길로 가리키면서 귀엣말을 했다.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도웰 교수의 머리에 관해 입도 뽕긋하지 마시오!..”

코른이 실험실에서 나가자 로랑이 도웰 교수의 머리를 보러 갔다.

도웰의 두 눈이 그녀를 우울하게 쳐다봤다. 서글픈 미소 때문에 입술이 일그러졌다.

로랑이 나직하게 말했다.

“가엾어라, 오, 가엾은 분... 그러나 곧 복수하게 될 거예요!”

머리가 신호를 보냈다. 로랑이 공기 밸브를 열자 머리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속삭였다.

“복수보다는 차라리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들려주세요.”

7. 머리들이 기분을 전환하다

톰과 브리케의 머리들은 새로운 존재에 적응하기가 도웰의 머리보다 더 힘들었다. 도웰 교수의 뇌는 이전에 흥미를 보였던 과학 연구에 지금도 전념하고 있었다. 톰과 브리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몸통 없이 산다는 건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다. 그들이 아주 금세 우울해진 것은 당연했다.

톰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걸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 나무 그루터기처럼 웅크리고서 구멍 날 정도로 벽만 쳐다봐야 하니...”

코론은 그들을 농담 삼아 ‘과학의 포로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포로들이 시무룩한 모습만 보이자 그도 역시 몹시 안달했다. 대중에 공개할 날이 오기도 전에 머리들이 우울증으로 쇠약해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든 그들이 재미를 보면서 지내게 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영사기를 들여놓고, 로랑과 존이 저녁마다 필름을 틀었다. 실험실의 흰 벽이 스크린 구실을 했다.

톰의 머리는 찰리 채플린과 몬티 뱅크스(Monty Banks)가 출연하는 코미디 필름들을 특히 좋아했다.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보면서 톰은 한동안이라도 자신의 구차한

존재를 잊었다. 그의 목구멍에서 웃음소리 같은 것이 터지기도 하고 두 눈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그런데 방안의 흰 벽에 영사된 한 필름에서 뱅크스가 까불거리는 뒤편으로 시골 농장의 전경이 나타났다. 작은 계집애가 닭들에게 먹이를 준다. 벼를 곳곳이 세운 암탉이 병아리들을 열심히 거뒀 먹인다. 뒤편에 있는 외양간에서는 젊고 튼튼한 여인이 어미의 젖통으로 파고드는 송아지를 팔꿈치로 밀면서 암소의 젖을 짜고 있다. 털복숭이 개가 좋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마당을 달려갔고, 그 뒤로 농부가 나타났다. 그가 말고삐를 잡아끌었다.

그때 톰이 아주 높은 가성 같은 소리를 식씩 내더니 소리를 내질렀다.

“그만! 그만뒤요!..”

영사기 곁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존이 왜 그런지 언뜻 이해하지 못했다.

“상연을 멈춰요!”

로랑이 소리치면서 서둘러 불을 켰다. 희고무레해진 장면이 여전히 얼마 동안 어른거리다가 마침내 사라졌다. 존이 영사기 작동을 멈췄다.

로랑이 톰을 쳐다봤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그건 이미 웃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모욕당한 아이처럼 온통 찌그러들고 입매가 일그러졌다.

톰의 머리가 흐느꼈다.

“꼭 우리... 시골 같아... 암소... 암탉... 그것들이 사라졌어, 이젠 다 사라졌어...”

영사기 곁에서 로랑이 필름을 바꾸느라고 부산을 떨어뜨렸다. 곧 다시 불이 꺼지고 흰 벽에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해롤드 로이드(Harold Lloyd)가 추적하는 경찰들을 피해 황급히 달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톰의 상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에게 더 큰 우울증을 안기게 됐다.

톰의 머리가 투덜댔다.

“저런, 탄내 맡은 놈처럼 정신없이 다니는군. 저자를 나처럼 주저앉히면, 저렇게 팔딱거리며 뛰지 못할 텐데.”

로랑이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야 했다.

사교계 무도회 장면이 브리케의 기분이 완전히 잡혔다. 어여쁜 여인들과 그들의 호사한 성장에 짜증스러운 반응을 예민하게 보였다.

“필요 없어... 난 다른 이들이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영사기를 내갔다.

라디오가 그들을 조금 더 오래 즐겁게 해주었다.

음악이 흐르자 둘 다 흥분했다. 특히 댄스곡이 나오자 더 달아올랐다.

“아아, 내가 이 춤을 얼마나 많이 추었는데!”

브리케의 머리가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외쳤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면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브리케는 변덕이 심했다. 짬만 나면 거울을 비춰 달라고 하지 않나, 특하면 가르마를 바꾸어라, 아이라인을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연지를 발라라, 요구가 많았다. 화장에 크게 관심이 없는 로랑이 무슨 짓인가 싶어 불쾌해졌다.

그러자 브리케의 머리가 짜증을 냈다.

“정말 모르겠단 말이에요?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더 어둡게 됐잖아요. 거울을 더 올려요.”

브리케는 패션잡지들과 옷감을 가져다 달라고 청하고 자기 머리가 놓인 탁자를 천 같은 것으로 가리라고 했다. 나이가 다 들어 수줍음을 타면서, 한 방에서 남자와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 등 괴벽을 보이기까지 했다.

“밤에는 병풍으로, 아니면 책으로라도 나를 가려 줘요.”

로랑이 하는 수 없이 큰 책으로 '병풍'을 만들어 브리케의 머리 곁 유리판 위에 세워 두었다.

툼도 브리케 못지않게 사람들을 귀찮게 했다.

한번은 포도주를 요구했다. 케른 교수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용액에 알코올을 조금 집어넣어서 그가 술 취한 기분을 맛보도록 했다.

가끔 톼과 브리케는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다. 빈약한 성대가 받쳐주지 못했다. 그건 듣기 딱한 이중창이었다.

“나의 가련한 목소리... 예전에 내가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당신이 들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게 말하면서 브리케가 괴롭다는 듯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녁마다 그들은 상념에 잠겼다. 이상한 존재 방식 때문에 이 평범한 존재들조차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들을 숙고하게 됐다.

브리케는 불멸을 믿었다. 톼은 유물론자였다.

“물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는다면, 머리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브리케의 머리가 종알거리자, 톼이 신랄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머리와 몸 중 어디에 깃들었나요?”

“물론, 몸에 있었지요... 아니, 어디에나 있었어...”

상대가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브리케의 머리가 자신 없게 대꾸했다.

“그렇다면 당신 몸통의 영혼은 지금 저승에서 머리가 없이 다니고 있나요?”

“당신한테도 머리가 없는걸요, 뭐.”

브리케가 통명스레 대꾸했지만, 톼이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나야 머리하고 있지요. 그것 하나만 남은 걸요. 한데 당신 머리의 영혼은 저 세상에 남지 않았어요? 이 고무 창자를 따라서 지상으로 돌아왔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말투가 이제 심각하게 바뀌었다.

“우리는 기계와 같아서, 증기를 넣으면 다시 작동했지요. 한데 지금은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리 증기를 넣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각자 상념에 잠기곤 했다.

8. 하늘과 땅

통의 논거는 브리케를 설득하지 못했다.

브리케는 분방하다 못해 난잡할 정도로 생활하면서도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다. 상당히 요란하게 사는 바람에 무덤 저편의 존재를 생각할 시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성당에 다닐 시간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주입된 종교성이 그녀 안에 단단히 뿌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성의 씨앗이 움을 틔우기에 가장 적당한 순간이 다가온 듯싶었다. 그녀의 지금 생활은 끔찍한 것이지만, 죽음은 (두 번째 죽을 가능성은) 그녀를 한층 더 놀라게 했다. 밤마다 저승의 악몽에 시달렸다.

지옥불의 넘실거리는 화염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죄 많은 육체가 거대한 불판 위에서 튀겨지는 것을 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이빨을 부딪치고 혈떡이면서 악몽에서 깨어났다. 호흡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곤 했다. 흥분된 뇌가 산소를 더 많이 요구했지만, 그녀에게는 심장이 없었다. 신체의 모든 기관에 필요한 용량의 혈액 공급을 아주 이상적으로 조절하는 살아 있는 모터가 없었다. 그녀는 자기네 방에서 당직하는 존을 깨우려고 소리를 질러 보았다. 그러나 잤은 호출에 싫증이 난 존은 다만 몇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하려는 욕심에서 케른 교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머리들의 밸브를 잠가두곤 했다.

브리케가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소리쳐 보았지만, 그 비명은 죽기 전 물고기의 하품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방안에는 키메라들의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돌아다니고, 지옥불이 그들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다. 그것들은 그녀에게 바짝 다가들어 무시무시한 손톱 달린 앞발들을 내뻗었다. 브리케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여전히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치 자기 심장이 오그라들고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이미 심장이 없는데도!)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거렸다.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종을 과연 용서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당신은 전능하시고, 당신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게 과연 내 잘못인가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당신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나요? 나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선을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난 배를 고했어요. 도와 달라고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빌었던가요. 신이여, 노여워 말아요, 당신을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혹여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건 아닌지 겁을 내면서도 묵언의 기도를 계속했다.

“나의 잘못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나를 연옥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지옥에만 보내지 않으면 돼요! 난 무서워서 죽을 거예요... 아아, 근데, 이런 바보, 거기서는 아무도 죽지 않잖아!”

그러고는 순진한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

툼도 단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옥의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그를 괴롭힌 것은 땅에 대한 회한이었다. 불과 몇 달 전 고향마을을 떠났다. 소중한 것을 다 뒤로 하고 구운 과자가 담긴 작은 보따리와 꿈 하나만을 챙겨 들고. 그의 꿈은 도시에서 열심히 벌어 땅땀기 살 돈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러면 볼이 예쁘고 건강한 마리하고 혼인할 거야... 아아, 그때는 그녀의 아버지도 둘의 혼인을 반대하지 않겠지.

한데 이제 모든 게 무너졌어... 뜻하지 않은 감옥의 흰 벽에서 그는 농장을 보고 명랑하고 건강한 여인을 보았다. 여인은 마리와 똑 닮았으며 암소의 젖을 짜고 있었다. 그러나 톼 대신 다른 남자가 닭들이 부산을 떠는 마당으로 말의 고삐를 잡아끌고 있지 않은가. 아아, 그는, 톼은 죽었고 파괴됐고, 그의 머리는 까마귀 쫓는 허수아비 같은 말뚝 위에 꽂혀 있지 않은가. 그의 강한 손과 건장한 몸통은 어디 있단 말인가?

절망에 빠진 톰이 이를 부드럽게 갈았다. 그러더니 나직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눈물이 유리판 위로 똑똑 떨어졌다.

“이게 뭐지? 어디서 이런 물이 생겼을까?”

아침 청소 때 로랑이 놀라서 물었다. 존이 벌써 공기 밸브를 열어놓았지만, 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로랑을 불쾌하고 사나운 눈길로 응시하다가, 그녀가 브리케의 머리 쪽으로 발을 옮기자 그 뒤에 대고 나직하게 쉼 소리로 으르렁댔다.

“살인자!”

그는 자신을 갈아뭇간 운전수를 벌써 잊은 채 분노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부었다.

“뭐라고 했지요, 톰?”

로랑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톰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분노를 감추지 않은 두 눈으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로랑이 놀라서 톰의 기분이 왜 저렇게 됐는지 존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브리케가 이미 그녀의 눈길을 낚아챘다.

“내 코 오른쪽을 좀 긁어 줘요? 내 손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종기가 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려울까? 거울을 건네줘요.”

로랑이 브리케의 머리에 거울을 가져다주었다.

“안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조금 더... 그래, 됐어요. 아직 미모가 남아 있어. 콜드크림을 바를까요?”

로랑이 꼭 참고 크림을 발라 주었다.

“그래, 그렇게. 이제 파운데이션을 두드려 줘요. 고마워요... 로랑, 당신에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세요.”

“만약...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이 성직자에게 고백하고 참회한다면, 그런 사람도 속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로랑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브리케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난 지옥의 고통이 너무 겁나요... 부탁인데, 큐레(*curé. 가톨릭 주임사제)를 나한테 모셔다 주세요... 난 기독교인으로 죽고 싶어...”

브리케의 머리가 죽어가는 수난자의 형상을 띠고 두 눈을 위로 핵 뒤집었다. 그러더니 금방 눈을 내리깔며 소리쳤다.

“당신의 원피스는 정말 흥미롭게 지었군요! 이게 최신 유행인가요? 패션잡지들을 가져다 달라고 한 지가 오래 됐는데.”

브리케의 생각이 지상의 관심거리로 돌아왔다.

“옷자락이 짧아... 미니스커트를 입을 때는 예쁜 다리가 아주 어울려요. 나의 다리! 나의 불쌍한 다리! 당신은 내 다리를 봤나요? 아아,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다리 때문에 남자들이 녀을 잃곤 했지요!”

코른 교수가 들어왔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떻소?”

안부 물음에 브리케가 호소하고 나섰다.

“들어 보세요, 교수님. 난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나한테 누구의 몸라도 달아 줘야 해요. 이전에도 간청했는데,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정말 부탁이에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요...”

‘빌어먹을, 안 될 게 뭐야?’

코른 교수에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몸통에서 떼어낸 사람 머리를 소생시킨다는 명성을 그가 다 자신에게 돌리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 성공적인 실험이 도웰 교수의 업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도웰보다 더 앞서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두 명의 죽은 사람들에서 하나의 산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거창할 거야!’

그게 성공만 한다면 모든 영광과 명성을 코른 한 사람이 떳떳하게 차지할 터였다. 그렇긴 해도 도웰의 머리가 하는 지도를 아직은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이 점을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

“당신은 아직도 춤추기를 갈망하오?”

생각을 멈춘 코른이 웃으면서 시가 연기를 브리케의 머리에 내뿜었다.

“원하냐고요? 난 밤낮으로 춤을 출 거예요. 풍차처럼 손을 흔들고 나비처럼 날면서... 몸통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나한테 붙여 주세요!”

“하지만 꼭 여자 몸이라야 되오? 원하기만 한다면 남자 몸통이라도 줄 수 있지.”

코른이 놀리듯이 말하자, 브리케가 경악하여 쳐다봤다.

“남자 몸통이라구요? 남자 몸통 위에 있는 여자 머리라니! 아니, 안 돼요, 너무 흉측한 꼴이 될 거예요! 옷 입는 것조차 곤란하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미 여자가 아닐 거요. 남자로 바뀌는 게지. 당신한테서는 콧수염과 구레나룻이 자라고 목소리도 달라질 거야. 남자로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요? 많은 여성들이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데.”

“그런 여자들은 아마 남자들의 눈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야 남자로 바뀌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브리케가 예쁜 눈썹을 보란 듯이 꿈틀거렸다.

“그래, 뜻대로 하시오. 당신은 여자로 남게 될 거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몸통을 찾도록 하리다.”

“오, 교수님, 난 한없이 감사할 겁니다. 오늘 할 수는 없나요? 상상만 해도 좋아요, 다시 '샤누아'로 돌아가면 인기가 절정에 오를 텐데...”

“그렇게 빨리 되는 일이 아니오.”

브리케가 계속 입을 놀려댔지만, 코른은 이미 톰의 머리 쪽으로 발을 옮겼다.

“어떤가요, 친구?”

톰은 교수와 브리케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 생각에 골똘한 그는 코른을 무뚝뚝한 표정으로 쳐다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코른 교수가 새 몸통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브리케의 기분이 확 달라졌다. 더 이상 지옥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무덤 저편의 존재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곧 맞이할 새로운 지상의 삶에 온통 빠져들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마르고 피부가 누런빛을 띠었다는 사실에 염려했다. 전발을 해 달라, 머리 모양을 만들어 달라, 얼굴에 크림을 발라 달라, 요구하면서 로랑을 지치게 만들었다.

“교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마르고 누렇게 뜬 상태로 있어야 하나요?”

코른 교수를 보자마자 그녀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예전보다 더 예뻐질 거요.”

그가 위로했다. 교수가 나가자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다.

“아니야, 화장해 봤자 소용없어. 이건 자기기만일 뿐이야. 마드무아젤 로랑, 냉수로 샤워하고 마사지를 해요. 눈가와 코에서 입술 부위까지 뽀루지들이 새로 생겼네요. 마사지를 잘 받으면 없어지지 않겠어요? 내 여자 친구 하나는... 이런,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네. 그래, 드레스 지을 잿빛 비단을 찾았나요? 나한테는 잿빛이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아, 패션 잡지들을 가져왔어요? 아주 좋아요! 아직 치수를 잴 수 없다니, 정말 아쉽군요. 어떤 몸통이 내 것이 될지 난 몰라요. 키가 늘씬하고 허리가 잘록한 몸통을 준다면 좋을 텐데... 잡지를 펼쳐세요.”

그녀가 아름다운 여성 의상의 비밀에 푹 빠졌다.

로랑은 도웰 교수의 머리를 잊지 않았다. 이전처럼 머리를 돌보고 아침마다 독서를 도왔지만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다. 한데 아직도 도웰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로랑은 갈수록 더 지치고 신경이 예민해졌다. 브리케의 머리가 그녀를 잠시도 편안히 놓아두지 않았다. 어떤 때는 도웰의 독서를 돕다가도 비명을 듣고 달려가야 했는데, 하찮은 일로 브리케가 법석을 떨었다는 것을 알고는 은근히 부아가 나기도 했다. 아래로 처진 머리채를 고쳐 달라, 로랑이 의상실에 가 봤는지 대답해 달라는 등.

“그러나 당신은 아직 몸통 사이즈를 모르잖아요.”

로랑이 화를 참으며 대답하고는 머리채를 올려놓고 도웰의 머리로 서둘러 돌아왔다.

코른이 과감한 수술을 시도하기로 작정했다.

복잡한 수술을 열심히 준비했다. 그는 도웰 교수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곤 했다. 도웰의 조언이 없이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도웰은 코른이 생각지도 못했지만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움 몇 가지를 지적하며 짐승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험을 몇 차례 해 보라고 조언하고 그 실험들을 직접 지도했다. 그리고 (도웰의 지력이 그러했다.) 그 자신도 예정된 실험에 강하게 호기심을 보였다. 도웰의 머리가 활기를 띄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사유가 지극히 선명하게 작동했다.

코른은 도웰의 지대한 도움에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이기도 했다. 작업 진도가 더 나갈수록 도웰이 없이는 도저히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이 새로운 실험을 자신이 실행한다는 점 하나로 위안을 삼았다.

한번은 도웰의 머리가 약간 빈정대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죽은 도웰 교수의 좋은 후계자요. 아아, 내가 이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부탁도 암시도 아니었다. 도웰의 머리는 코른이 자기에게 새로운 몸통을 주기 원치 않으며 주지 않을 것임을 훤히 알고 있었다.

코른이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그 탄식을 못 들은 체하면서 말을 돌렸다.

“자, 짐승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개 두 마리를 수술했지요. 머리통들을 절단한 뒤 한 머리통을 다른 몸통에 접합시켰지요. 둘 다 건강하고, 목 부위의 봉합도 아물어 갑니다.”

“영양 공급은?”

머리가 물었다.

“아직은 내 손으로 먹이지요. 요오드를 섞은 용액을 살균해서 입으로 넣어요. 하지만 곧 영양 공급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며칠 지나서 코른이 알렸다.

“개들의 영양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봉대를 다 풀었고, 내 생각에 이틀쯤 지나면 뛰어 다닐 겁니다.”

“일주일 정도는 기다리시오. 젊은 개들은 머리를 심하게 흔들기 때문에 봉합이 터질 수 있소. 서둘러 강행하지 말아요.”

‘당신이 월계관을 쓰게 될 거요.’ 하고 덧붙이고 싶었지만 머리가 꼭 참았다.

“한 가지 더. 개들을 서로 다른 곳에 두시오. 한 군데 두면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마침내 그날이 왔다. 코른 교수가 의기양양한 낯빛으로 검은 머리통에 흰 몸통이 달린 개를 끌고 도웰의 머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개는 상태가 좋아 보였다. 두 눈이

살아 있고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개가 도웰의 머리를 보더니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대다가 야생의 소리로 잦아들었다. 흔치 않은 장면에 놀라고 겁을 먹었던 모양이다.

“개를 데리고 한 바퀴 돌아 보시오.”

머리의 지시에 따라 코른이 개를 끌고 방을 한 바퀴 돌았다. 도웰의 노련하고 예리한 눈이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한데 이걸 왜 그렇소? 개가 왼쪽 뒷다리를 좀 절뚝이는구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코른이 당황하여 변명했다.

“이 개는 수술 전에도 다리를 절었지요. 부러졌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변형이 보이지 않는데, 애석하게도 내가 만져서 살필 수는 없구려. 건강한 개 한 쌍을 구할 수는 없었던 말ियो?”

머리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담겼다.

“나한테는 그 무엇도 숨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동료. 아마도 소생 수술을 오래 끄는 바람에 심장 활동과 호흡의 정지가 ‘죽은 상태’를 너무 길게 잡아두었을 것이오. 그렇게 되면, 내 실험들을 통해 당신도 알다시피, 새로운 시스템의 기능이 훼손되는 경우가 더러 있소. 하지만 염려할 건 없지. 그런 현상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 단지, 브리케가 두 다리를 절뚝거리게 하지는 않도록 하시오.”

코른이 발끈했지만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머리 안에 이전의 도웰 교수가, 직설적이고 꼼꼼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 분풀이를 했다.

‘기분 상하게 만드는데! 펑크 난 타이어처럼 썩썩 거리는 이 머리통이 여전히 나를 가르치고 내 실수를 조롱하려 들다니. 그런데 난 그 가르침을 초등학생처럼 경청해야 하고... 밸브를 돌리기만 하면 이 썩은 호박덩어리에서 영혼이 달아날 것을...’

그러면서도 불쾌한 기분을 감춘 채 조연 몇 가지를 주의 깊게 듣고는 고개를 숙였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방에서 나오자 그가 다시 우쭐거리며 자신을 위로했다.

‘아니야, 실험은 훌륭하게 됐어. 도웰의 비위를 맞추기가 그리 쉽지 않지. 개의 절뚝거리는 다리와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 따위야 다른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야.’

브리케의 머리가 놓인 방을 지나치다가 걸음을 멈추고 데리고 있던 개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마드무아젤 브리케, 당신의 소망이 곧 이뤄질 거요. 이 개가 보이지? 이놈은 당신처럼 몸통이 없는 머리였어. 근데, 봐요, 이렇게 살아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뛰어 다니고 있잖소.”

“나는 개가 아니에요.”

브리케의 머리가 뿔로통하여 대꾸했다.

“하지만 이건 필수적인 실험이오. 개들이 새로운 몸뚱이에서 살아났다면, 당신도 살아날 것이야.”

“하필이면 왜 개를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 브리케가 고집스레 말을 잘랐다. “내가 개한테 볼 일은 전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언제 소생할지 말해 주세요. 나를 빨리 살려내는 대신에 개들만 만지작거리다니.”

코른이 말이 안 통한다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면서도 여전히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이제 금방 될 거야. 어울리는 시체를... 아니, 그러니까, 몸통을 찾지만 하면 돼. 그러면 당신은 흔히 말하듯이 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요.”

개를 데려다 놓고 코른이 자를 들고 와서 브리케 머리의 목둘레를 꼼꼼히 잰다.

“삼십육 센티미터로군.”

“맙소사, 내가 그렇게 말랐어요?” - 브리케가 놀라 소리쳤다. “삼십팔이었는데. 내가 신는 구두 사이즈는...”

그러나 코른은 그 말을 다 듣지 않은 채 자기 서재로 달려갔다. 책상 앞에 앉기도 전에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로랑이 들어섰다. 평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얼굴에는 동요의 빛이 역력했다.

9. 선과 악

코른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머리통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소?”

“그건 아니고... 교수님과 할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코른이 안락의자 등받이로 상체를 젖혔다.

“말해 봐요, 마드무아젤 로랑.”

“브리케의 머리에 몸을 붙여주시겠다는 게 진지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녀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아주 진지한 생각이요.”

“그 수술이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이지. 당신도 개를 봤잖소?”

“한데 톰에게는 제의하시지 않나요? 다리를 붙여준다고...”

로랑이 에둘러서 말하기 시작했다.

“못할 게 뭐 있소? 그도 벌써 나한테 간청했지만, 차례를 기다려야지.”

로랑의 말이 갑자기 빨라지고 고르지 않게 나왔다.

“그러면 도웰 교수님한테도... 물론 톰과 브리케를 비롯해 누구나 인간답게 정상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물론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도웰 교수의 머리가 당신의 다른 머리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점을... 만일 톰과 브리케를 정상적인 존재로 되돌리려 하신다면, 도웰 교수님의 머리로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코른이 얼굴을 찌푸렸다. 경계심 때문에 안색이 굳어졌다.

“도웰 교수에게, 아니, 정확히 말해서, 그의 머리에게...” - 그 단어에 비웃음이 섞였다. “당신 같은 훌륭한 변호인이 생겼군. 그러나 변호인 따위는 필요 없고, 당신도 쓸데없이 열을 올리고 흥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소. 나도 도웰의 머리를 소생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왜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는 겁니까?”

“왜냐하면 도웰의 머리가 다른 수천의 머리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요. 브리케의 머리에 몸통을 붙이기 전에 내가 개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소? 브리케의 머리가 개의 머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도웰의 머리가 브리케의 머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과 개의 목숨은 비교가 안 되지요, 교수님...”

“도웰과 브리케의 머리도 마찬가지로야. 할 말이 더 있는 거요?”

“아니, 없습니다, 교수님.”

로랑이 대답하고 문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렇다면, 마드무아젤, 내가 당신에게 몇 가지 물어 보겠소. 기다려요, 마드무아젤.”

로랑이 문가에서 발을 멈추고 코른을 의아한 눈길로 바라봤다.

“여기, 테이블로 와서 자리에 앉으시오.”

로랑이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안락의자 끝에 몸을 걸쳤다. 상대의 안색으로 보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코른이 안락의자 등받이로 상체를 던지고 탐색하는 눈초리로 로랑을 오랫동안 주시했다. 집요한 눈길을 그녀가 피하자, 큰 키를 재빨리 일으켜서 책상에 주먹을 대고 로랑에게 고개를 숙여 최면을 걸듯이 은근하게 물었다.

“말해 봐요, 도웰 머리에 있는 공기 밸브를 작동시키지는 않았소? 그하고 무슨 얘기를 나눈 건 아니요?”

로랑이 손가락 끝에서 한기를 느꼈다.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회오리처럼 맴돌았다. 케른으로 인해 생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로랑이 망설였다.

‘오오, 이 사람의 낯짝에 ‘살인자’라는 말을 내뱉으면 얼마나 통쾌할까. 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들다가는 일을 그르치고 말 거야.’

로랑은 코른이 도웰에게 새 몸통을 주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믿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갈망하는 것은 단 하나, 도웰의 연구 성과를 가로챈 케른을 의학계에서 매장하고, 만천하에 그의 범위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코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며, 그에 대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코른의 범위를 폭로하기도 전에 자신이 파멸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려면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과 양심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이제 내면의 동요가 극도로 커졌다.

코른이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놀리듯이 말했다.

“거짓말할 생각일랑 아예 거두시오. 그런 죄를 지어서 양심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 머리통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소? 잡아떼지 마시오, 다 알고 있으니까. 나의 충실한 하인 존에게 귓구멍은 괜히 있나...”

로랑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입을 꼭 다물었다.

“머리통하고 몇 마디 주고받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소. 단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고 싶을 뿐이지.”

두 뺨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에 로랑이 고개를 쳐들고 코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전부 다 들었다고!”

코른이 여전히 두 주먹으로 책상을 짚은 채 나직하게 으르렁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로랑이 다시 눈길을 떨어뜨린 채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코른이 돌연 문으로 달려가더니 열쇠를 돌려 잠그고는, 뒷짐을 진 채 부드러운 양탄자 위를 몇 바퀴 돌았다. 그러다가 소리 없이 로랑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귀여운 아가씨? 피에 굶주린 괴물 코른을 법정에 넘기려고?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고? 그의 범위를 폭로하겠다고? 필경 도웰이 그런 짓을 부탁했겠지?”

마지막 말에 로랑이 두려움도 잊은 채 적극 항변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웰 교수의 머리에 복수심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정말입니다. 오오, 그분은 고결한 영혼이에요! 그뿐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류했습니다. 그분은 당신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기 자신처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녀가 두 눈을 반짝이면서 도전적으로 말을 맺었다.

코른이 쓴웃음을 짓고는 다시 집무실을 바장였다.

“그래,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어이 폭로할 생각이었는데, 도웰의 머리가 말렸다 이거지? 흠, 그렇지 않았다면 코른 교수는 벌써 감옥에 들어갔겠군. 설령 덕행이 이길 수 없다 해도 죄업은 어떻게든 징벌을 받는다! 당신이 읽은 소설들은 다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안 그렇소, 귀여운 아가씨?”

“악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가 이제 감정을 거의 억누르지 못하여 언성을 높였다.

“아, 그래, 물론, 저기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되겠지.”

두터운 흑단을 바둑판무늬로 댄 천장으로 코른이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여기 지상에서는 죄업이 승리한다는 것을, 악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순진한 당신도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선은... 착하게 사는 자들은 거리에서 손을 내밀고 구걸이나 하거나, 아니면 저기 있는 물건처럼 쭈그리고 있게 되는 거야.”

코른이 도웰의 머리가 놓인 방 쪽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다.

“까마귀들을 쫓는 허수아비처럼, 지상의 모든 것이 덧없다고 곱씹으면서 말이야.”

그러고는 로랑에게 바짝 다가서서 목소리를 한껏 깔았다.

“이런 거 아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과 도웰의 머리를 문자 그대로 새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귀신도 모르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범죄적 행위라도? 잘 알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군.”

코른이 다시 방안을 바장이면서 이젠 혼잣말처럼 평소의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근데 복수에 불타는 귀여운 당신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유감스럽게도, 아가씨는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으며 진실을 위해서는 고통의 화관도 기꺼이 쓸 준비가 된 부류로군. 연약하고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어지간한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는단 말이야. 당신을 죽여야 하나? 오늘, 아니 지금 당장? 난 살인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법석을 떨기는 해야겠지. 한데 내 시간이 아까워. 매수를 한다? 이건 위협하기보다도 더 어렵고... 그래, 내가 아가씨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지금 이런 얘기를 없었던 걸로 해요... 아직까지 당신을 고발하지는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건가?”

로랑이 한순간 망설이다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고발할 겁니다.”

코른이 발을 굴렀다.

“으음, 고집불통 아가씨로군!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이제 내 책상에 가서 앉고... 겁내지 마시오, 아직은 목을 조르지도 않고 독약을 줄 생각도 없으니까. 자, 어서 앉아요.”

로랑이 영문을 몰라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잠시 생각하다가 책상 앞의 안락의자로 옮겨 앉았다.

“어찌 됐든 당신은 나한테 필요해. 지금 당신을 없앤다면 남자든 여자든 다른 조수를 또 구해야겠지. 새로 들이는 자가 도웰 머리의 비밀을 알아낸 뒤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악당이 아니란 보장이 없어. 그럴 바엔 차라리 아가씨 같은 사람과 상대하는 게 더 편해. 자, 받아 적으시오. ‘소중한 어머니, 혹은 집에서 부르는 대로 적어요, 내가 돌보는 환자들의 상태가 안 좋아서 당분간 코른 교수의 자택에 계속 있게 됐어요...’

“내 자유를 박탈하려는 겁니까? 여기, 이 집에 감금하려는 겁니까?”

로랑이 펜을 쥔 채 발끈하여 물었다.

“바로 그거야, 나의 착한 조수여.”

“이런 편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로랑이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자 코른이 벽시계의 스프링이 울릴 만큼 고함을 질렀다.

“됐어, 이제 그만! 나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르나?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두게.”

“나는 당신 집에 남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편지도 쓰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아가씨가 무슨 짓을 해도 좋아. 그러나 여기서 나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도웰의 머리에서 생명을 빼앗고 그 머리를 화학 용액에 담가 녹이는지를 보게 될 거야. 나가게, 나가서 사방팔방 다니며 ‘난 코른의 집에서 도웰의 머리를 봤어요!’ 하고 외쳐 봐. 그런 말을 과연 누가 믿을까? 다들 비웃지나 않으면

다행일 거야. 그러나 조심하게! 그런 짓을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자, 얼른 가게, 나가 보시라고!”

코른이 로랑의 팔을 잡아 문으로 끌고 갔다. 그 거친 습격에 저항할 힘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코른이 문을 핵 열고 틈과 브리케의 방을 겹싸게 지나쳐서 도웰 교수의 머리가 놓인 방으로 들어갔다.

도웰의 머리가 난데없는 방문에 어리둥절했다. 코른이 머리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기구들 쪽으로 성큼 다가가서 혈액을 공급하는 용기의 밸브를 사납게 돌려 잠갔다.

내막을 모르는 머리의 두 눈이 평온하게 밸브 쪽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위협적인 코른과 아연실색한 로랑을 바라봤다. 공기 밸브가 닫혀 있기 때문에 머리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머리와 비언어적 소통에 익숙한 로랑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 그건 “이제 끝장인가?” 하는, 소리 없는 물음이었다.

머리의 두 눈이 로랑에게 쏠렸다가 흐려지는 듯했다. 동시에 눈꺼풀이 넓게 열리고 동공이 부풀어 올랐으며,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되기 시작했다. 머리는 호흡곤란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로랑이 히스테리 환자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면서 코른에게 다가가더니 팔에 매달려서 거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날카롭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

“여세요, 밸브를 얼른 열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어요!!”

코른이 얇은 냉소를 지으면서 밸브를 열었다. 생기를 불어넣는 공기 흐름이 관을 타고 도웰의 머리로 흘러들었다. 얼굴의 발작적인 경련이 멈추고 두 눈이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으며 눈길이 밝아졌다. 꺼져가던 생명이 도웰의 머리로 되돌아왔다. 의식도 돌아온 게 틀림없었다. 왜냐면 도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니, 심지어는 낙담했다는 표정으로 로랑을 다시 바라보았으니까.

로랑이 동요하여 비틀거렸다.

“내가 부축해 주겠소.”

코른이 중세 기사처럼 아주 정중하게 말했다.

기묘하게 보이는 남녀가 방을 나갔다.



서재로 돌아와 로랑이 책상 앞에 앉자 코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아, 우리가 어디서 멈췄지? 그래... ‘환자들의 상태로 보아 내가 늘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써요. ‘코른 교수의 자택을 잠시도 비울 수가 없게 됐어요. 코른 교수는 아주 좋은 분이어요. 나한테 정원으로 창문이 난 예쁜 방을 제공하고,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급료를 세 배로 올렸어요.’”

로랑이 무슨 헛소리냐 하는 표정으로 코른을 쳐다봤다.

“이건 거짓이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아가씨를 묶어두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지. 실제로 급료를 올리겠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으시오. ‘여기 생활은 나무랄

데가 없고, 일이 많긴 하지만 내 상태도 아주 좋아요. 나를 보러 오지는 말아요. 교수님은 아무도 집에 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궁금해 하지도 말아요, 또 편지를 할 테니까...' 됐소. 이제 당신이 평소 편지에 담던 애정의 표현을 덧붙이시오. 그래야 편지가 수상쩍게 보이지 않겠지."

그러고는 이미 로랑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이 소리 내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마냥 갈 수는 없어. 당신을 오래 잡아 두지도 않을 거야. 우리의 연구는 막바지에 다다랐고, 완성되기만 하면... 즉, 머리가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머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당신이 잘 알지. 간단히 말해서, 내가 도웰과 함께 연구를 다 끝내면, 도웰의 머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요. 머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때 당신은 좋아하는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때엔 아가씨가 나한테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말하는데, 어디 가서 입을 놀리겠다고 고집한다면 난 증인들을 내세울 것임을 염두에 두시오. 필요한 경우 그들은 해부가 끝난 뒤 도웰 교수의 머리와 팔다리를 포함해 시신 전부를 내가 화장터에서 소각했다고 성서에 손을 얹고 증언할 테니. 이런 경우에 화장터가 아주 편리한 곳이지."

코른이 종을 울리자, 곧 존이 들어왔다.

"존, 마드무아젤 로랑을 정원으로 창이 난 하얀 방으로 안내해라. 앞으로 일이 많기 때문에 마드무아젤 로랑은 내 집에서 머물 거야.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마드무아젤에게 물어서 다 챙겨 줘라. 상점들에 전화해서 내 이름으로 주문해도 좋아. 내가 계산할 테니까. 마드무아젤을 위해 점심식사를 주문하는 것도 잊지 말고."

코른이 자리를 뜬다는 표시로 고개를 까닥이고 나갔다.

존이 로랑을 새 방으로 안내했다.

코른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방은 실제로 아주 좋았다. 밝고 넓고 아늑하게 꾸며졌다. 커다란 창문이 정원 쪽으로 나 있었다. 그러나 이 아늑하고 단정한 방이 로랑에게는 가장 음울한 감옥보다 더 큰 우수를 안겼다. 로랑이 중환자처럼 힘겹게 발을 옮겨 창문으로 다가가서 정원을 내다봤다.

'이층이야... 높아... 여기서 달아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설령 달아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녀는 달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탈주가 곧 도웰 머리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을 테니까.

로랑이 기진맥진하여 쿠세트(couchette)에 몸을 던지고 고통스러운 상념에 잠겼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꿈결처럼 존의 목소리를 듣고 천근같은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고마워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세요.”

엄하게 훈련된 하인이 군소리 없이 지시를 따랐다.

그녀가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길 건너편 건물의 창들이 불빛으로 환해졌을 때, 그녀가 심한 고독감에 휘둘러서 당장 머리들을 보러 가기로 했다. 도웰의 머리가 특히 보고 싶었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로랑이 들르자 브리케의 머리가 반색하여 소리쳤다.

“아아, 드디어! 벌써 됐나요? 가져왔어요?”

“무슨 말이지요?”

“내 몸통 말이에요.”

브리케는 마치 새 원피스 애기라도 하는 것 같은 투로 말했다.

로랑이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될 거예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아흐,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나한테도 다른 몸을 붙일 건가요?”

툼이 물었다.

“네, 물론이지요.” - 로랑이 그를 위로했다. “당신은 예전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될 거예요. 돈을 벌어서 고향 마을로 내려가 당신의 마리를 아내로 맞겠지요.”

로랑은 머리의 은밀한 소망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툼이 기분이 좋아져서 입술로 쪽 소리를 냈다.

“얼른 그런 날이 오길.”

로랑이 서둘러 도웰의 머리가 있는 방으로 갔다.

공기 밸브를 열자마자 머리가 물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로랑이 코른과의 대화며 자신의 감금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다.

로랑의 말이 끝나자 머리가 말했다.

“정말 꽤심한 작태로군!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가씨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머리의 두 눈에 분노와 결연함이 서렸다.

“아주 간단하오. 영양 공급하는 관을 닫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거요. 정말이지, 코른이 밸브를 다시 열어 나를 살려냈을 때 난 낙담하기까지 했댔오. 이제 내가 죽으면, 코른이 아가씨를 집에 보내줄 거외다.”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까!”

로랑이 언성을 높였다.

“아아, 내가 키케로만큼 말을 잘한다면, 아가씨를 설득할 수 있을 텐데.”

로랑이 그렇지 않다는 표시로 고개를 저었다.

“키케로가 아니라 키케로 할아버지라도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짓을 난 결코 용납하지 못해요...”

“한데, 내가 과연 사람일까?”

우울한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가 물었다.

로랑이 위로하고 달래는 투로 대답했다.

“데카르트의 말을 교수님이 인용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사유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그건 그래.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할 테요. 코른을 더 이상 지도하게 않겠소. 그 어떤 고문을 가한다 해도 더 이상 그를 돕지 않을 거요. 그러면 제 손으로 나를 끝장내겠지.”

그 말에 로랑이 안달이 나서 머리에 바짝 다가섰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내 말을 들어 보세요. 얼마 전까지 난 복수를 꿈꾸었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어요. 만약 코른이 브리케의 머리에 몸통을 접합하는 데 성공하고,

그런 수술 기법이 자리 잡는다면, 교수님도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코른이 아니라 다른 외과의사의 손으로 말이지요.”

“안타깝게도 그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오. 코른도 그 실험을 성공하기 힘들게요. 그는 성정이 못되고 범죄적이며,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지른) 헤로스트라투스를 수천 명 합해 놓은 것처럼 헛된 명성에 집착하는 사람이오. 하지만 외과의로서는 재능이 있고, 내 곁에 있던 조수들 중에서 능력이 가장 출중할 거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나의 조언과 지도를 받으면서도 이 실험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느 누구도 못할 거라는 뜻이오. 하지만 그가 이 전대미문의 수술을 성공하리라고 난 확신하지 못하오.”

“그러나 벌써 개들을...”

“개들은 다른 문제라오. 머리들을 이식 수술하기 전에 건강하게 살아 있는 개 두 마리가 같은 탁자 위에 누워 있었지. 수술은 아주 빠르게 진행됐소. 그런데도 코른은 한 마리만 살릴 수 있었던 모양이오. 그렇지 않다면 자랑하려고 두 마리를 다 내게 데려왔을 테니까. 그런데 시신은 아무리 빨라도 죽은 뒤 몇 시간이 지나서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소? 그때는 이미 부패가 시작됐을 수도 있는 게고. 수술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아가씨도 의사니까 판단할 수 있겠지. 그건 반쯤 잘린 손가락을 붙이는 것과 달라요. 정맥과 동맥, 그리고 중요한 건데, 신경과 척수를 다 면밀하게 연결하고 꿰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구가 나올 테니, 그러고 나서 피가 돌도록 하고... 아아, 이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오. 지금의 외과의들에게는 버거운 과제지.”

“교수님이 그런 수술을 다 해내시지 않았던가요?”

“나는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개들을 대상으로 이미 몇 번 실험했다오. 지금 이런 꼴만 아니라면 아마도 성공했을...”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다. 문턱에 코른이 나타났다.

“음모자들의 밀담인가? 당신들을 방해하지 않겠어.”

그러고는 문을 콧 담았다.

10. 죽은 다이애나

브리케의 머리가 보기에선 적당한 새 몸을 골라서 사람의 머리에 접합하는 것이 새 원피스의 치수를 재고 바느질하는 것처럼 쉬운 일 같았다. 목둘레를 재고, 그 사이즈에 맞는 목을 가지고 있는 시신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싶었다.

하지만 곧 머리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확신하게 됐다.

아침에 코른 교수와 로랑, 존이 흰 가운 차림으로 브리케의 머리에게 나타났다. 코른은 브리케의 머리를 유리판에서 조심스레 떼어내 목의 절단면이 자세히 보이게끔 얼굴을 위로 돌려놓으라고 지시했다. 산소를 가득 담고 있는 혈액이 여전히 머리에 공급됐다. 코른이 꼼꼼히 살피고는 목의 굵기를 잴다.

“인간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같으면서도 사람들의 몸은 다 나름대로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예를 들어, 경동맥도 이게 외경동맥인지 내경동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거든. 목둘레가 같은 사람들한테서도 동맥의 굵기와 목구멍의 넓이가 일정하지 않아. 신경들에도 적잖이 손을 대야 하고.”

로랑이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하실 겁니까? 목의 절단면에 몸통의 절단면을 붙인 뒤, 바로 다 봉합을 하는 건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오. 이 문제를 내가 도웰과 함께 자세히 검토했지. 중심에서 바깥으로 종단으로 절개해야 돼. 아주 복잡한 작업이오. 아직 죽지 않고 활동하는 세포들을 얻으려면 목 부위가 죽지 않게끔 절단해야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가장 큰 난관은 아니오. 중요한 것은, 시체에서 부패가 시작됐거나 세균에 감염된 부위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또 어떻게 혈관의 손상된 혈액을 씻어내고 신선한 피를 채워서 신체의 ‘모터’인 심장이 작동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척수는? 그건 아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가장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종종 수습하기 어려울 수가 있소.”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을 어떻게 해내시려는 겁니까?”

“아, 그건 일단 나의 비밀이요. 실험이 성공하면,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는 내막을 다 공개할 거요. 자,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 머리를 제 자리에 돌려놓고, 공기를 흘러 넣으시오.”

그러고는 코른이 브리케의 머리에게 물었다.

“기분이 어때요, 마드무아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교수님, 난 아주 불안해요... 지금 여러 가지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이해했어요. 당신은 내 목을 종횡으로 마구 난도질하려는 거지요? 그건 정말 꼴불견일 거예요. 커틀릿 같이 보일 목을 달고 내가 어디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상처들이 덜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자국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할 거야. 실망의 눈빛을 짓지 말아요, 마드무아젤, 목에 비로드 리본이나 목걸이를 하면 될 거야. 그래, 당신 ‘생일’에 그런 목걸이를 하나 선사하지.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당신 머리는 다소 말랐어요. 당신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머리에 살이 좀 붙어야 돼. 당신의 정상적인 목둘레를 알기 위해 이제 당신을 ‘포동포동하게 살 찌워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난 먹을 수가 없는 걸요.”

머리가 불평했다.

“우리가 관을 통해서 살을 찌우지. 내가 특별한 종합 영양물을 준비했어.”

그러고는 로랑에게 말했다.

“그것 말고도 혈액 공급을 더 늘려야겠소.”

“영양 용액에다 지방질을 넣으시려고요?”

코른이 모호하게 손을 저었다.

“머리에 기름기가 좀 끼어서 포동포동하게 되지 않으면 ‘수분이라도 넣어서 부풀려야’ 하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 자아,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어.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마드무아젤 브리케. 당신에게 아름다운 몸을 선사할 어떤 미녀가 한시라도 빨리 죽게 해 달라고 말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가 몸을 얻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니... 무서워요, 의사 선생님. 그건 죽은 사람의 몸이잖아요. 갑자기 그녀가 와서 자기 몸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죽은 사람이 말이에요.”

코른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오고 싶어도 다리가 없는데. 만약에 나타난다고 해도, 그녀가 당신에게 몸을 준 게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 머리를 준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녀는 오히려 선물에 감사할 거야. 이제 난 시체 안치소에 가 봐야겠어. 나의 성공을 빌어 주오!”

실험의 성공 여부는 최대한 신선한 시신을 확보하는 데 크게 좌우됐다. 그래서 코른은 만사를 제치고 행운을 기다리며 시체 안치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입에 시가를 문 채 그는 기다란 건물을 마치 가로수 길 산책하듯이 느긋하게 오고갔다. 길게 늘어선 대리석 탁자들 위로 희끄무레한 불빛이 천장에서 떨어졌다. 탁자마다 이미 물줄기로 세척된 시체들이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시가 연기를 내뿜으면서 코른이 기다란 탁자 대열을 따라 천천히 발을 옮겼다. 얼굴들을 들여다보고 몸통을 보기 위해 틈틈이 가죽 덮개를 들추곤 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와 함께 오갔다. 코른은 그들을 마뜩잖은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적당한 시신을 찾았다 해도 그들이 도로 빼앗아 가면 말짱 헛일이었다. 적당한 시신을 확보하기란 그리 수월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사흘이 지나기 전까지 시신에 대한 권리를 제기할 수 있고, 사흘이 넘어서 절반 부패한 시체는 코른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에게는 아주 신선하고, 가능하다면 식지 않은 시신이 필요했다.

신선한 시신을 즉각 얻기 위해 코른은 돈도 아끼지 않았다. 시신의 번호를 바꿔치기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불행한 시신이 결국 ‘행방불명’으로 처리될 터였다.

‘하지만 브리케의 입맛에 맞는 다이애나를 찾기란 쉽지 않아.’

시체들의 넓적한 발바닥과 굳살 박힌 손들을 보면서 코른이 생각했다. 여기에 누워 있는 시신들 대다수는 자가용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코른이 저편 끝에서 이편 끝으로 지나왔다. 그 동안에 신원이 확인된 시신 몇 구가 밖으로 들러나가고, 그들 자리를 벌써 새로운 시신들이 채웠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시신들 중에서도 수술에 적합한 재료를 코른은 구할 수 없었다. 머리가 없는 시신들을 찾아내기는 했지만, 체격이 맞지 않거나 몸에 상처가 났거나, 그도 아니면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것들이었다.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다. 시장기를 느낀 코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접에 담긴 닭 커틀릿을 상상하며 입맛을 다셨다.

‘오늘도 글렀어.’

회중시계를 꺼내 보았다. 그리고는 여러 시신들 곁에서 절망과 경악과 오열에 가득 차서 움직이는 인파를 뚫고 출구 쪽으로 발을 옮겼다. 저편에서 마주 오는 일꾼들이 머리가 없는 여인의 몸통을 옮기고 있었다. 말끔하게 씻긴 젊은 몸이 흰 대리석처럼 빛을 냈다.

‘오, 저건 쓸 만해 보이는데.’

그가 잡역부들을 뒤따라갔다. 탁자 위에 놓인 시신을 대충 훑어보고서는 필요한 것을 찾았다고 더 확신했다. 코른이 일꾼들에게 그 시신을 내가자고 귀엣말을 하려는 순간, 수염이 텃수룩하고 입성이 남루한 늙은이가 시신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 아이야, 마르타가 맞아!”

늙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빌어먹을, 어디서 나타난 거야!”

코른이 입속에서 욕설을 내뱉고는 늙은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시신을 확인하셨습니까? 머리가 없는데.”

늙은이가 왼쪽 어깨에 박힌 커다란 점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걸 보면 알 수 있지요.”

늙은이가 하도 태연하게 말하는 바람에 케른이 놀랐다.

“그녀는 누구였소? 당신의 아내? 아니면 딸이었나요?”

늙은이는 수다스러웠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조카딸이지요, 그것도 친조카는 아니고. 사촌누이가 아이들 셋을 남기고 죽는 바람에 내가 키웠어요. 내 자식들만 해도 넷이나 되는 통에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 판인데. 하지만 어떡하겠수, 신사 양반? 울타리 아래 있는 고양이를 내쫓지는 않는 법이라우. 그렇게 살았지요. 한데 불행이 생겼지 뭐니까. 우리는 낡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벌써부터 거기서 우리를 나가라고 했지요. 하지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냥 버티고 살았지요.

그러다가... 다른 아이들은 부상한 채 빠져나왔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목이 잘리고 말았군요. 나하고 할미는 집에 없었어요, 군밤을 팔러 나갔었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마르타를 벌써 시체 안치소로 옮긴 뒤였다우. 왜 시체 안치소냐? 다른 아파트들에 살던 사람들도 함께 깔려 죽었는데, 개중에 어떤 이들은 혼자 살았어, 그래서 다 여기로 옮겼다는 거지요. 내가 도착해 보니, 집이 사라져 버렸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진이 난 것 같으니...”

‘음, 좋아, 딱 적당해.’

코른이 수다스러운 늙은이를 한 편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기왕 벌어진 일이야 어떡하겠소. 보다시피 난 의사이고, 시신이 필요하오. 까놓고 말하리다. 백 프랑을 받고 싶으면 집으로 그냥 돌아가요.”

“내장을 굶어내려고 그러우?”

늙은이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 아이는 어차피 죽은 몸이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남의 피가 아닌데...”

“이백 프랑.”

“정말 필요한 돈이우, 아이들이 배를 곯고 있으니... 하지만 그래도 가엾지... 좋은 처녀였는데, 아주 예쁘고 아주 착하고, 얼굴은 장미꽃 같고, 여기 잡동사니들하고는 다르지...”

늙은이가 탁자 위에 놓인 시신들을 향해 아무렇게나 손을 흔들었다.

‘이 늙은이 좀 보게! 물건 값을 올리려고 하는 모양일세.’

그런 생각이 들자 코른이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무심한 투로 말했다.

“내키는 대로 하시오. 여기에는 시신들이 적지 않고, 몇 구는 당신 조카딸보다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늙은이한테서 몇 발짝 물러섰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셔야...”

늙은이가 잼싸게 바투 다가서는데, 그 정도에서 흥정을 마치자는 투였다.

코른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상황이 또 바뀌었다.

“임자가 벌써 온 게유?”

노파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코른이 몸을 돌려 보니, 깨끗한 흰 두건을 쓰고 몸집이 통통한 노파가 종종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더니 늙은이가 자기도 모르게 짹짹 소리를 냈다.

“찾았수?”

노파가 거친 눈길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기도문을 중얼거리면서 물었다.

늙은이가 말없이 손가락으로 시신을 가리켰다.

“오오, 애야, 마르타, 불쌍한 것!”

노파가 머리 없는 시신 쪽으로 다가서면서 슬프게 목을 놓았다.

코른은 노파와 흥정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그래도 한 번 찢러나 보자는 속셈으로 예의를 갖추어 말을 걸었다.

“내 말 좀 들어 보세요, 부인. 지금 부인의 남편과 얘기를 나누고는 당신네가 아주 궁핍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핍하든 앓든 남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아요.”

노파가 제법 당당하게 말을 무질렀다.

“그렇지요, 하지만... 나는 자선장례협회의 회원입니다. 협회의 경비로 내가 조카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고 필요한 일들을 다 처리할 겁니다. 원한다면 나에게 말기고 부인은 아무 걱정 없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자녀들과 고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파가 남편에게 호통을 쳤다.

“당신, 여기서 무슨 소릴 지껄인 게유?”

그러고는 케른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말씀은 고맙수, 신사 양반. 그러나 남들처럼 나도 내 손으로 처리할 거유. 당신네 자선협회의 도움 없이도 어떡하든 수습할 거라고. 아, 뭐 그렇게 눈알만 굴리고 있는 거유?”

노파가 남편과 얘기할 때는 평소의 어조로 돌아갔다.

“얼른 시신을 거두어 떠나요. 내가 손수레를 가져왔어요.”

어찌나 단호하게 들리는지, 코른이 형식적으로 고개를 까닥이고 떠나야 했다.

‘분하군! 에이, 오늘은 정말 재수 없는 날이야.’

출구 쪽으로 가서 문지기를 한쪽으로 데리고 나와 나직하게 일렀다.

“이보우, 적당하다 싶은 게 나오면, 즉각 전화를 해요.”

“아, 나리, 여부가 있겠습니까.”

코른이 쥐어준 지폐 뭉치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문지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코른이 레스토랑에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브리케가 있는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근래에 흔한 질문으로 맞이했다.

“찾았어요?”

“찾긴 찾았는데 잘 안 됐어, 빌어먹을! 좀 더 참아요.”

그가 뚱하게 대꾸했지만 브리케가 물려서지 않았다.

“적당한 것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요?”

“오징어처럼 다리가 흰 여자들은 있었어. 원한다면 그거라도...”

“아이, 싫어요. 차라리 더 기다릴래요. 안짱다리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코른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다시 시체 안치소로 나가야 했다. 그러나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침대 곁에 놓인 전화기가 부르르 떨었다. 코른이 투덜대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말하세요. 네, 코른 교습니다. 뭐라구요? 역 부근에서 열차가 전복됐다고? 시체들이 널렸다고? 아, 물론, 당장 달려가지요. 고맙구려.”

서둘러 의복을 갖춰 입고는 존을 불러 소리쳤다.

“자동차!”

십오 분 뒤 그가 벌써 한밤중의 거리를 소방차처럼 달렸다.

시체 안치소 문지기의 말이 맞았다. 그날 밤 죽음은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 시체들이 쉴 새 없이 운반됐다. 탁자들이 다 차는 바람에 곧 시체들을 마룻바닥에 놓아야 했다. 코른이 속으로 환호했다. 재앙이 낮에 일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운명에 감사했다. 사고 소식은 아직 시내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시체 안치소에 외부인들은 아직 없었다.

코른이 아직 옷을 벗기지 않고 씻기지도 않은 시체들을 살펴보았다. 그건 다 아주 신선했다.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다. 단지 하나, 이 좋은 기회가 코른의 특별한 필요에 썩 걸맞지 않다는 점이 흠이었다. 시체 대부분이 으깨졌거나 여러 부위에 훼손이 심한 것이다. 그러나 시체들이 계속 도착했기 때문에 기대를 잃지 않았다.

“이 시신을 보여 주시오.”

젯빛 원피스 차림의 처녀 시체를 옮기는 일꾼에게 말을 걸었다.

두개골이 뒤통수 쪽에서 으깨졌다. 머리털과 원피스가 피범벅이지만, 원피스가 엉망으로 구겨지지 않는 않았다.

‘몸통이 심하게 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 괜찮아. 체격이 상당히 조잡하군, 필경 남의 하녀로 일했을 거야, 하지만 이런 몸뚱이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

“여기는 어땠소?”

케른이 다른 들것들을 가리켰다.

“아, 이거야말로 정말 흔치 않아! 보물이야! 빌어먹을, 아무리 그래도 이런 여인이 죽다니, 아깝군!”

젊은 여인의 시신이 바닥에 놓였다. 흔치 않게 아름다운 얼굴에 심한 경악이 얼어붙어 있었다. 오른편 귀 위쪽으로 두개골이 함몰됐다. 필경 죽음이 순식간에 닥쳤을 것이다. 하얀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렸다. 우아한 검은 비단 드레스가 아래쪽과 옷깃에서 어깨까지 조금 찢어졌을 뿐이다. 드러난 어깨 위에 반점이 보였다.

‘아까 그것과 같군. 하지만 이건... 참으로 예뻐!’

코른이 짹짹 목둘레를 찢다.

‘안성맞춤이야.’

코른이 굵은 진주들로 엮은 목걸이를 잡아채어 일꾼에게 주고는 말했다.

“이 시체를 가져가겠소. 여기서 시체들을 일일이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도 가져가지.” - 그가 처음 본 처녀의 시신을 가리켰다. “자, 빨리 움직입시다. 아마포로 둘러서 내가시오. 알아들었소? 사람들이 떼로 몰려올 거요. 시체 안치소 문을 열고 몇 분 뒤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들끓겠지.”

두 구의 시신이 자동차에 실려서 코른의 자택으로 금방 옮겨졌다.

수술에 필요한 준비는 진작 다 끝낸 상태였다. 브리케의 부활의 날이, 아니 엄밀히 말해 부활의 밤이 다가왔다. 코른이 일 분도 늦추기를 바라지 않았다.

시신 두 구가 말끔하게 씻긴 뒤 흰 천에 둘둘 말려서 브리케의 방으로 옮겨져 수술대 위에 놓였다.

브리케의 머리가 자신의 새로운 몸통을 보고 싶어 안달했지만, 코른은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머리한테 시체들이 보이지 않게끔 수술대를 옮겨 놓았다.

코른이 시체들에서 머리를 재빨리 잘라냈다. 잘라낸 머리들을 아마포에 싸서 존이 밖으로 내갔다. 절단 부위와 수술대가 깨끗이 닦이고 몸통들이 정돈됐다.

몸통들을 다시금 회의적으로 훑어보고서 코른이 우려하는 낯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깨에 반점이 있는 몸은 온전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간직한데다가, 하녀처럼 보인 몸과 비교하면 특히 더 뛰어났다. 굵직하고 단단한 골격에 어깨가 쳐지지 않았으며 기품이 엿보였다. 브리케야 두말 않고 이 예술적인 다이애나의 몸통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코른이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그가 다이애나라고 부른 시체에는 결함이 드러났다. 오른편 발바닥에 크지 않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쇧조각에 베인 모양이었다.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다. 코른이 상처 부위를 불로 지졌다. 혈액의 감염을 염려할 근거가 아직은 없었다. 그러나 그래도 ‘하녀’의 몸을 접합하는 것이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었다.

“브리케의 머리를 돌려놓으시오.”

코른이 로랑에게 지시했다. 수술 준비하는 동안 브리케가 수다를 떨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입이 닫혔다. 즉, 압축 공기가 든 용기의 밸브가 잠겼다.

코른이 턱짓으로 밸브를 가리켰다.

“이제 공기를 불어넣어도 좋아요.”

시신들을 보자마자 브리케의 머리가 불 맞은 노루처럼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공포에 질린 두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그 시신들 중 하나가 그녀의 몸이 될 판이었다. 이 수술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처음으로 통증이 날 만큼 아프게 느끼고는 주저하기 시작했다.

“그래, 어때요? 이 시체... 아니, 몸통이 마음에 드나?”

“난... 겁이 나요...” - 머리가 쇠쇠 소리를 냈다. “아아,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은 몰랐어... 내키지 않아...”

“내키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 시체에 톰의 머리를 접합하지. 톰이 여자가 되는 거야. 톰, 지금 몸통을 얻고 싶나?”

“아니야, 잠깐만이요.” - 브리케의 머리가 놀랐다. “좋아, 하겠어요. 저 몸통... 어깨에 반점이 있는 걸 갖고 싶어요.”

“이쪽 것이 더 좋을 텐데. 썩 예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상처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세탁부가 아니라 가수예요.” - 브리케의 머리가 뿔내듯이 지적했다. “아름다운 몸을 원해요. 어깨에 난 반점은... 그런 걸 남자들이 좋아하지요.”

“원하는 대로 해 주지.” - 코른이 대답했다. “마드무아젤 로랑, 마드무아젤 브리케의 머리를 수술대로 옮기시오. 조심해야 하오. 머리의 인공 혈액 순환이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면 안 돼.”

로랑이 브리케의 머리를 만져서 마지막으로 준비했다. 브리케의 얼굴에 극도의 긴장과 동요가 서렸다. 머리가 수술대로 옮겨지자 브리케가 더 견디지 못하고 여태껏 비명을 질러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싫어! 안 하겠어! 그만뒤요! 차라리 죽여 줘요! 무섭단 말이야! 아-아-아-아!..”

코른이 손놀림을 멈추지 않은 채 로랑에게 날카롭게 외쳤다.

“얼른 공기 밸브를 닫으시오! 영양 용액에 모르핀을 넣으시오. 그러면 잠이 들 거야.”

“아니, 아니야! 싫어!!”

벨브가 닫히고 머리가 침묵했다. 그러나 여전히 입술을 달싹이고 두려움과 애원의 빛을 띤 채 응시했다.

“교수님, 그녀의 의지에 반해서 수술을 진행해도 될까요?”

로랑의 물음에 코른이 통명스레 대꾸했다.

“지금은 한가하게 윤리 문제를 논할 시간이 없소. 그녀는 나중에 우리에게 감사하게 될 거요. 맡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방해하지 말고 나가시오.”

그러나 로랑은 자기가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도움이 없다면 수술 결과는 더욱 더 불안했다. 마음을 바꾸어 코른을 계속 도왔다. 브리케의 머리가 어찌나 별벌 떠는지, 혈관들에 연결된 관들이 거의 빠져나올 뻔했다. 존이 도움에 나서서 머리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다. 머리의 경련이 서서히 멈추고 두 눈이 감겼다. 모르핀이 작용한 것이다.

코른 교수가 수술에 착수했다.

이런저런 수술도구를 요구하는 코른의 짙막한 지시만이 간간이 적막을 깼다. 코른도 심하게 긴장한 탓에 이마에 핏줄이 불거졌다. 그는 기민함과 비상한 면밀함과 조심성을 동원하면서 눈부신 외과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코른에 대한 증오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로랑이 그 순간에는 그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신들린 아티스트처럼 손을 놀렸다. 그의 노련하고 예민한 손가락들이 기적을 이루었다.

수술은 한 시간 오십오 분 동안 계속됐다.

마침내 코른이 허리를 펴면서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브리케는 몸통에서 떨어진 머리가 아니야. 그녀에게 생기만 붙어넣으면 되는 거요. 즉, 심장이 뛰고 피가 돌게 하는 거지. 하지만 이 작업은 나 혼자서 하겠어. 당신은 쉬어도 좋아요, 마드무아젤 로랑.”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심신이 몹시 피곤했지만, 이 비범한 수술의 마지막 단계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코른은 소생의 비밀을 그녀에게 드러내기 원치 않는 것 같았다. 그가 다시 휴식을 취하라고 집요하게 권하는 바람에 로랑이 순순히 밖으로 나왔다.

한 시간이 지나 코른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그는 훨씬 더 지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깊이 배어 있었다.

“맥을 쥐어 봐요.”

로랑이 속으로 은근히 전율하면서 세 시간 전만 해도 차가운 시신이었던 브리케의 손목을 잡았다. 손에 벌써 온기가 돌고 맥박이 잡혔다. 코른이 브리케의 얼굴에 거울을 들이댔다. 거울 표면에 김이 서렸다.

“숨을 쉬는군. 이제 우리의 신생아를 포대기로 잘 감싸면 돼. 며칠 동안은 꼼짝도 않고 누워 있게 될 거요.”

브리케의 목에 감긴 붕대 위에 코른이 깁스를 둘렀다. 몸통이 다 천으로 싸이고 입이 꽁꽁 동였다. 코른이 설명했다.

“아예 말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거요. 며칠간 우리는 그녀를 수면 상태로 두는 거지, 심장이 용인한다면.”

브리케를 로랑의 옆방으로 옮겼다. 침대에 눕히고 뇌수에 전류를 흘려 마취시켰다.

“봉합이 유착될 때까지 우리는 그녀를 인공영양으로 유지할 거요. 당신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지.”

사흘째가 되어서야 코른은 브리케의 ‘의식이 돌아오도록’ 허용했다.

오후 네 시였다. 비스듬히 기운 태양 광선이 방안으로 들어와 브리케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다. 그녀가 눈썹을 가볍게 꿈틀거리더니 눈을 떴다. 아직 판단력이 흐릿한 가운데, 햇살 가득한 창문을 보고는 눈길을 로랑에게 돌렸다가 결국 아래로 내려뜨렸다. 거기엔 이미 뭔가가 있었다. 붓긋하게 솟아오른 젖가슴과 몸통이 보였다. 흰 천으로 덮인 몸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가냘픈 미소가 피었다.

“말하지 말고 조용히 누워 있어요.” - 로랑이 말했다. “수술이 아주 잘 됐고, 이제 모든 건 당신이 처신하기에 달렸어요. 안정을 충분히 취하면 더 빨리 두 다리로 일어설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표정으로 소통을 하지요. 만약 눈꺼풀을 내려뜨리면 ‘예스’,

올리면 '노'로 알아듣겠어요. 혹시 통증을 느끼는 데가 있나요? 여기, 목과 발에? 금방 사라질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나요? 뭘 좀 먹고 싶어요?”

브리케가 시장기를 느끼지는 않았지만 목이 말랐다.

로랑이 코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서재에서 즉각 달려왔다.

“그래, 새로 태어난 기분이 어때요?”

그녀를 살피고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다 잘 됐군. 조금만 더 참으면 춤도 추게 될 거요, 마드무아젤.”

그가 몇 가지 지시를 내리고 사라졌다.

‘부활’의 나날이 브리케에게는 아주 길게 지나갔다. 그녀는 모범적인 환자였다. 성급함을 꼭 누르고 차분하게 누워서 지시대로 잘 따랐다. 마침내 온몸을 두르고 있던 천을 벗기는 날이 됐다. 아직 말은 하지 못하게 했다.

“몸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나?”

코른이 약간 흥분된 기색으로 물었다.

브리케가 눈꺼풀을 내려뜨렸다.

“발가락들을 아주 조심해서 움직여 봐요.”

얼굴빛으로 보아 브리케가 시도한 것 같았다. 그러나 발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신경중추의 기능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모양이군.”

코른이 위엄을 지피며 말했다.

“그러나 곧 복구될 거야, 그러면 움직임도 함께 살아날 게고.”

그러고는 혼자 생각했다.

‘브리케가 다리를 절게 되지는 않을까.’

로랑은 수술대 위에 있던 차가운 시신을 떠올리면서 생각했다.

‘이런 단어가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아마 복구될 거야.’

브리케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 이제 몇 시간이고 발가락들을 움직이는 일에 몰두했다. 그런 노력을 로랑이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다가 어느 날 로랑이 환성을 질렀다.

“움직여! 왼발 엄지발가락이 움직여요.”

그 뒤로 일은 더 빨리 진행됐다. 다른 발가락들과 손가락들도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곧 브리케는 손과 발을 조금 들어 올릴 수 있게 됐다.

로랑이 깜짝 놀랐다.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진 것이다.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코른은 비범한 사람이야. 사실 도웰의 머리가 없었다면 코른이 죽은 사람의 이중 소생에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그는 재능 있는 사람이야. 그 점을 이미 도웰의 머리가 확인하지 않았던가. 아아, 코른이 도웰 교수도 다시 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다시 며칠이 지나서 브리케는 말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녀에게서 다소 음색이 상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듣기 좋은 목소리가 나왔다.

코른이 단언했다.

“나아질 거야. 노래도 부르게 될 거야.”

브리케가 곧 노래를 불러 보았다. 그 노랫소리에 로랑이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브리케의 고음들은 상당히 뽁뽁거려서 듣기에 썩 좋지 않고, 중간 음역에서는 목소리가 쉼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아주 둔탁하게 울렸는데, 그 대신 저음부의 목소리는 매혹적이었다. 그건 아주 뛰어난 가슴에서 울리는 콘트라alto였던 것이다.

로랑이 생각에 잠겼다.

‘성대는 절단 부위 위에 있고 브리케의 것이 아니던가. 한데 이 이중의 목소리며 위아래 음역의 서로 다른 음색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사의야. 새 몸통보다 더 나이가 많은 브리케의 머리가 젊어지기 때문인가? 아니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깨진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 걸까?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야... 이 젊고 우아한 몸통의 주인은 누굴까? 어떤 불행한 머리에 달려 있던 것일까...’

로랑이 브리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차 전복 사고로 죽은 이들의 명단이 실린 신문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곧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유명한 이탈리아 가수 안젤리카가 사고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신문기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로랑은 브리케의 머리에 접합한 몸통이 죽은 오페라가수의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11. 달아난 전시품

마침내 브리케의 삶에서 위대한 날이 도래했다. 마지막 깁스붕대들을 제거한 뒤 코른 교수가 그녀에게 일어나 보라고 했다.

그녀가 일어나서 로랑의 손에 의지하여 방안에서 걸었다. 동작이 확실치 않고 다소 위태로웠다. 가끔 그녀는 손으로 이상한 제스처를 썼다. 즉, 손이 어느 범위까지는 고르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는 멈칫하는 것이었다. 마치 다시 고르게 움직이기 위한 강요된 동작처럼.

그걸 보면서 코른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다 괜찮아질 거야.”

그는 브리케의 발바닥에 난 크지 않은 상처에 다소 안도했다.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브리케가 아픈 발로 짚을 때조차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물었다. 며칠 지나서 브리케는 벌써 춤을 추려고 들었다.

그러다가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떤 움직임들은 마음대로 되는데, 또 어떤 것들은 어려워요. 아마도 새 몸뚱이를 내가 아직 잘 통제하지 못하나 봐... 그래도 이 몸통은 아주 훌륭해! 이 다리를 보세요, 마드무아젤 로랑. 키도 늘씬하잖아요. 단지 목에 이 수술 자국이... 가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대신 어깨에 있는 이 반점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점이 보이도록 드레스를 해 입을래요... 아, 내 몸뚱이에 아주 만족해요.”

브리케의 수다를 들으면서 로랑이 생각했다.
'자기 몸이라니! 아아, 안젤리카가 가없어라!'



브리케가 그렇게나 오랫동안 내면에 묶어두었던 것이 모두 단번에 걸으로 터졌다. 그녀는 로랑에게 드레스와 외투, 구두, 모자, 패션잡지, 화장품 따위를 요구하고 주문하고 부탁했다.

젯빛 비단 원피스를 새로 지어 입히고서 코른이 그녀를 도웰 교수의 머리에게 소개했다. 남성의 머리가 눈앞에 나오자 브리케가 이전 습관대로 교태를 부렸다. 그리고 도웰의 머리가 쉰 소리로,

“아주 좋소! 당신은 과제를 탁월하게 수행했구려, 동료. 축하하오!”

하고 말하자 아주 좋아했다.

코른이 브리케와 팔짱을 끼고 새 신랑처럼 얼굴이 환해져서 방을 나갔다.

서재에 들어서자 코른이 정중한 기사처럼 예의 갖추어 말했다.

“편히 앉으시지요, 마드무아젤.”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녀가 난처한 듯이 눈을 내리깔다가 코른을 애교 있게 응시하면서 말했다.

“나한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한데 나는 보답할 게 없네요.”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더 많이 보답을 받았으니까.”

브리케가 코른에게 더 반짝이는 눈길을 던졌다.

“아주 기빠요. 이제 내가 떠나도록...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나가도록 해주세요.”

“나가다니? 어떤 진료소에서?”

코른이 얼핏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집으로 가야지요. 내가 나타나면 친구들한테 엄청난 센세이션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코른이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가 떠나려고 한다!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가장 복잡한 과제를 완성했고 아예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데... 그건 브리케가 자기의 경박한 친구들한테 센세이션이나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브리케를 학술대회에서 공개함으로써 나 자신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려 한 것이지. 나중에야 그녀에게 자유를 좀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절대로!’

“안됐지만 당신을 내보낼 수 없소, 마드무아젤 브리케. 당신은 한동안 내 집에서 나의 관찰을 받으며 지내야 해요.”

“도대체 왜 그래야지요? 난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녀가 손을 들어 흔들면서 반박했다.

“그래요, 하지만 악화될 수 있소.”

“그때 다시 오면 되잖아요.”

“당신이 언제 여기서 떠날 수 있는지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소. 내가 없었다면 당신 꼴이 어땠을지 잊지 마시오.”

코른의 말투가 날카롭게 바뀌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벌써 감사를 표한 걸요. 그리고 난 어린 계집애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한 성질 하는군.’

케른이 내심 놀라서 말을 잘랐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은 당신 방으로 돌아가요. 존이 벌써 수프를 대령했을 거요.”

브리케가 입술을 빼물고 일어나더니 코른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다.

브리케가 로랑의 방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녀가 들어설 때 로랑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브리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오른손으로 아무렇게나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게 아주 우아하게 보였다. 그런 제스처를 로랑이 벌써 여러 번 보면서, 그 제스처가 누구한테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하곤 했다. 안젤리카일까 아니면 브리케의 몸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나 안젤리카의 몸에 굳어진 운동신경이 과연 남아 있을 수는 없었던 말일까?

그런 질문은 로랑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 문제는 생리학자들이 연구할 거야.’ 하고 생각했다.

“또 수프네! 이 진료소의 음식은 진저리가 나요. 신선한 꿀을 먹고 샤블리(*Chablis, 프랑스의 전통 백포도주)를 마시면 좋겠는데.”

브리케가 변덕스럽게 말했다. 접시에 있는 맑은 수프를 몇 모금 삼키고 또 입을 놀렸다.

“코른 교수가 금방 한 말인데, 앞으로도 며칠 동안 나를 집으로 보내지 않을 거라네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나는 새장에 갇힌 새도 아닌데. 여기는 따분해 죽겠어요. 이건 아니야, 난 환한 불빛과 음악과 꽃다발, 샴페인 같은 게 다 어우러져서 흥청대는 삶을 좋아해요.”

그렇게 쉴 새 없이 지껄이면서 후닥닥 배를 채우고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창가로 다가가서 아래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말했다.

“잘 자요, 마드무아젤 로랑. 오늘은 일찍 누울래요. 내일 아침에 나를 깨우지 말아요. 이 집에서는 시간을 때우려면 잠자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러고는 고개를 까닥이고 자기 방으로 갔다.

로랑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려고 자리에 앉았다.

편지는 다 코른의 통제를 받았다. 그가 얼마나 심하게 감시하는지 로랑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편지를 보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설령 코른 몰래 편지를 보낼 수 있다 해도 강제로 구금돼 있다는 사실은 쓰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날 밤 로랑이 유독 잠을 설쳤다. 앞날을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오랫동안 뒤척였다. 그녀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 그녀가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코른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보아하니 브리케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창문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새 드레스를 입어 보나?' 하고 로랑이 생각했다. 그러더니 잠잠해졌다. 잠결에 어디선가 가느다란 비명소리가 들린 듯하여 잠을 깬다.

'하지만 내 신경은 끄떡없을 거야.' 생각하고 다시 새벽잠에 깊이 빠졌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일곱 시에 눈을 떴다. 브리케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로랑은 그녀를 건드리지 않기로 하고 톰의 머리가 있는 방으로 갔다. 머리는 이전처럼 음울한 모습이었다. 코른이 브리케의 머리에 '몸통을 이식한' 뒤 톰은 한층 더 우울해졌다. 그는 자기한테도 새 몸통을 빨리 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요구하다가 결국엔 거친 욕설까지 퍼부었다. 그를 달래느라고 로랑이 꽤나 애를 먹었다. 머리의 아침 치장을 끝내고서 로랑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도웰의 머리가 있는 방으로 갔다. 도웰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삶이란 정말 이상한 물건이요! 불과 얼마 전에 난 죽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나 나의 뇌는 여전히 작동하고, 그저깼가는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 생각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의학계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텐데. 그걸 코른에게 알렸더니, 오오, 그의 두 눈이 어떻게 불타오르는지 아가씨가 봐야 하는데. 그의 눈앞에서는 동시대인들이 감사하여 세운 자신의 동상이 어른거렸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아이디어를 위해, 곧 나를 위해 살아야 하오. 사실 이건 무슨 멍에 같은 게지요."

"어떤 아이디어인데요?"

"내 뇌에서 윤곽이 더 뚜렷하게 잡히면... 그때 들려주리다..."

아홉 시에 로랑이 브리케의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려고 했지만 꿈쩍도 안했다. 안에서 잠겨 있었다. 코른 교수에게 즉각 알리는 것 외에는 달리 두수가 없었다.

코른이 늘 그렇듯이 민첩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

"문을 부숴라!"

지시를 받은 흑인이 어깨를 부딪쳤다. 묵직한 문이 바지직 소리를 내면서 경첩에서 툭 떨어졌다. 케른과 로랑, 존이 방으로 들어섰다.

브리케의 구겨진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코른이 창문으로 달려갔다. 창틀 손잡이 밑으로 옷깃 조각들과 수건 두 장을 이은 노끈이 늘어져 있었다. 창 아래 화단에 발자국이 어지러웠다.

코른이 로랑에게 험상궂은 얼굴을 들이대면서 고함을 쳤다.

“이건 당신 짓이야!”

“신에게 맹세하건대, 마드무아젤 브리케의 탈주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로랑이 툭 부러지게 대응했다.

“좋아, 당신하고는 따로 얘기하지.”

로랑의 단호한 대답을 듣고 브리케가 단독으로 탈주를 감행했다는 것을 금방 느꼈음에도 코른은 여운을 남겼다.

“지금은 도망자를 체포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니까.”

코른이 서재로 돌아와서 불안감을 억누르며 벽난로와 책상 사이를 바장였다. 먼저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다. 그러나 금방 지웠다. 이 일에 경찰이 개입하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개인 탐정 사무소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었다.

‘빌어먹을, 내 잘못이야... 감시를 붙여야 했는데! 그러나 어제까지만 해도 시체였던 것이 달아나리라고 누가 생각했을 텐가!’ - 케른이 고약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 여자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사방에 나발 불고 다닐 텐데... 자신의 등장이 일으키는 센세이션 어쩌고 떠들지 않았던가... 신문기자들이 사건을 냄새 맡으면... 그녀를 도웰의 머리통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 일을 꼬이게 만드는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코른이 전화로 탐정사무소의 에이전트를 불러서 거금의 비용을 주며 수색을 의뢰했다. 찾아내는 경우에 더 많이 사례하겠다고 약속하고, 사라진 여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알렸다.

사설탐정이 탈주 장소에서 정원의 철제 담장까지 이어진 흔적들을 둘러보았다. 담장은 키가 높고 꼭대기가 뾰족뾰족했다. 탐정이 고개를 저었다. ‘용케 빠져나갔군!’

뾰족한 철창 하나에 잿빛 비단 조각이 걸려 있었다. 그걸 떼어내 주머니에 조심스레 집어넣었다.

“달아날 때 이 드레스를 입고 있었군요. 잿빛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찾을 겁니다.”

‘잿빛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늦어도 하루 밤낮 안에는 찾아내겠다고 코른에게 다짐하고서 탐정이 떠났다.

탐정은 자기 일에서는 노련한 사람이었다. 브리케가 마지막으로 살던 아파트의 주소와 그녀의 이전 여자 친구 몇몇의 주소를 알아내고 그들과 안면을 트고, 한 여자 친구에게서 브리케의 사진을 발견하고 브리케가 어떤 카바레들의 무대에 섰는지 알아냈다. 도망자를 찾기 위해 다른 탐정 몇 명이 여러 장소에 파견됐다.

“새가 멀리 날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탐정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실수했다. 이들이 흘렸지만 브리케의 행적은 묘연하기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몽마르트에 있는 한 선술집의 단골이 사흘 전 한밤중에 ‘소생한’ 브리케가 거기 왔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코른이 한층 더 걱정에 빠졌다. 이제는 브리케가 그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귀중한 ‘전시품’을 아주 잃어버릴까봐 겁이 났다. 사실 그는 톰의 머리로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엄청난 수고가 따라야 했다. 게다가 새 실험이 훌륭하게 끝난다는 보장도 없었다. 소생시킨 개를 공표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아니야,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브리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해. 그는 ‘달아난 전시품’의 수색에 건 사례금을 두 배로, 세 배로 늘렸다.

탐정들이 날마다 수색 결과를 보고해 왔지만, 신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브리케가 땅 속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다. 행방이 묘연했다.

12. 끝까지 부른 노래

숨씨 좋고 유연하고 힘이 있는 새 몸통의 도움으로 담장을 뛰어넘어 거리로 나온 뒤 브리케는 택시를 잡아서 이상한 주소를 땀다.

“페르-라세즈(Père-Lachaise) 공원묘지로 가세요.”

그러나 공원묘지에 이르기 전에 택시를 바꿔 타고는 몽마르트로 향했다. 탈출하기 전에 로랑의 지갑을 빼냈는데, 거기엔 몇 십 프랑이 들어 있었다.

‘이 정도는 아주 큰 죄가 아닐 거야. 게다가 나한테는 불가피하잖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자신을 달랬다. 저지른 범죄에 대한 참회는 오랜 기간 연기됐다.

그녀는 다시 온전하고 살아 있고 건강한 사람임을 느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젊어지기까지 했다. 수술하기 전에 그녀의 여성적 계산으로 그녀는 나이 서른쯤 됐다. 새 몸뚱이는 갓 스물을 넘긴 정도였다. 이 신체의 분비선들이 브리케의 머리를 젊어지게 했다. 즉, 얼굴의 주름들이 사라지고 얼굴색도 더 좋아졌다.

‘이제 재미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갑에 들어 있던 작은 손거울을 몽상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여기 세워 주세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린 뒤에는 걸어서 갔다.

새벽 세 시쯤이었다. 늘 다니던 카바레 ‘샤누와(*Chat Noir, 검은 고양이)’를 찾아갔다. 날아든 총탄이 그녀가 부르던 명랑한 샹송을 채 끝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숙명의 밤에 그녀는 이 카바레의 무대에 서 있었다. 카바레의 창문들에서는 아직 선명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별다른 동요도 없이 눈에 익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피곤에 빠진 문지기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가 측면에 난 문으로 재빨리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쳐 무대에 붙어 있는 출연자 대기실로 들어섰다. 그녀와 먼저 마주친 사람은 빨강머리

마르타였다. 마르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탈의실로 숨었다. 브리케가 웃으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빨강머리 마르타는 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오오, 라스토츠키(*제비. 여성에 대한 애칭)!”

그녀는 상표에 제비가 그려 있는 코냑을 하도 좋아하는 바람에 카바레에서 그런 애칭으로 널리 불렸다.

“아직 살아 있는 거야? 우리는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브리케가 몸을 돌리니 아주 잘 생기고 우아하게 차려입고 퍼런빛이 날 만큼 면도를 한 남자가 보였다. 그렇게 창백한 얼굴은 햇빛을 잘 안 보는 사람들한테서 보이기 마련이다. 그는 빨강머리 마르타의 남편인 장이었다. 그는 자기 직업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과 술 동료들은 그의 생활 수단에 대해 묻기를 꺼렸다. 임기응변에 능한 장에게 자주 돈이 들어오고 그가 '젊은이들의 리더'라는 것으로 충분했다.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와인이 강물처럼 흐르는 밤마다 장이 활수 좋게 다 계산했다.

“어디서 날아온 거야, 제비?”

“병원에서.”

브리케는 몸통 주인의 일가나 친구들이 새 몸뚱이를 빼앗아갈까 겁이 나서 그 기적 같은 수술에 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른 말을 꾸며냈다.

“내 상태는 아주 심각했었어. 다들 내가 죽었다고 판정하고 시체 안치소로 보내기까지 한 거야. 그러나 거기서 시신을 검사하는 한 대학생이 내 손목을 잡고 희미한 맥박을 감지했지. 난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거야. 총탄이 심장을 건드리지 않고 살짝 비껴 나갔어. 나는 즉각 병원으로 옮겨지고, 다행히 다 잘 됐지.”

“아주 좋아! 친구들이 다 놀라 자빠질 거야. 너의 부활을 축하해야지.”
장이 외쳤다.

탈의실 문의 자물쇠가 딸각거렸다. 빨강머리 마르타가 문 뒤에서 대화를 듣다가 브리케가 유령이 아님을 확신하고 문을 열었다. 두 친구가 포옹하고 힘차게 키스를 나눴다.

“제비야, 넌 더 마르고 키가 커지고 우아해진 것 같아.”

전혀 예기치 않게 나타난 친구의 자태를 호기심과 약간의 놀람을 가지고 살피면서 빨강머리 마르타가 말했다.

그 호기심 어린 눈길에 브리케가 약간 당황했다.

“살이 좀 빠진 게 당연하지. 멀건 수프만 먹이니 그렇지 않겠어? 키는 어떠냐고? 뒤축이 아주 높은 구두를 신었지. 원피스 모양은...”

“근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온 거야?”

“아, 사연이 한참 길어... 넌 벌써 출연을 마쳤니?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할래?”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큰 거울이 달린 화장대 곁에 앉았다.

장이 이집트 권련을 피우면서 곁에 앉았다.

브리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병원에서 도망 나온 거야, 공식적으로는.”

“왜?”

“부용(bouillon)이 지긋지긋했어. 허구한 날 멀건 수프만 나오니... 너도 이해하겠지? 멀건 수프에 사래가 들릴까봐 겁이 날 정도였어. 근데 의사는 날 내보내려 하지 않는 거야. 나를 의대생들에게 보여야 한다나 어쨌다나. 경찰에서 나를 찾을까봐 무서워... 내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네 신세를 좀 져야 할까봐. 며칠이라도 파리에서 아주 떠나면 가장 좋고... 하지만 돈이 별로 없어.”

빨강머리 마르타가 손뼉까지 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만큼 흥미로웠던 것이다.

“물론 우리 집에 있어도 돼.”

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생각에 잠겨 거들었다.

“나도 경찰이 수배할까봐 걱정된다. 나 역시 며칠 동안 지평선에서 사라져 있어야 돼.”

라스토츠카는 친구였고, 장은 그녀한테 자기 직업을 숨기지 않았다. 라스토츠카는 장이 '큰 비행'을 하는 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전문은 금고털이었다.

"제비야, 우리 함께 남쪽으로 날아가자. 너하고 나, 마르타 셋이서. 리비에라에서 바닷바람을 좀 들이키는 거야. 난 오래 웅크리고 있었어, 바람을 쐬어야 돼. 두 달 넘게 태양을 못 보니 이젠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하다면, 믿겠어?"

"아주 좋아."

빨강머리 마르타가 손뼉을 쳤다.

장이 값비싼 팔찌 시계를 들여다봤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젠장, 넌 우리에게 노래를 마저 들려주어야 해... 그리고 날아가는 거지. 그 의사든 경찰이든 너를 찾으려면 찾아보라고 해."

장의 제의를 브리케가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의 등장은 그녀가 예기한 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장이 사회자로서 무대에 나가 몇 달 전 여기서 브리케에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상기시키고는, 마드무아젤 브리케가 자기가, 장이 그녀 목구멍에 '제비' 코약을 한 잔 부은 뒤에 대중의 갈망을 좇아서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라스토츠카! 라스토츠카!"

홀 안에 있던 술꾼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손짓을 하여 함성이 가라앉자 장이 말을 이었다.

"라스토츠카가 뜻하지 않게 끊긴 대목부터 상송을 다시 부를 겁니다. 악단, <검은 고양이>를 준비해 줘요!"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고, 요란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브리케가 지난번에 잘린 노래를 마지막까지 다 불렀다. 사실 함성이 어찌나 큰지 그녀가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했고, 자기를 사람들이 잊지 않고 따스하게 맞아주었다는 점에 감격했다. 사실 그 따스함이 술기운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그녀에겐 상관이 없었다.

노래를 마치고 그녀가 뜻밖에도 오른손으로 우아한 제스처를 취했다. 예전에는 못 보던 것이었다. 홀에서 한층 더 큰 박수갈채가 터졌다.

‘저런 우아한 제스처가 어디서 났지? 정말 아름다운 자세야. 저 제스처를 배워야 돼...’ 빨강머리 마르타가 생각에 잠겼다.

브리케가 무대에서 홀로 내려왔다. 여자 친구들이 입을 맞추고 잔들을 높이 들어 부딪쳤다. 브리케의 두 뺨이 발그레 물들고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성공과 와인이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그녀는 추적의 위험도 잊은 채 여기서 밤새 앉아 있을 태세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보다 덜 마신 장이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

그가 째름이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브리케에게 다가가서 손을 건드렸다.

“때가 됐어!”

“하지만 난 싫어. 너희들끼리 가도 돼.”

브리케가 몽롱한 눈빛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장이 두 말 않고 그녀를 일으켜서 출구로 데려갔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과 아쉬움이 피어났다.

“공연은 끝났어! 다음 부활 때까지 안녕!”

문가에서 잠시 발을 멈춘 장이 홀을 향해 소리쳤다.

그가 비틀거리는 브리케를 거리로 데려나와 자동차에 태웠다. 곧 마르타도 크지 않은 여행 가방을 들고 왔다.

“공화국 광장으로 갑시다.”

장이 종착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중간 지점을 운전수에게 말했다. 그는 자동차를 갈아타고 다니는 데 익숙했다.

13. 수수께끼 여인

지중해의 파도가 넘실거리며 백사장으로 몰려들었다. 가벼운 해풍에 흰색 요트들과 어선들의 돛이 저마다 살짝살짝 흔들렸다. 머리 위 질푸른 창공에서는 니스와 망통을 오가며 흥겨운 레이스를 펼치는 수상비행기들이 보기 좋게 흔들렸다. (*망통/Menton - 니스에서 북동쪽으로 30 킬로미터에 위치한 프랑스 휴양지이자 항구.)

흰색 테니스 복 차림의 젊은이가 대나무로 엮은 안락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의자 곁에는 테니스 라켓과 영국의 과학 저널 몇 부가 든 가방이 놓였다. 그 젊은이 옆, 커다란 흰색 파라솔 밑에 놓인 캔버스 앞에서는 그의 친구인 아르망이 부지런히 붓을 놀렸다.

고인이 된 도웰 교수의 아들, 아르투아 도웰과 아르망은 막역지우였다. 이 우정은 극단은 통한다는 속담의 정당성을 그 무엇보다도 잘 입증했다.

아르투아 도웰은 말수가 적은 편에다 냉철한 타입이었다. 정돈을 좋아하고 끈기 있게 체계적으로 작업할 줄 알았다. 졸업을 한 해 남기고 벌써 대학에서 생물학 학부에 자리를 받았다.

아르망은 진짜 남부 프랑스인답게 늘 어수선하며 뭔가에 쉽게 빠지는 기질이었다. 한두 주일은 붓과 물감을 내팽개치다가 또 다시 작업에 들어서면, 그때는 그 어떤 힘도 그를 화가(畫架)에서 떼어놓지 못했다.

한 가지 점에서만 두 친구는 서로 비슷했다. 즉, 둘 다 재능이 있고 한 번 설정한 목표를 비록 목표에 이르는 길은 다르지만 달성할 줄 알았다. 한 사람은 차근차근 밟아서 나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사이를 두었다가 성큼성큼 도약했다.

아르투아 도웰의 생물학 연구는 중진 학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에게는 학계에서 눈부신 성장이 보장돼 있었다. 아르망의 그림들은 여러 전시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개중 몇 점은 몇몇 나라의 유명한 갤러리들에 벌써 팔렸다.

아르투아 도웰이 신문을 모래바닥에 내던지고는 안락의자 등받이에 고개를 기울인 채 눈을 감고 말했다.

“안젤리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

아르망이 한없는 비탄에 잠겨 고개를 흔들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건가?”

그 물음에 아르망이 자기 쪽으로 팩 몸을 돌리는 걸 보고 아르투아가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었다. 아르망은 이미 열렬한 화가가 아니라 왼손에 팔레트 방패와 팔 받침창을 들고 오른손은 붓 칼로 무장한 기사였다. 자신에게 치명적인 모욕을 가한 자를 무찌를 준비가 된 기사처럼 보였다.

그가 무기를 흔들면서 소리쳤다.

“안젤리카를 잊다니! 그런 여인을 어떻게 잊을 수가...”

스르르 소리를 내며 갑자기 몰려든 파도가 그의 무릎까지 덮었고, 그가 우수에 찬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안젤리카를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노래들이 사라진 뒤로 세상은 더 따분해졌어...”

안젤리카의 죽음을,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아르망은 <런던의 안개 심포니>를 그리기 위해 갔던 런던에서 처음 접했다. 그는 안젤리카라는 가수의 재능에 심취한 팬일 뿐 아니라 또한 그녀의 친구요 흑기사이기도 했다. 그가 남부 프로방스에서, 중세 성들의 잔해 속에서 태어난 것이 그의 기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안젤리카에게 생긴 불행을 알고서 그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창작의 최고 절정에서 난생 처음 ‘그림의 폭음’을 그만두었다.

캠브리지에서 런던으로 온 아르투아가 친구의 기분을 돌리려고 함께 지중해 해안으로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르망은 제 자리를 찾지 못했다. 백사장에서 호텔로 돌아와 그는 옷을 갈아입은 뒤 기차에 몸을 싣고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으로, 몬테카를로 도박장으로 향했다. 머릿속을 다 비우고 싶었다.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육중한 건물 주변에는 벌써 사람들이 들끓었다. 아르망이 첫 번째 홀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여기서 한 판 노시지요, 손님!”

돈을 긁어모으는 데 쓰는 작은 부삽을 흔들면서 지배인이 손님들을 불러들였다.

아르망이 발을 멈추지 않고 다음 홀로 갔다. 벽마다 수렵과 질주, 펜싱을 하는 반라의 여자들을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건 다 한마디로 도박 심리를 충동하는 것이었다. 그 그림들에서는 치열한 싸움과 흥분과 탐욕이 긴장감 있게 배어 나왔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도박판 주변에 모인, 살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더 많이, 더 날카롭게 그려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뚱뚱한 상인이 붉은 솜털이 덮이고 통통한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돈을 끌어당겼다. 천식 환자처럼 힘겹게 숨을 쉬었다. 그의 두 눈이 돌아가는 구슬을 긴장하여 지켜본다. 뚱보는 벌써 거액을 잃고 지금은 복구하려는 기대로 마지막 돈을 거는 것이리라. 아르망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 만약 마지막 판돈마저 날린다면, 살이 찌서 흐느적거리는 이 사람은 자살자들의 거리로 가서, 거기서 인생과 마지막 정산을 할지도 모르지...

뚱보 뒤에는 옷차림이 궤죄죄한 노인이 백발을 흘뜨린 채 핏줄이 불거진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다. 손에는 수첩과 연필을 들고 이기는 숫자들을 적으면서 뭔가 계산을 하는데... 그는 벌써 오래 전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룰렛의 노예가 되었다. 카지노 측에서 그에게 매달 많지 않은 용돈을 쥐어줄 것이다. 생활도 하고 도박도 하라고. 그건 일종의 광고였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확률 이론’을 세우고, 행운의 여신의 변덕이 어디까지인지 연구하고 있다. 자신의 추측이 틀릴 때면 화가 나서 연필로 수첩을 콕콕 찌고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다시금 계산에 빠진다. 짐작이 맞아 떨어지면 얼굴이 환해져서 고개를 옆 사람들에게 돌린다, “봐요, 드디어 나는 경우의 법칙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어.” 하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종업원 둘이서 검은 비단 드레스 차림의 노부인을 부축하여 안락의자에 앉힌다. 주름이 많은 목에 보석 목걸이가 걸려 있다. 노부인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해질 수 없을 정도로 창백했다. 비탄과 환희를 갈라놓는 비밀스러운 구슬을 보자 노부인의 움푹

들어간 두 눈에서 탐욕의 불꽃이 타오르고 반지를 줄줄이 낀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떨기 시작한다.

젊고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이 우아한 암녹색 의상을 입고 테이블 곁을 지나치다가 천 프랑 티켓을 아무렇게나 내던지고는 잃은 것을 확인한 뒤 태평하게 냉소를 짓고 다음 방으로 간다.

아르망이 레드에 백 프랑을 걸어 이겼다.

‘난 오늘 이겨야 돼.’

그렇게 마음먹으면서 천 프랑을 걸었지만 잃고 말았다. 그러나 결국엔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도박 욕구에 사로잡혔다.

룰렛 테이블로 세 명이 다가왔다. 남자는 키가 크고 몸매가 좋고 아주 얼굴이 창백하고, 두 여자 중 하나는 빨강머리, 다른 하나는 잿빛 원피스 차림... 아르망이 마지막 여자를 흘깃 쳐다봤다. 뭔가 불안감이 느껴졌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지 알지 못하면서 화가는 잿빛 옷차림의 여성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그녀가 취한 오른손 제스처 하나에 깜짝 놀랐다.

‘뭔가 눈에 익어! 아, 그래, 안젤리카가 저런 제스처를 취하곤 했어!’

그런 생각에 어찌나 놀랐던지 그는 더 이상 룰렛에 낄 수도 없었다. 미지의 세 인물이 웃으면서 테이블을 떠나자, 아르망이 땀 돈을 테이블에서 거두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들 뒤를 따라 나갔다.

새벽 네 시, 아르투아 도웰의 객실 문을 마구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도웰이 화를 내며 실내복을 걸치고는 문을 열었다.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선 사람은 아르망이었다. 그가 피곤에 지쳐서 안락의자에 털썩 몸을 던지고는 말했다.

“미칠 것만 같네.”

“무슨 일이야, 친구?”

도웰이 놀라서 물었다.

“뭐냐면... 자네한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어제부터 새벽 두 시까지 카지노에 있었네. 처음엔 따다가 돈이 나갔지. 그런데 문득 어떤 여인을 본 거야. 그녀의 제스처 하나에 얼마나 놀랐든지 게임을 그만두고 그 뒤를 따라 레스토랑으로 갔어. 탁자에 자리 잡고 진한 블랙커피를 한 잔 시켰지. 신경이 너무 예민해질 때 커피를 마시면 난 늘 좀 안정이 되거든...”

그 모르는 여인은 옆 탁자에 앉아 있었네. 그녀 일행으로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옷을 근사하게 차려입었지만 썩 신뢰가 가는 타입은 아니고, 여자는 빨강머리인데 아주 천박해 보여. 그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즐겁게 수다를 떨었지. 잿빛 드레스 차림의 여인이 샹송을 부르기 시작했어. 들어 보니 목소리가 아주 불쾌한 음색에다 뻑뻑거리는 거야. 그러나 문득 그녀가 다소 낮은 저음을 가슴에서 내자...”

아르망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르투아! 그건 바로 안젤리카의 목소리였단 말이네. 수천 개의 목소리 중에서도 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

‘가연은 친구! 이렇게까지 망가지다니.’

도웰이 그런 생각 끝에 아르망의 어깨에 손을 부드럽게 얹고 말했다.

“그건 자네한테 그렇게 들린 것이야, 아르망. 정신 차리게. 어찌다가 비슷한 목소리를 들은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정말이네.” - 아르망이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노래하는 여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네. 프로필이 또렷하고 사랑스러운 두 눈 하며 상당히 예뻐. 그러나 몸매가, 몸이 말이야! 아르투아, 만약 그 여자의 몸매가 안젤리카와 물방울 두 개처럼 닮지 않았다면, 난 악마한테 물려가도 좋아.”

“그래, 그렇다 치고, 아르망, 브롬을 좀 마시게.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자리에 눕게나. 내일, 아니 벌써 오늘이지, 자네가 눈을 뜰 때면...”

아르망이 비난하는 눈길로 도웰을 응시했다.

“자네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나?.. 아직 그렇게 단정 짓지 말게나.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아직 다 말하지 않았네. 그 여자가 노래를 부를 때 바로 이런 제스처를 손으로 취했어. 이건 안젤리카가 즐겨 취하는 제스처야, 이건 그녀한테 독특한,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제스처란 말일세.”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그 낯선 여자가 안젤리카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칠지도 몰라...” - 아르망이 이마를 훔쳤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보게. 그 여자의 목에 정교한 목걸이가 걸려 있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목걸이도 아니야, 작은 진주가 박히고 넓이가 사 센티미터쯤 되는 고정 칼라야. 한데 가슴은 깊이 파여서, 그 사이로 어깨의 작은 반점이 보이는데, 그건 바로 안젤리카의 반점이란 말이야.

목걸이는 마치 봉대처럼 보인다네. 목걸이 위로는 내가 모르는 여인의 머리통이, 아래로는 나에게 친숙하고, 그 선이며 형태 하나하나 내가 연구한 안젤리카의 몸이 있다는 것일세. 내가 화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아르투아. 나는 인체의 독특한 선들과 개인적 특성을 잘 기억한다네... 안젤리카를 모델로 스케치와 습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그렸나, 초상화를 얼마나 많이 그렸나, 그러니 실수란 있을 수 없네.”

“아니야, 자네가 말하는 건 불가능해!” - 도웰이 외쳤다. “안젤리카는 정말이지...”

“죽었다고? 정말 죽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하네. 그녀는, 혹은 그녀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이제...”

“자네가 안젤리카의 되살아난 시신을 만났다고?”

“오-오!...” - 아르망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왔다. “바로 그렇게 생각했네.”



도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바장였다. 이제 더 이상 잠을 청하기는 글렀다.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 보세. 자네 말로는, 그 여자가 마치 두 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는 거지? 하나는 자기 목소리, 그저 평범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젤리카의 목소리라는 건가?”

“낮은 음역은 바로 안젤리카의 독특한 콘트라alto야.”

아르망이 단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네. 자네는 사람이 고음을 성대의 위쪽 끝으로, 낮은 음을 성대 아랫부분을 움직여 목구멍에서 뽑아낸다고 가정하는 건 아닌가? 소리의 높이는 성대의 크기나 작은 긴장에 좌우되네. 그건 현악기의 줄과 비슷해서, 더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현은 더 많은 진동과 더 큰 고음을 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게다가 만약 그런 수술을 한다면, 성대는 더 짧아졌을 테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주 높아질 거라는 얘기지.

그런데 사람은 그런 수술을 받은 뒤에 노래를 거의 할 수 없을 거야. 절단면이 성대의 올바른 진동을 방해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리고 목소리는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해도 아주 쉰 소리일 테고... 아니야, 이건 확실히 불가능해. 끝으로, 안젤리카의 몸을 ‘되살리려면’ 머리가 있어야 하네, 누군가의 몸통 없는 머리가...”

아르투아 도웰이 문득 말을 멈췄다. 아르망의 가정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뭔가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아르투아는 아버지의 몇몇 실험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었다. 도웰 교수는 죽은 개의 맥관(脈管)에 섭씨 37 도까지 데운 자양분 액체를 아드레날린을 섞어 주입했다.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자극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었다. 이 용액이 어떤 압력 하에서 심장에 들어가자, 심장이 다시 뛰면서 혈액을 혈관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혈액이 조금씩 순환하면서 동물이 살아났었다.

그때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다.

“기관이 죽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관들에 혈액과 혈액에 담긴 산소 공급이 끊기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사람도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르투아의 물음에 아버지가 흔쾌히 답했다.

“그렇지. 나는 소생술을 완성하려고 해, 언젠가 이 ‘기적’을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하고 있단다.”

아버지의 말대로라면 시신을 소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몸통은 이 사람 것이고 머리는 저 사람 것인 시체를 되살리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 수술이 과연 가능할까? 그 점에서 아르투아는 확신이 없었다. 사실 그는 아버지가 조직과 피부를

이식하는 아주 과감하고 성공적인 수술들을 한 것을 직접 보았다. 그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아버지가 척척 해낸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안젤리카의 몸에 다른 머리가 있을 수 있다는, 아르망의 가정이 틀리지 않을지도 몰라. 아버지만이 그런 복잡하고 비범한 수술을 해내실 수 있었지. 그 실험을 조수들이 계속한 건 아닌가?’

도웰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머리카 시신 전부를 되살리는 것과 한 사람의 머리를 다른 사람의 몸통에 붙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텐가?”

도웰이 생각을 멈추고 물었다.

“젯빛 원피스의 여인을 찾아내서 안면을 튼 뒤 비밀을 파헤치고 싶네. 자네가 도와줄 텐가?”

“당연하네.”

아르망이 도웰의 손을 굳게 쥐었다.

그들이 향후 행동 계획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14. 흥겨운 뱃놀이

며칠이 지나 아르망이 브리케와 그녀의 여자 친구, 장 등과 이미 알게 되었다. 그가 그들에게 요트를 타고 바다 유람을 하자고 제의했고, 제의는 꽤히 수락됐다.

장과 빨강머리 마르타가 갑판에서 도웰과 얘기 나누는 동안, 아르망은 브리케에게 밑으로 내려가 선실을 구경하라고 권했다. 그리 넓지 않은 선실이 두 칸인데, 그 중 하나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오, 여기에도 악기가 있다니!”

브리케가 반갑게 소리쳤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폭스트로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요트가 파도 위에서 울동감 있게 흔들렸다. 아르망이 피아노 곁에 서서 브리케를 요모조모 뜯어보며 어떻게 조사를 시작할지 궁리했다.

“아무 거나 한 곡 불러 봐요.”

브리케가 선선히 응했다. 아르망에게 교태 어린 눈길을 던지면서 노래를 시작했다. 그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당신 목소리는... 좀 이상하군요.”

아르망이 그녀의 얼굴을 예리하게 응시하면서 말했다.

“당신 목구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두 여인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브리케가 일순 당황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웃음을 날렸다...

“아,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어떤 음악 선생은 내 목소리가 콘트라alto라 하고, 다른 선생은 메조소프라노라고 했지요. 누구나 목소리를 나름대로 평가했고, 그렇게... 근데 난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 말을 듣자 아르망의 궁금증이 더 커졌다.

‘한 가지 사실을 두고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지? 내 짐작이 맞는다. 여기엔 뭔가 비밀이 있어.’

아르망이 우울하게 입을 뗐다.

“당신이 처음으로 노래할 때는... 내가 잘 아는 여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요. 그녀는 유명한 가수였지요. 가엾게도 기차 전복 사고로 죽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녀의 몸매는 당신 몸매와 너무나도 똑 닮았어요. 두 개의 물방울처럼... 당신의 몸이 그녀의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대를 쳐다보는 브리케의 눈빛에는 이미 두려움이 감춰지지 않았다. 이런 대화를 아르망이 괜히 꺼내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응수했다.

“서로 빼닮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닮은 사람들을 난 여태껏 못 봤어요. 그뿐 아니라... 당신의 제스처... 바로 손을 쓰는 제스처가... 또 있어요... 지금 당신은 흐트러진 머릿결을 다듬으려는 것처럼 손으로 머리를 쥐었지요. 그런 머리채가 안젤리카에게도 있었고, 그녀도 관자놀이에 흘러내린 머리를 그런 식으로 쓸어 올리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기다란 머리대신 최신 유행으로 짧게 잘랐군요.”

“예전에는 나도 머리를 길렀어요.”

브리케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가락 끝이 유난히 떨렸다.

“여긴 갑갑해요... 위로 올라가지요...”

아르망이 역시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그녀를 세웠다.

“잠깐만이요. 당신하고 얘기를 꼭 나눠야 합니다.”

그가 두꺼운 유리창 앞에 놓인 안락의자에 그녀를 억지로 앉혔다.

“속이 안 좋아요... 난 뱃놀이에 익숙하지 못해요!”

브리케가 일어나려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짧은 옥신각신 중에 아르망의 손이 우연히 그녀의 목을 건드리면서 목걸이가 약간 벗겨졌다. 그러자 장밋빛 절단면이 흰히 드러났다.

브리케가 비틀거렸다. 아르망이 그녀를 간신히 부축했다. 그녀가 기절한 것이다.

화가가 어찌할 줄 몰라서 호리병에 있는 물을 그녀 얼굴에 끼얹었다. 그녀가 곧 정신을 차렸다. 두 눈에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렸다. 제법 오랫동안 둘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다. 브리케는 자신에게 징벌의 시간이 닥친 것 같았다. 남의 몸을 자기 것처럼 걸치고 다닌 대가를 지불할 무서운 시간이.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겨우 들릴 정도로 중얼거렸다.

“나를 망가뜨리지 말아요!.. 가엾게 봐 주세요...”

“진정해요. 난 당신을 망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비밀은 꼭 알아야겠어요.”

아르망이 브리케의 축 늘어진 팔을 들어 올려서 세계 놀렸다.

“말해요, 이걸 당신의 몸이 아니지요? 이걸 어디서 났지요? 사실대로 고해요!”

“장!”

브리케가 비명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아르망이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귀에 대고 낮은 소리로 울러댔다.

“한 번만 더 소리를 지르면, 이 선실에서 영원히 못 나갈 거요.”

그러고는 브리케에게서 떨어져 선실 문을 재빨리 잠그고 유리창을 꼭꼭 닫았다.

브리케가 어린애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르망은 사정을 두지 않았다.

“울어도 소용없어요! 내 인내심이 고갈되기 전에 얼른 말해요!”

브리케가 흐느끼면서 입을 떼기 시작했다.

“나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난 유탄을 맞고 죽었는데... 하지만 그 뒤 다시 살아났어요... 머리 하나만 유리판 위에 놓였지요... 그건 아주 무서웠어요!.. 톰의 머리로 거기 놓여 있었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코른 교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살려냈어요... 나에게 몸통을 붙여달라고 부탁했지요. 그가 약속을 했고... 그러더니 어디선가 바로 이 몸을 가져온 거예요...”

그녀가 자신의 어깨와 두 팔을 두려움에 찬 눈길로 바라봤다.

“그러나 죽은 몸을 보고서는 거부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싫어서 내 머리를 시체에 붙이지 말라고 애원했지요... 이런 사실은 로랑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녀가 우리를 돌보았으니까. 그러나 코른은 나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를 마취시켰고, 깨어 보니 이런 모습이었어요. 난 코른의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파리로 달아났다가 여기로 오게 된 거지요... 코른이 나를 추적할 것임을 알았어요... 제발 나를 죽이지 말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몸통 없이 남기를 원치 않아요, 이건 나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렇게 경쾌한 움직임을 난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단지 발이 아픈데...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겠지요... 코른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황설수설을 들으면서 아르망이 생각했다.

‘이 여인한테는 정말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코른이란 자는... 어떻게 안젤리카의 시신을 빼내서 이런 끔찍한 실험에 쓸 수가 있었던 말인가? 코른! 그래 그 이름을 아르투아한테서 들은 적이 있어. 코른은 아르투아 아버지의 조수였던 것 같아. 이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고 말리라.’

아르망이 엄격한 투로 말했다.

“울음을 멈추고 내 얘기를 잘 들어요. 내가 당신을 돕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까지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여기로 올 사람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이요. 여기로 올 사람은 바로 아르투아 도웰이요. 당신도 그를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은 모든 면에서 내 말을 따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깃장을 놓는다면, 그 즉시 지독한 형벌을 받게 될 거요.

당신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당신의 머리와 당신이 입수한 남의 몸을 그 어디에도 숨기지 못할 것이요. 기요틴 집행자들이 당신을 찾아낼 거요. 내 말을 똑똑히 들어요. 첫째, 진정하시고, 둘째,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요. 위에서도 들을 수 있게끔 최대한 크게 불러요. 당신은 아주 즐거워서 갑판으로 올라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브리케가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앉고는 겨우 말을 듣는 손가락들을 놀려 반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더 크게, 더 명랑하게.”

아르망이 유리창과 선실 문을 열면서 지시했다.

그건 참으로 이상한 노래였다. 씩씩하고 유쾌한 장조 풍으로 옮겨진, 절망과 공포의 비명이었으니 말이다.

“건반을 더 힘차게 두드려요! 그래, 그렇게! 연주하면서 기다려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파리로 갈 거요. 달아날 생각일랑 접으시오. 파리에서 당신은 안전할 거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아르망이 명랑한 얼굴을 하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요트는 오른쪽으로 기운 채 작은 파도를 따라 빠르게 미끄러지고 있었다. 축축한 바닷바람이 상큼했다. 아르망이 아르투아 도웰에게 다가가서 다른 두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한 옆으로 데리고 와 말했다.

“밑에 선실로 가 보게나. 그녀가 나한테 한 얘기를 다시 그대로 말하도록 시키게. 그동안 손님들은 내가 상대할 테니.”

“어때요, 요트가 마음에 들어요, 마담?”

아르망이 빨강머리 마르타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기 시작했다.

장은 장의자에 널브러져서 경찰과 수사관들을 피해 멀리 도망 온 기쁨을 만끽했다. 더 이상 조바심 떨고 싶지 않았으며, 늘 긴장하는 생활을 잠시라도 잊고 싶었다. 작은 상자에서 고급 코냑을 느긋하게 꺼내 들면서 꿈만 같고 명상적인 상태에 한층 더 빠져들었다. 그건 다 아르망 덕분이었다.

빨강머리 마르타도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선실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경쾌한 가락들 사이사이에 자신의 목소리를 섞었다.

한 판 유희에 진정이 된 것인가, 아니면 아르투아가 덜 위험한 상대로 보였기 때문인가, 어쨌든 브리케가 이번에는 자신의 죽음과 소생에 관한 사연을 좀 더 조리 있고 알아듣게 읊었다.

“그게 전부예요. 내가 과연 죄를 저질렀나요?”

그녀가 이젠 웃음기마저 띠면서 묻고는 <내가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짧은 상송을 부르기까지 했다. 그 노래를 갑판에 있는 마르타가 따라 불렀다.

아르투아 도웰이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코른 교수 집에서 본 세 번째 머리에 대해 자세히 말해 봐요.”

“툼이요?”

“아니요, 코른 교수가 어떤 머리에 당신을 보여줬다면! 그렇지만...”

도웰이 바지 주머니에서 서둘러 지갑을 꺼내 뒤지더니 사진을 빼서 브리케에게 보였다.

“말해 봐요, 여기 이 남자가 당신이 코른 집에서 본, 나의... 아는 머리와 닮았나요?”

“네, 아주 똑같아요!”

브리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건반을 두드리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정말 놀랍군요! 어깨가 있네요. 몸이 달린 머리로군요. 이 사람에게 벌써 몸을 달아주었던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녀가 놀라움과 정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르투아가 비틀거렸다.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간신히 자신을 추슬러서 몇 발짝을 떼고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을 감쌌다.

“왜 그러세요?”

브리케가 재차 물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의 입에서 나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불쌍한 아버지.”

그러나 브리케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아르투아 도웰이 아주 빨리 정신을 수습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은 거의 차분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놀라게 한 것 같군요. 이따금 가벼운 심장 발작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지요? 당신과 닮은 듯한데... 형인가요?”

브리케가 호기심을 보였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당신은 그 머리를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가 은신처를 만들어 주겠어요. 그 누구도 당신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언제 떠날 수 있겠어요?”

“오늘이라도. 한데 당신은... 내 몸뚱이를 떼어내지는 않을 건가요?”

도웰이 언뜻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아니지요... 당신이 우리 얘기를 잘 듣고 협조만 한다면. 갑판으로 올라갑시다.”

“아, 뱃놀이가 어떤가요?”

갑판으로 올라와서 도웰이 명랑하게 물었다. 그리고 노련한 뱃사람처럼 수평선을 응시하고는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으면서 덧붙였다.

“바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저기 수평선 위에 어둑어둑한 띠가 보이지요?.. 제 시간에 돌아가지 않으면...”

“오, 얼른 돌아가요! 난 바다에 빠져 죽고 싶지 않아요.”

브리케가 농 반 진 반으로 외쳤다.

돌풍의 기미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빨리 해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웰이 바다에 생소한 손님들을 그저 놀라게 한 것일 뿐이었다.

아르망이 점심식사 뒤에 '돌풍이 불지 않으면' 테니스 코트에서 만나기로 브리케와 약속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자 도웰이 말했다.

"이보게, 아르망, 우리가 커다란 비밀의 흔적을 우연히 접하게 됐어. 코른이 누구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나? 바로 내 부친의, 도웰 교수의 머리야!"

벌써 의자에 앉았던 아르망이 용수철처럼 발딱 일어났다.

"머리라고? 자네 부친의 살아있는 머리라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단 말아야? 이게 다 코른의 짓이야! 그자는... 내가 그자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겠어! 이제 한 시라도 빨리 자네 부친의 머리를 찾아야 하네."

아르투아가 비감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살아있는 상태로 찾아내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야. 부친은 몸에서 떼어낸 머리들의 소생 가능성을 몸소 입증하셨지. 하지만 그 머리들은 두 시간도 채 못 살고 죽었다네. 왜냐하면 혈액이 엉겨 붙었고, 인공영양 액체로는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아르투아 도웰은 부친이 숨지기 얼마 전에 <도웰 217>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코른이 <코른 271>로 개명한 약제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약제는 혈관에 주입되어 혈액의 응고를 완벽하게 막아주고, 그래서 머리가 더 오래 생존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살아 있든 죽었든 아버지 머리를 찾아내야 해. 얼른 파리로 떠나세!"

아르망이 짐을 꾸리려고 자기 객실로 달려갔다.

15. 파리로 가다!

점심을 후닥닥 먹고 아르망이 테니스 코트로 달려갔다.

조금 늦게 온 브리케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좋아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입한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브리케는 여전히 그를 아주 흥미로운 남자로 보았다.

빈손으로 온 아르망을 보고 실망하여 물었다.

“라켓은 어디 있어요? 오늘은 가르쳐 주지 않을 건가요?”

아르망은 벌써 며칠 동안 브리케에게 테니스를 가르쳤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주 재능이 있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아르망은 이 재능의 비밀을 브리케 본인보다 더 많이 알았다. 즉, 브리케는 테니스에 능숙한 안젤리카의 훈련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언젠가 그녀가 직접 아르망에게 스트로크를 몇 가지 가르쳐 준 적도 있었다. 이제 아르망은 이미 훈련된 안젤리카의 몸이 아직 훈련되지 않은 브리케의 뇌에 일치하도록 이끌기만 하면 됐다. 즉, 신체의 익숙한 움직임을 그녀의 뇌에 각인시키는 것. 브리케의 몸놀림은 가끔 자신이 없고 딱딱했지만, 비범하게 노련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건 그녀 자신에게도 뜻밖이었다. 예를 들어, 배운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슬라이스를 기막히게 침으로써 아르망을 몹시 놀라게 했다. 이 노련하고 어려운 기술은 안젤리카의 자부심 중 하나였다.

브리케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르망은 이따금 안젤리카가 아닌 사람과 경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곤 했다. 바로 테니스를 치면서 아르망은 가끔 자기가 부른 대로 ‘소생한 안젤리카’에 대한 부드러운 감정을 느꼈다. 사실 이 감정은 그가 안젤리카에게 품었던 흠모며 애뜻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브리케가 석양을 라켓으로 가리고서 아르망 곁에 섰다. 그건 안젤리카의 제스처들 중 하나였다.

“오늘은 게임을 하지 않을 거요.”

“어머나, 섭섭해라! 비록 발이 여느 때보다 더 아프지만, 그래도 칠 수 있는데.”

“나랑 같이 갑시다. 우린 파리로 떠날 거요.”

“지금이요?”

“당장에.”

“하지만 옷도 갈아입고 짐도 좀 챙겨야 하는데.”

“좋아요. 딱 사십 분을 줄 테니 준비해요. 우리가 자동차로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얼른 가서 가방을 싸요.”

‘정말로 다리를 저는군.’

멀어지는 브리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르망이 생각했다.

파리로 가는 길에 브리케의 발이 장난이 아니게 아팠다. 그녀는 좌석에 누워서 나직이 신음을 토했다. 아르망이 최대한 위로하고 달랬다. 이 여행을 통해 그들은 한층 더 가까워졌다. 사실 그는 브리케가 아니라 안젤리카를 대하듯이 아주 정성을 들여 돌봤다. 그러나 브리케는 아르망의 배려를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돌렸다.

그 배려에 크게 감동하여 그녀가 감상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요트에서는 나를 아주 무섭게 했는데, 이젠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고는 웃음을 짓는데 그게 어찌나 매력적이든지 아르망이 답례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답변의 웃음은 이미 전적으로 머리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처음 웃음을 브리케의 머리가 웃은 것이니까. 머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파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그건 브리케를 한층 더 기쁘게 하고 그 사건의 당사자를 놀라게 한 것이었다.

통증이 극도로 심해졌을 때 브리케가 손을 내뻗어 말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이 알아준다면...”

그 뻗은 손을 아르망이 자기도 모르게 쥐고 입을 맞추었다. 브리케가 얼굴을 발강게 물들이고, 아르망이 당황했다.

‘젠장, 그녀에게 입맞춤한 꼴이 아닌가. 그러나 이건 그저 손이야, 안젤리카의 손이란 말이야. 하지만 통증을 머리가 느끼지 않는가, 즉, 손에 입을 맞추면서 난 머리를 가엾게

여겼어. 그러나 머리는 안젤리카의 발이 아프기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 그러나 안젤리카의 통증을 브리케의 머리가 느껴...'

아르망의 머릿속이 완전히 뒤엉켰고, 그래서 더 당황했다.

어색한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아르망이 물었다.

“갑작스러운 출발을 친구한테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설명이란 것도 없어요. 나의 돌발적인 행동에 익숙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녀도 남편과 함께 곧 파리에 도착할 거예요... 난 그녀가 보고 싶어요... 당신이 그녀를 나 있는 곳으로 불러 주세요.”

브리케가 빨강머리 마르타의 주소를 건넸다.

아르망과 아르투아 도웰이 브리케를 작은 건물에 묵도록 결정했다. 아르망의 아버지 소유인 건물은 드멩 거리 끝에 있는데 비어 있었다.

“공동묘지 옆이군요!”

자동차가 몽파르나스 공원묘지 길을 지날 때, 미신을 신봉하는 브리케가 소리쳤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래 살게 된다는 뜻이지요.”

아르망이 위로하자, 미신을 잘 믿는 브리케가 물었다.

“그런 징크스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믿을 만한 거지요.”

그 대답에 브리케가 안도했다.

제법 아늑한 방에 놓인 아주 크고 고풍스러운 침대의 천개(天蓋) 아래 환자를 눕혔다. 브리케가 쿠션 위로 몸을 던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의사와 간병인을 불러야겠어요.”

아르망이 말했지만 브리케가 한사코 거절했다. 새로운 사람들이 신고할까 겁을 낸 것이다.

아르망이 자기 친구인 젊은 의사에게 발을 보이고 수위장의 딸을 간병인으로 부르자고 어렵사리 브리케를 설득했다.

“이 수위장은 우리 집에서 이십 년을 일하고 있어요. 그와 그의 딸을 전적으로 믿어도 좋아요.”



부름을 받은 의사가 아주 별경게 부어 오른 발을 살핀 뒤, 찜질을 처방하고 브리케를 위로하고 아르망과 다른 방으로 나갔다.

“그래, 어떤가?”

아르망이 걱정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일단 심각하지는 않지만 주시해야 하겠네. 이틀에 한 번씩 내가 와 보겠어. 환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네.”

아르망이 아침마다 브리케를 찾아왔다. 한번은 방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간병인이 없었다. 브리케가 졸고 있었다. 아니면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건지도 몰랐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이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스무 살도 안 돼 보였다. 얼굴의 윤곽이 어찌 된 셈인지 곱상해지고 더 부드럽게 변했다.

아르망이 까치발을 하고 침대로 다가가 허리를 꺾고 오랫동안 그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번에는 안젤리카의 '유해'에, 혹은 브리케의 머리카락이나 브리케 전체에 입을 맞추는 것인지 굳이 분석하지 않았다.

브리케가 천천히 눈꺼풀을 올리고 아르망을 보았다. 창백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기분이 어때요? 내가 깨운 건 아닌가요?”

“아니요, 잠을 자는 게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기분이 좋아요. 이 통증만 없다면...”

“의사 말로는 심각한 게 전혀 없답니다. 편안히 누워 있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간병인이 들어왔다. 아르망이 고개를 까닥이고 밖으로 나갔다. 브리케가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배웅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뭔가가 들어섰다. 그녀는 더 빨리 회복되기를 바랐다. 카바레와 댄스, 샹송, ‘샤누아르’의 흥겹게 취한 손님들 따위는 다 어디론가 멀리 사라지고 의미와 가치를 잃었다. 행복에 대한 새로운 꿈이 그녀의 가슴에 생겨났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 자신도 아르망도 의심하지 않는, ‘재현’의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몰랐다! 안젤리카의 깨끗하고 순수한 몸이 브리케의 머리를 젊게 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생각 자체를 바꾸었다. 카바레의 선머슴 같던 여 가수가 수줍은 아가씨로 바뀐 것이다.

16. 코른의 제물

아르망이 정성을 다해 브리케를 돌보는 동안 아르투아 도웰은 코른의 자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둘은 필요하다면 아무 때고 브리케와 상의했다. 그녀는 저택과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다.

아르투아 도웰은 행동에 더 조심을 기하기로 했다. 브리케가 사라진 뒤 코른이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 분명했다. 그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자신을 상대로 이미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코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지 않게끔 일을 꾸며야 했다.

도웰이 아르망에게 말했다.

“우리는 더 교묘하게 움직여야 하네. 마드무아젤 로랑의 거처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야. 그녀가 코른과 함께 있지 않다면 여러 모로 브리케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로랑의 주소를 크게 힘 들이지 않고 알아냈다. 그러나 아파트를 찾아가서는 도웰이 실망했다. 로랑은 없고 그녀의 어머니만 있었기 때문이다. 점잖게 보이는 노부인은 옷차림이 단정했지만, 눈물을 달고 사는 까닭에 눈이 퉁퉁 붓고 사람을 잘 믿지 못했으며 비탄에 잠겨 꼴이 말이 아니었다.

“마드무아젤 로랑을 볼 수 있습니까?”

도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노부인이 의아하다는 눈길을 쫓았다.

“내 딸을? 당신이 그 아이를 아나요?.. 당신은 누구시며, 내 딸을 왜 찾는 거지요?”

“괜찮으시다면...”

“들어오구려.”

로랑의 어머니가 방문객을 작은 객실로 들였다. 부드러운 소파에는 레이스 달린 흰색 커버가 덮이고, 벽에는 젊은 여인의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흥미로운 아가씨로군.’ 하고 생각하면서 아르투아가 자기를 소개했다.

“내 성씨는 라디에입니다. 시골 의사인데, 어제 툴롱에서 왔습니다. 언젠가 마드무아젤 로랑의 대학 동기들 중 한 아가씨와 알게 됐습니다. 한데 그녀를 여기 파리에서 우연히 만나 마드무아젤 로랑이 코른 교수 곁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내 딸의 대학 동기는 이름이 뭐입니까?”

“리시라고 하지요!”

“리시, 리시라고!.. 그런 이름은 들은 적이 없는데.” - 로랑 부인이 생각을 더듬고는 믿기 어렵다는 눈빛을 띄면서 물었다. “택은 혹시 코른이 보낸 사람 아니우?”

“아니에요. 코른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 아르투아가 웃음기 어린 얼굴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분과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요. 그분은 내가 아주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일련의 실험을, 그것도 가장 흥미로운 실험들을 그분이

자택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지극히 폐쇄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의 성소에 아무도 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노부인이 아는 바로 그 말은 사실과 흡사했다. 코른 교수가 문을 퐁퐁 걸어 잠그고 살며 아무도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다는 말을 딸한테서 몇 차례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살면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하고 물었으나 딸은 막연한 대답만 했었다. “갖가지 과학 실험을 해요.”

“그래서...” - 도웰이 말을 이었다. “먼저 마드무아젤 로랑과 인사를 나눈 뒤 어떻게 하면 내 소망을 이룰 수 있겠는지 도움말을 듣기로 한 겁니다. 따님이 분위기를 잡고 코른 교수와 미리 얘기를 나누고 나를 소개해 집안으로 들일 수 있을 거예요.”

젊은이의 외모에는 믿음이 갔지만, 코른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불안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로랑 부인은 대화를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 몰랐다. 노부인이 무거운 탄식을 내뿜고,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꼭 누르면서 말했다.

“딸은 집에 없다우. 병원에 있지요.”

“병원이라구요? 어느 병원입니까?”

로랑 부인이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슬퍼해온 탓에, 이제는 조심성과 경계심을 내던지고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낯선 손님에게 다 털어놓았다. 어느 날 딸이 귀가하는 대신 난데없이 편지를 보내 중환자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한동안 코른의 자택에 머물 것이라고 알렸다, 딸이 보고 싶어 코른의 집을 찾아갔지만 헛수고만 했을 뿐이다, 그 뒤로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다, 결국 코른의 전갈을 받았는데, 딸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그 코른이란 작자를 난 증오해요.” - 노부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다. “바로 그자가 내 딸을 미치게 만든 게라오. 딸이 그 집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난 몰라요, 딸이 입도 뻥끗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마리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안다우. 내 딸 같지가 않았다우.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돌아오고 입맛도 잃고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잠결에, 어떤 도웰

교수라는 사람의 머리와 코른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하질 않나... 코른이 딸의 급료라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우편으로 보내왔고, 지금까지도 보내오고 있다우. 하지만 난 그 돈에 손도 안 댔지. 건강은 그 어떤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건데... 난 딸을 잃었다우..."

노부인의 눈에 고인 그렇그런 눈물을 보면서 아르투아 도웰이 판단했다.

'그래, 이 집안에는 코른의 공모자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진짜 방문 목적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부인,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나도 적잖은 근거를 가지고 코른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부인의 딸이 필요합니다. 코른과 어떤 일을 정산하고... 그의 범죄를 파헤치기 위해서 말이지요."

로랑 부인이 기겁하여 비명을 질렀다.

"아, 걱정 마십시오. 따님이 이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니니까요."

"내 딸은 범죄 따위를 저지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겁니다."

노부인이 당당하게 대꾸했다.

"나는 마드무아젤 로랑의 도움을 좀 받고자 했는데, 이제 보니 오히려 그녀에게 도움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따님은 미치지 않았으며, 코른 교수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됐을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냐면, 부인 말씀대로, 따님은 범죄를 저지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필경 코른은 따님을 위험한 존재로 보았을 겁니다."

"한데, 자꾸 범죄, 범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범죄란 것이우?"

아르투아가 로랑 부인을 아직 잘 모르고, 그래서 혹시라도 노인이 주책없이 입방정을 떨까 우려하여 자세한 언급은 삼가기로 했다.

"코른은 불법 수술을 해 왔습니다. 그자가 따님을 어느 병원에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가운데서도 로랑 부인은 조리 있게 말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간간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대답했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사실을 코른은 오랫동안 나한테 알리지 않았다우. 내가 찾아갔는데 집으로 들이지도 않았다우. 그래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 했다우. 그는

공손한 답신을 보내서, 딸이 머잖아 회복돼 집으로 돌아갈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려고 들었어요.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다시 편지를 보내 딸이 어디 있는지 당장 알려주지 않으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병원 주소를 알려왔어요.

병원은 파리 외곽 스코에 있어요. 라위노라는 의사의 사설 병원이더군요. 아아, 거기로 한걸음에 달려갔다우! 근데 마당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지 뭐유. 그건 병원이 아니라 돌담으로 둘러싸인 진짜 감옥이라우... 문지기가 그러디다. '병원의 규정상 가족을 일절 들이지 않아요. 친엄마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당직 의사를 불렀는데, 그 사람도 같은 말만 합디다. '부인, 가족의 방문은 환자들의 안정을 깨뜨리고 정신 상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따님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것만 말씀 드리지요.' 그러고는 문을 쿵 닫았다우."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해도 내가 따님을 한 번 만나겠어요. 그녀를 아예 데리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르투아가 주소를 꼼꼼하게 적은 뒤 작별을 고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할 겁니다. 마드무아젤 로랑을 친누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믿어 주십시오."

그러고는 또 갖가지 조연과 감사의 말을 한바탕 듣고 나서 방을 나왔다.

아르투아 도웰이 당장 아르망을 만나기로 했다. 친구는 며칠 동안 내내 브리케와 보내고 있었다. 도웰이 뒤땡 거리로 향했다. 작은 건물 곁에 아르망의 자동차가 서 있었다.

아르투아가 단숨에 이층으로 올라가 객실로 들어섰다.

"오, 아르투아, 큰일 났어."

아르망이 사색이 되어 방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검은 곱슬머리를 쭈뼛 세웠다.

"무슨 일인데?"

"아!..." - 친구가 신음했다. "그녀가 달아났어..."

"누가?"

"누구긴, 마드무아젤 브리케지!"

"달아났다고? 아니, 왜? 좀 알아듣게 얘기하게!"

그러나 아르망은 좀체 입을 떼지 못했다. 여전히 방안을 바장이며 탄식하고 신음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십 분을 넘기고서야 입을 떼기 시작했다.

“어제 마드무아젤 브리케가 아침부터 발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했어. 발이 상당히 붓고 퍼렇게 됐네. 의사를 불렀지. 그가 발을 살피더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하더군. 괴저가 시작되어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거야. 의사는 집에서 수술하기가 힘드니까 병자를 즉각 병원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네. 그러나 마드무아젤 브리케는 한사코 동의하지 않았어. 병원에서 자기 목에 난 상처가 눈에 띄까봐 겁을 낸 거지. 눈물을 펄펄 쏟으면서 코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더군. 코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기 집에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가혹하게 벌을 받았다는 거야. 그녀는 코른을 외과의로서 신뢰하고 있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살려내고 새 몸통을 준 바에야, 내 발도 당연히 치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에게 이견 식은 죽 먹기예요.’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네. 난 그녀를 코른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꾀를 쓰기로 했지. 내가 직접 코른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지. 그러나 브리케의 ‘부활’ 비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했네. 즉, 아르투아, 자네를 생각한 거지. 그래서 아는 의사들과 상의하려고 한 시간쯤 나가 있었어. 그런데 돌아와 보니 벌써 없어진 거야. 내가 속이려고 했는데, 그녀가 나와 간병인을 멋지게 따돌린 셈이지. 침대 옆 탁자에 쪽지 하나만 달랑 남기고 떠났네. 바로 이거야, 보게나.”

아르망이 아르투아에게 건넨 종이쪽에는 연필로 서둘러 쓴 단어 몇 개가 적혀 있었다.

「아르망, 용서해 줘요. 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코른에게 돌아가요. 나를 찾지 말아요. 코른이 이전에 한 것처럼 나한테 다리를 붙여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 다시 본다는 생각에 그나마 마음이 놓여요.」

“흠, 서명이 없네.”

“잘 보게, 필체를.” - 라레가 말했다.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건 안젤리카의 필체야. 땅거미가 내릴 때나 손이 아플 때 안젤리카는 이런 식으로 더 굵게 휘갈겨 쓰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었던 말인가?”

“아아, 그녀가 코른한테서 도망해 나한테 왔지만, 결국은 코른에게 돌아간 거야. 여기로 돌아와서 새장이 텅 빈 걸 보고는 간병인을 죽이고 싶었어. 알고 보니 간병인도 헛갈리게 됐더군. 브리케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전화기로 다가가서 나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야. 한데 그건 속임수였지. 나한테 전화한 게 아니었어. 브리케가 통화를 끝내고 간병인에게 설명하기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마련했으며 브리케가 신속히 병원으로 오라고 부탁했다는 거지. 그리고 브리케는 간병인에게 자동차를 부르게 한 뒤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자동차에 올라타고는, ‘여기서 멀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나를 내려 줄 거예요.’ 하면서 혼자 떠난 것이네. 간병인은 그런 일이 다 내 지시에 따른 것이고 내가 훤히 알고 있다고 믿은 거야, 아르투아!”

아르망이 다시 심하게 동요하면서 소리 질렀다.

“당장 코른한테 가겠네. 그녀를 거기에 있게 할 수 없어. 벌써 전화로 자동차를 불렀네. 함께 가세, 아르투아!”

아르투아가 방안을 바장였다. 일이 이렇게 꼬이다니! 브리케가 코른의 저택에 관한 정보를 이미 다 알려주었다고 해도, 그녀 자체가 코른을 파멸시키는 확실한 증거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향후 행보에서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얼이 빠진 아르망은 이제 나쁜 조력자이다.

아르투아가 화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보게, 친구.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결속을 다지고 경솔한 행위를 삼가야 하네. 브리케는 이미 코른의 집에 있어. 옆질러진 물이지. 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야수를 우리가 미리 경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까? 자네 생각은 어떤가? 브리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코른에게 속속들이 고할까? 그녀가 탈주한 뒤 우리와 친해지고, 우리가 코른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따위를...”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네.” - 라레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요트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도 비밀을 지키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한 걸. 그녀는 이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그렇게 할 걸세.”

그 동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르투아는 이해했다. 아르망이 브리케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을 그는 벌써 오래 전에 알아차렸다.

'가엾은 낭만주의자. 비극적인 사랑만 하는군. 이번에는 안젤리카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랑도 잃겠어. 하지만 아직 다 잃은 것은 아니지.'

"인내심을 가지게, 아르망. 우리의 목표는 같아. 힘을 모으고 주도면밀하게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네. 코른에게 신속한 타격을 가하든지, 아니면 먼저 우회적인 방법으로 내 부친의 머리와 브리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내는 거야. 브리케가 달아난 뒤 코른은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지 않겠나? 만약 그가 내 부친의 머리를 아직 없애지 않았다면, 단단히 숨겨 두고 있을 거야. 머리는 몇 분이면 처리할 수 있어. 경찰이 문을 두드린다 해도, 그는 문을 열어주기 전에 범죄 흔적을 말끔히 없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못 찾네. 브리케도 '범죄의 흔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게, 아르망.

코른은 불법적인 수술을 자행해 왔어. 어디 그것뿐인가? 안젤리카의 시신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네. 코른은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작자야. 내 부친의 머리도 아무도 모르게 되살리는 짓을 저지르지 않았나. 부친이 사후에 시신을 해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알고 있네. 하지만 당신 머리를 소생시키는 실험에 동의했다는 얘긴 들을 적이 없어. 코른은 머리의 존재를 왜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나한테까지도 감추는 건가?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브리케가 그에게 필요한 거지? 그자가 사람들을 상대로 생체 해부를 하는 건 아닐까, 브리케를 실험용 토끼처럼 쓰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녀를 더 빨리 구해야 돼!"

아르망이 뜨겁게 반박했다.

"물론 구해야지, 하지만 그러다가 죽음을 재촉해서는 안 되네. 우리가 찾아가면 코른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더 느긋한 길로 가는 거야. 이 방법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 마리 로랑이 브리케보다도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네. 로랑은 저택의 구조를 알고, 머리들을 돌보았네. 어쩌면 내 부친과... 그러니까, 머리와 얘기를 나눴을지도 몰라."

"그러면 로랑을 빨리 만나세."

“오호, 그녀도 먼저 탈출시켜야 하네.”

“코른의 집에 있나?”

“병원에 있어. 우리 같은 정상인들을 필경 돈을 먹고 환자라고 가둬 두는 병원들 중 하나일 거야. 작업을 제법 많이 해야 할 걸세, 아르망.”

도웰이 로랑 부인과 만났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저주받을 코른! 그자는 주변에 불행과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그가 걸려들도록 하자구. 그러려면 가장 먼저 로랑과 만나야 하네.”

“당장이라도 거기로 가겠어.”

“그건 경솔한 짓일 수 있네.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우리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도록 할 필요가 있네. 일단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이용하세나. 우리 자신은 적에게 드러내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내세워야 하네. 확실한 사람을 찾아서 그가 스코로 가서 위생사며 간병인, 요리사, 경비들과 안면을 트게 하는 거야. 그들 중 하나라도 구워삶게 된다면, 일은 절반 성공한 셈이지.”

아르망이 조금하게 굴었다. 본인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싶어 했다. 그러나 더 이성적인 아르투아의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 조심스러운 작전에 동의했다.

“근데 누구를 부르지? 아, 그래, 샤우브가 있어! 젊은 화가,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왔지. 나랑 잘 알아, 좋은 사람이고 뛰어난 스포츠맨이야. 그에게는 이 일이 스포츠 같을 거야. 젠장, 내가 직접 나설 수 있다면 원이 없을 텐데.”

“이 일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이냐?”

아르투아 도웰이 웃으면서 물었다.

17. 라위노의 사설 병원

스물세 살에 장밋빛 얼굴의 블론드,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샤우브는 '음모자들'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일단은 일의 전모를 상세히 밝히지 않고 친구들에게 그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샤우브는 명랑하게 고개를 끄덕거렸을 뿐 자기가 도울 일이 혹시 비난받을 짓은 아닌지 아르망에게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아르망과 그 친구의 정직성을 믿었다.

샤우브가 탄성을 내질렀다.

“멋있는 일이야! 당장 스코로 가겠어. 화구를 들고 가면, 작은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거야. 간호사들과 간병인들의 초상화를 죄다 그리겠어. 괜찮은 아가씨들이 있으면, 연애도 좀 하지, 뭐.”

“필요하다면, 손도 내밀고 마음도 주게.”

아르망이 맞장구치자 젊은이가 수줍게 덧붙였다.

“그러기에는 내가 썩 잘 생기지 못했어. 하지만 필요하다면 나의 이두박근을 기꺼이 발휘하겠어.”

새로운 동맹자가 길을 떠났다.

“기억하게나. 최대한 신속하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네.”

도웰이 마지막 당부를 했다.

샤우브는 사흘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다음 날 저녁 아주 풀이 죽어서 아르망에게 왔다.

“불가능해. 그건 병원이 아니라 석조 담장으로 둘러싸인 감옥이야. 직원들이 아무도 담장 밖으로 나오지 않아. 식료품을 공급하는 계약업자들조차 마당에도 들여놓지 않아. 관리인이 정문까지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 가는 거야... 나는 양 우리 주변의 늑대처럼 이 감옥을 빙 둘러봤지만, 잠입은커녕 담장 안을 한 번 들여다보지도 못했어.”

아르망이 실망하여 짜증까지 냈다.

“샤우브, 자네가 재치와 유연성을 발휘하리라 기대했는데.”

그 말에 샤우브가 역시 짜증 묻은 소리로 대꾸했다.

“그런 솜씨를 직접 발휘해 보시는 게 어때? 나도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나 그 지역의 한 화가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그 지역을 잘 알고 병원의 풍습도 꿰뚫고 있어. 그의 말로는 그게 아주 특수한 병원이라는 거야. 알고 보니, 그 담장 안에는 범죄와 비밀이 수두룩해. 너무 오래 살고 죽을 생각이 없는 일가친척들을 상속인들이 광인으로 몰아 거기다 집어넣고 뒤에서 후견인 행세를 한다는 거야. 또 미성년자들의 후견인들도 거기로 피후견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보낸다지? 이른바 후견을 계속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마음 놓고 주무르는 거지.

그건 부자들을 위한 감옥이야, 불쌍한 아내와 남편, 늙은 일가친척, 피후견인들을 산 채로 감금하는 감옥 말일세. 병원 소유주는, 주임 의사이기도 한데, 고객들한테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받는다는군. 거기 직원들도 급료가 짹짹하다네. 거기는 무법지대야, 불법을 저질러도 석조 담장이 아니라 금덩이가 막아주지. 거기서는 매수가 횡행해. 그런 여건에서 내가 스코에 일 년을 죽치고 앉아 있어봤자 병원에 발끝도 디밀지 못할 게 뻔하지 않나?”

“죽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지.”

아르망이 통명스레 대꾸했다.

샤우브가 자기 다리를 과시적으로 들어 올리고 찢어진 바지 끝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씩씩한 빈정거림으로 말했다.

“자, 보다시피 행동도 했네. 간밤에 담장을 기어올라 넘으려고 했거든. 그런 거야 식은 죽 먹기지. 그러나 담장 저편으로 뛰어내리자마자 송아지만한 개들이 달려들더군. 그 결과가 이거야... 원숭이처럼 날쌔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난 갈기갈기 찢겼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널따란 정원 사방에서 경비원들의 호각 소리가 들리고,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서 번쩍였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그만 돌아 나오려고 했을 때 경비원들이 개들을 정문 밖으로 풀었어. 그 짐승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하면, 예전에 아메리카 남부 농장들에서 도주한 흑인들을 수색하려고 훈련시킨 개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아르망, 자네가 알다시피, 내가 단거리 경기에서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만일 내가 간밤에 그 빌어먹을 개들을 피해서 죽을힘을 다해 똥 것처럼 늘 달렸다면, 아마도 세계 챔피언이 됐을 거야. 마침 저만치서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속도가 시속 삼십

킬로미터쯤은 될 거야. 그렇게 지나치는 자동차 발판에 가볍게 뛰어 올랐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정말 환장하겠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한담?”

아르망이 머리털을 곤두세우며 소리쳤다. 그리고 전화기로 달려갔다.

“아르투아를 불러야겠어.”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아르투아가 친구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샤우브의 실패담을 대강 듣고서 그가 말했다.

“그건 예견된 일이었네. 코른이 자기의 제물들을 허술한 곳에 둘 리가 있겠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한담?”

그가 아르망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정면으로 돌파해서 코른이 한 것처럼 주임의사를 매수한다?..”

“내 재산을 다 쏟아 부어도 좋아!”

아르망이 소리쳤다.

“그 정도로서는 부족할 것 같네. 라위노 의사의 영리 기관은 그가 고객들한테서 받아 챙기는 거금과 고객들이 그에게 보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라위노가 벌써부터 짹짹한 뇌물을 먹고 있다면, 다른 어떤 조건으로든 그는 고객들의 이익을 팔아넘기지 않을 거야. 라위노는 자신의 평판을 훼손하기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사업 근간이 흔들리는 것도 바라지 않아. 앞으로 이십 년 동안의 수입과 맞먹는 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면, 혹시 우리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한데 우리 재산을 다 모아도 그 정도는 되지 못할 것이네. 라위노의 고객들은 백만장자라는 점을 잊지 말게나. 그의 직원들 중 누군가를 매수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간단하고 싸게 먹히지. 그런데 라위노가 직원들도 감금된 사람들 못잖게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야.

샤우브 말이 맞네. 나도 라위노의 병원에 관한 정보를 웬만큼 수집했어. 거기서 외부인이 강제수용소에 잠입했다가 탈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는 직원을 뽑을 때도 뒷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쓰고 있다네. 라위노는 법을 어기고 경찰의 눈을 피해 다니는 자들도 기꺼이 받아들여. 급료를 후하게 주지만, 일하는 기간에는 병원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지, 근데 그 기간이 십 년도 되고, 이십 년도 넘어.”

“그렇게 자유가 없이 죄수들처럼 사는 데도 동의할 사람들을 그자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지?”

아르망이 물었다.

“어려운 일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노후 보장에 끌리기 마련이네. 그들 대다수는 또 지금도 사는 게 팍팍하고. 물론 누구나 다 거기 생활을 견디지는 못해. 라위노의 병원에서도 아주 드물긴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달아나는 경우가 생기네. 바로 얼마 전에도 자유로운 생활을 갈망한 직원 하나가 도망쳤지. 한데 그날로 그의 시체가 스코 외곽에서 발견되고 말았네. 지역의 경찰은 라위노에게 매수돼 있어. 경찰은 그 직원의 죽음을 자살로 처리했지. 라위노가 시체를 거두어 자기 병원으로 옮겼어. 그 뒤 어떻게 했을지는 짐작이 가는 거야. 필경 시체를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계약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올려뒀을 게 분명해. 그런 형편이네.”

아르망이 아연실색했다.

“자넨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나?”

아르투아 도웰이 흐뭇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샤우브가 다소 기분이 나아져서 말했다.

“보라구,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 끔찍한 곳에서 로랑이 어떻게 지낼지 상상이 가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아르투아? 폭약으로 담장을 부술까? 지하 갱도를 팔까?”

아르투아가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생각에 잠겼다. 그런 그를 친구들이 말없이 응시했다.

“유레카(Eureka)!”

문득 아르투아 도웰이 탄성을 내뿜었다.

(*Eureka - “알았어, 됐어.”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금 순도 측정법을 발견하고서 내지른 탄성.)

18. '미친 사람들'

크지 않은 방, 정원으로 창이 나 있다. 사방에 잿빛 벽. 잿빛 침대 위에 폭신한 연회색 이불. 작은 흰 탁자와 두 개의 흰 의자.

로랑이 창가에 앉아서 멍한 눈길로 정원을 내다보았다. 아마 빗갈 머리가 햇빛을 받아 금색을 띠었다. 그녀는 몹시 여윌고 창백했다. 창에서 보이는 오솔길을 따라 환자들이 산보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검은 테를 두른 흰 가운 차림의 간호사들이 어른거렸다.

어슬렁거리는 환자들을 보면서 로랑이 중얼거렸다.

"미친 사람들... 그리고 나도 미쳤고... 참으로 무의미한 일이야! 내가 한 일이 겨우..."
그녀가 손가락들에서 소리가 날 만큼 두 손을 꼭 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코른이 그녀를 서재로 불러 말했다.

"얘기 좀 합시다, 마드무아젤 로랑.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처음 왔을 때 우리가 나눈 대화를 기억하시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밖에서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네."

"이제 다시 한 번 서약하면 모친을 보러 가도록 해주겠소. 보시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코른이 상대의 심리를 제대로 찌렀다.

로랑이 극도로 당황했다. 몇 분 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로랑은 약속을 지키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난 뒤로는... 그녀가 주저하는 것을 보면서 코른이 그 갈등상태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폈다.

마침내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네, 함구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나 당신은 나를 기만했습니다. 나한테 많은 것을 감춰어요. 만일 처음부터 사실대로 알려주었다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요?”

“예.”

“솔직히 말해 주어 고맙소. 당신이 적어도 교활하게 굴지는 않는 덕분에 당신과 일하기가 좋아요. 당신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소.”

그런 말은 로랑을 추켜세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코른은 평소 정직을 어리석은 것이라 여겨 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용감한 성격과 도덕적 불굴이 정말 훌륭해 보였다.

‘빌어먹을, 이 아가씨를 제거하게 된다면 무척 아쉬울 텐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마드무아젤 로랑, 당신은 할 수만 있다면 즉각 나를 경찰에 고발할 거요? 그게 나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잘 알잖소. 난 중벌을 받을 거요. 그뿐 아니라, 나의 명성도 진흙탕에 떨어지겠지.”

“그런 점을 진작 고려하셨어야지요.”

그 말을 짐짓 못 들은 체하면서 코른이 입을 놀렸다.

“이봐요, 마드무아젤, 편협한 도덕적 관점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시오. 만일 내가 아니라 도웰 교수가 오래 전에 땅 속에서 썩거나 화장터에서 재가 됐다면, 그의 업적이 됐으리라는 점을 알아두시오. 머리통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죽은 뒤의 창의가 아니겠소? 그걸 내가 만들어냈단 말이요. 그런 여건에서 도웰의 머리의 ‘생산물’에 내가 일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소? 게다가 내가 없다면 도웰은, 그러니까, 그의 머리는 발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거요. 뇌를 수술해서 어디에 접합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나는 브리케의 머리를 몸통과 '결합시키는' 수술을 훌륭하게 끝냈소. 경추들을 거치는 척수가 잘 유착됐단 말이요.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웰의 머리와 코른의 손이 힘을 쓴 거요. 바로 이 두 손도..."

코른이 자기 손을 보면서 내밀었다.

"쓸모가 있다는 말이요. 이 두 손은 지금까지 백여 명의 목숨을 구했으며, 당신이 내 머리 위에 복수의 칼을 늘어뜨리지만 앓는 한 앞으로도 수백의 생명을 구할 것이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요. 우리의 최근 연구는 의학계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이라는 측면에서도 혁명적인 것이요. 앞으로 의학은 사람의 꺼져가는 생명을 복원할 수 있소. 수많은 위인들을 죽은 뒤에 소생시키고 인류의 지복을 위해 그들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요! 나는 천재들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아내에게 남편을 돌려주게 될 거요. 앞으로는 이런 수술을 외과의라면 누구나 집도하게 될 거요. 인류의 슬픔이 크게 줄어들게 될..."

"다른 불행한 이들을 희생해서."

"그렇다 한들 무엇이 나쁘단 말이요. 두 명이 통곡하는 대신 한 사람만 울게 되는 거요. 두 구의 시체 대신 한 구만 있게 되는 거요. 이게 과연 거대한 전망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 것과 비교할 때 나의 개인적인 일들은, 아무리 범죄적인 것이라 해도,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요?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외과의의 영혼에 죄업이 있다 해도 병자들은 개의치 않을 것이요. 당신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수천의 생명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요. 당신은, 내가 완성하기만 한다면, 그 완성보다 천 배는 더 큰 범죄를 짓는 꼴이 되는 거요. 재삼재사 숙고하고 최종 답변을 들려주시오. 재촉하지 않으리다."

"대답은 벌써 드렸습니다."

로랑이 서재를 나갔다.

그녀가 도웰 교수의 머리가 있는 방으로 가서 코른과의 대화를 자세히 전했다. 도웰의 머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거나 최소한 막연하게 대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난 거짓말을 못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떳떳할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 운명의 굴레를 씌었구려. 당신은 파멸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희생이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요."

“난...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로랑이 우울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머리한테서 멀어졌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으면서 같은 말을 연신 중얼거렸다.

“주사위는 던져진 거야.”

‘불쌍한 엄마.’ 그런 생각이 뜻하지 않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엄마도 나처럼 행동했을 거야.’ 로랑이 스스로에게 답했다.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소상히 알리고 싶었다. 최후의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걸 보낼 방법이 없었다. 로랑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죽음을 차분하게 맞을 준비는 돼 있었다. 단지, 어머니가 걱정되고 코른의 범죄를 폭로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통할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그가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가 예상한 일은 짐작보다 더 빨리 벌어졌다.

로랑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신경이 날카로웠다. 벽에 놓인 서랍장 뒤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경악하기보다는 그저 깜짝 놀랐다. 방문은 잠겨 있었다. 그 누구도 기척도 없이 방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다.

‘뭐가 바스락거리지? 쥐가 다니나?’

그 다음의 일은 삼시간에 벌어졌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이어 빠거덕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발길이 재빨리 침대로 접근했다. 로랑이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힘센 손아귀가 그녀를 베개로 짓누르고 얼굴에 클로로포름을 적신 마스크를 씌웠다.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녀가 온몸을 흔들며 본능적으로 저항했다.

“암전히 있어.”

그건 코른의 목소리였다. 수술할 때마다 듣던 목소리. 그리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정신병원에 있었다.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지독히 힘겨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위협을 코른 교수가 실행한 것이다. 코른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사람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복수를 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은 아무런 징벌도 받지 않았다. 마리 로랑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에는 아무런 결실이 따르지 못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녀의 정신적 균형이 한층 더 깨졌다.

그녀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 여기서도 코른의 영향력을 느꼈다.

처음 두 주 동안은 방안에만 갇혀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무성하고 '암전한' 환자들이 어슬렁거리는 정원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됐다.

암전한 환자들이란, 감금 상태에 저항하지 않으며 자기네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의사들에게 증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으며 탈출을 시도하려 들지도 않는 이들이었다. 병원 전체로 보자면 진짜 정신 이상자들은 십분의 일도 되지 않았으며, 그들조차도 병원에 들어와서 그런 상태로 바뀐 것이었다. 그런 목적을 위해 라위노는 '심리적 중독'이라는 복잡한 수법을 고안해냈다.

19. '다루기 힘든 케이스'

의사 라위노에게 마리 로랑은 '다루기 힘든 케이스'였다. 사실 코른 곁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의 신경계가 상당히 쇠약해졌다. 그럼에도 의지가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제 그 작업을 라위노가 맡았다.

그가 로랑의 '심리 주무르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대신, 일단은 멀리서 주의 깊게 관찰만 했다. 그녀를 일찌감치 무덤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정신이 나가게 할 것인지, 코른 교수가 아직 확실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러 모로 보아 라위노의 정신 '병원' 체제에는 후자가 더 적당했다.

로랑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운명이 최종 확정될 수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 아니면 미친증. 여기서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다른 길이 없었다. 그녀는 최소한 미친증과 싸우기 위해 정신력을 다 모았다. 아주 온순하고 순종적이며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재능이 뛰어나고 환자 경험이 많은 라위노를 그걸로 속이기는 어려웠다. 로랑이 온순하게 굴자 라위노는 오히려 더 경계하고 의심했다.

'힘든 케이스야.'

아침 회진 시간에 로랑을 문진하면서 라위노가 그런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기분이 어때요?" 하고 묻자, 로랑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상황이 낯설고 상대적으로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은 억압된 상태를 느낍니다. 고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지요."

"고독에는 익숙해졌어요."

'속내를 간파하기가 쉽지 않겠어.' 라위노가 생각하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다 정상입니다. 신경쇠약 증상만 약하게 보일 뿐이에요. 코른 교수의 말로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몹시 힘겨운 인상을 초래하는 실험에 당신이 참여했다더군요. 당신은 아주 젊어요. 과로와 약간의 노이로제 증상이 있고... 그래서 당신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코른 교수가 여기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한 거지요..."

"코른 교수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기질이야.' - 라위노가 꽤 씩하게 여겼다. '이 아가씨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지내도록 해야겠어. 그러면 공공이속을 더 드러낼지도 모르고, 성격을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런 계산에서 라위노가 은근하게 제의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왜 나다니지 않지요? 여기 정원은 아주 좋아요, 정원이라기보다 수십 헥타르에 달하는 공원이라 할 만하지요.”

“산보를 나가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래요?” - 라위노가 놀란 빛을 띠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조수가 실수했군요. 산보가 해로운 환자들도 있지만, 당신은 그런 편이 아닙니다. 나다니세요. 우리 환자들과 알고 지내세요. 흥미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위노가 나가자 로랑이 방에서 나와 검은 테가 돌리고 음울한 잿빛으로 칠이 된 기다란 복도를 따라 출구로 향했다. 여기저기 방마다 닫힌 문 안쪽에서 미친 듯이 으르렁대는 소리와 고함소리, 발작적인 웃음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오... 오... 오...” -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우-우-우... 하-하-하-하.” - 오른쪽에서 반응했다.

‘동물원에 온 것 같아.’

로랑이 그 압박하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자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다. 걸음을 다소 재촉하여 건물 밖으로 나왔다. 정원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평탄하게 펼쳐졌다. 그 길을 따라 걸었다.

라위노 의사의 ‘시스템’은 여기서도 감지됐다. 주변 모든 것이 음울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무들이라고는 암녹색을 띤 침엽수 일색이고, 등받이가 없는 목제 장의자들은 암회색으로 칠이 됐다. 무엇보다도 꽃밭들을 보고 로랑이 특히 놀랐다. 화단들은 마치 무덤처럼 조성됐는데,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암청색의 오랑캐꽃들이 주종을 이루면서 장례식장의 흰 리본처럼 바깥을 두르고 있었다. 거무튀튀한 측백나무들이 그림을 보충했다.

‘그야말로 공동묘지와 다를 바 없네. 여기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 하지만 나를 어찌지는 못할 거야, 미스터 라위노. 난 당신의 비밀들을 짐작했고 당신의 ‘효과’는 당장 나를 덮치지 못할 거야.’

로랑이 그렇게 자신을 추스르고는 '무덤 같은 화단들'을 빠르게 지나쳐서 소나무 오솔길로 들어섰다. 사원 기둥 같이 키 큰 나무들이 위로 짝짝 뻗어서 암녹색 둥근 지붕들을 덮었다. 소나무들의 우듬지가 고르고 일관된 마른 소리를 냈다.



정원 곳곳에서 잿빛 가운 차림의 환자들이 눈에 띄었다.
'저들 중 누가 미친 사람이고 누가 정상인일까?'

그건 그들을 그리 오래 관찰하지 않아도 틀림없이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직 희망을 잃지 않은 이들은 '신참'인 로랑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정신병자들은 희미해진 의식으로 자신에게 몰입했고, 자기네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바깥세상과 단절돼 있었다.

허연 턱수염이 길고 키가 크고 마른 노인이 로랑에게 다가왔다. 노인은 무성한 눈썹을 치켜세우며 로랑을 보고는 혼잣말을 계속하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십일 년까지는 셋지만, 그 다음에는 잊어버렸어. 여기에는 달력이 없고 시간은 정지됐어. 이 오솔길을 얼마나 많이 어슬렁거렸는지 몰라. 이십 년인가, 아니 천년일 수도 있어. 신의 얼굴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아. 시간을 종잡기 힘들어. 아가씨, 당신도

여기서 천년 동안 저기 돌담까지 갔다가 다시 천년 동안 되돌아오게 될 거야. 여기서 나갈 수는 없어. 여기로 들어오는 이들이여, 희망은 다 내던지라! 단테가 그러지 않았나, 허허허! (*<신곡>의 '지옥' 편 3 면에서).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당신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오? 난 교활한 사람이야. 여기서는 광인들만 살 권리가 있어. 당신도 나처럼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야. 당신과 나는..."

환자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업무인 간호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노인이 말투를 바꾸지 않으면서 능글맞게 눈을 깜빡였다.

"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야, 나의 백일천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간호사가 멀어지자 그가 던지는 말을 들으면서 로랑이 생각했다.

'가없는 사람. 과연 사형선고를 피하려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걸까? 목숨을 구하려고 위장해야 하는 사람이 나 하나만이 아니구나.'

또 다른 환자가 로랑에게 다가왔다. 검은 염소수염을 단 젊은이가 장방형 원에서 평방근을 도출하는 법에 대해 황당무계한 소리를 지껄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간호사가 로랑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 이 젊은이는 심하게 감시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가 로랑에게 바짝 다가서더니 침을 튀기면서 더 빠르고 집요하게 입을 놀렸다.

"원이란 무한이야. 원과 같은 면적의 정방형이란 무한대의 면적이지. 잘 들어요. 원의 정방형에서 평방근을 도출하는 것은 무한대에서 평방근을 도출한다는 뜻이야. 이건 N 승을 곱한 무한대의 일부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정방형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근데 당신은 내 말을 안 듣고 있군요."

갑자기 젊은이가 화를 내면서 로랑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녀가 손을 빼낸 뒤 자기 방이 있는 병동 쪽으로 뛰다시피 하며 서둘렀다. 현관 가까이 이르러서 라위노 의사와 마주쳤다.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로랑이 자기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안쪽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다. 응대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문턱에 라위노 의사가 나타났다.

그의 머리는 여느 때처럼 약간 뒤로 젖혀졌다. 다소 커지고 둥글고 날카로운 통방울눈이 안경 너머로 방안을 살폈다. 검은 콧수염과 아래턱에 난 작은 삼각형 수염이 입술과 함께 꿈틀거렸다.

“실례하오,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의사라는 직분으로는 그럴 수도 있단요...”

의사 라위노는 로랑의 ‘도덕적 가치의 파괴’를 시작할 좋은 순간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의 무기고에는 아주 여러 가지 작용 수단들이 있었다. 사람 좋아 보이게 하는 진정성과 정중함, 매혹적인 친절함에서부터 거칠음과 냉소적인 솔직함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로랑의 평정을 깨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돌연 무례하고 비웃는 말투를 취했다.

“왜 당신은 ‘들어오세요. 난 당신을 부르지 않았어요. 생각에 골몰해서 노크를 못 들었어요.’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요? 아니면 그 비슷한 말이라도?”

“아니요, 노크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혼자 있고 싶어서 대답하지 않았지요.”

“늘 그렇듯이, 역시 솔직하군요!”

그가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 거기에 기분이 상해서 로랑이 한마디 걸쳤다.

“솔직함이란 빈정거리기에는 썩 좋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상대로 걸려들고 있어.’

라위노의 기분이 좋아졌다. 그가 로랑의 맞은편에 무례하게 걸터앉아서 툭 튀어나온 눈알을 미동도 않은 채 뚫어져라 쏘아보았다. 로랑이 그 눈길을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불쾌해졌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눈을 내리깔고 말았다.

라위노가 여전히 빈정거리는 투로 입을 놀렸다.

“당신은 솔직함이 빈정거리기에 좋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한데 난 그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오. 만일 당신이 정말 자기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나를 여기서 내쫓았을 것이오. 왜냐면 나를 미워하니까. 그렇기는 해도 손님을 환대하는 여주인의 친절한 미소를 간직하도록 해 봐요.”

로랑이 투명스레 대꾸했다.

“이건... 그저 예의범절일 뿐이에요,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예의범절이 아니라면, 나를 내쫓을 건가요?”

그러면서 라위노가 난데없이 뾰족한 소리로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훌륭해요! 아주 좋아! 예의범절이 솔직함과 일치하지 않는군. 그러니까, 예의범절 때문에 솔직하게 행동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이고.”

그가 손가락을 꼬았다.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당신은 ‘아주 좋다’고 대답했지요. 비록 당신의 눈빛에서 나는 당신이 목을 매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즉, 그때 당신은 거짓말을 한 거요. 그것도 예의범절에서 나온 건가요?”

로랑이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또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감정을 감추고자 한 것이라고 고백해야 했다. 그래서 입을 꼭 다물었다.

라위노가 계속 지껄었다.

“내가 도와드리지요, 마드무아젤 로랑. 그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자기방어를 위한 가장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로랑이 도전적으로 대꾸했다.

“아하, 당신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당신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소. 이 대화를 계속한다면 내 손가락이 모자랄까 겁이 나오. 당신은 또 연민 때문에도 거짓말을 했지요. 모친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지 않았던가요?”

로랑이 깜짝 놀랐다. 라위노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 그는 실제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도 그의 시스템의 일환이었다. 그는 정신병자라고 몰아붙이며 환자들을 말기는 고객들한테 입원 사유며 환자에 관한 정보를 낱낱이 요구하곤 했다. 고객들은 그것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도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가장 무서운 비밀들조차 라위노에게 감추지 않았다.

“당신은 훼손된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죄를 벌하려는 요량으로 코른 교수에게 거짓말을 했소. 당신은 진실을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슝슝한 패러독스가 아니겠소! 일일이 열거하자면, 당신의 진실은 늘 거짓으로 충전돼 온 셈이요.”

라위노가 과녁을 제대로 겨냥했다. 로랑이 잔뜩 축기가 들었다. 자기 인생에서 거짓말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정의로운 당신이 이제 짬을 내어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를. 솔직함으로써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이요? 내가 말해 드리지. 바로 이런 감금 상태에 떨어졌을 뿐이요. 그 어떤 힘도, 지상의 힘도 하늘의 힘도, 당신을 여기서 빼내지 못할 거요. 그렇다면 거짓말은? 만약 코른 교수를 악마의 자식이요 거짓의 대가라고 간주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아주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요?”

라위노가 로랑에게 눈길을 쫓은 채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처음이니까 이 정도만 해 두자. 일단 장전은 잘 됐어.’

스스로 흡족하게 여기면서 작별 인사도 없이 나갔다.

로랑은 그가 나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앉은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후 라위노는 예수회 식의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저녁마다 그녀에게 나타났다. 로랑의 도덕적 기반과 더불어 심리를 뒤흔들어 놓기는 라위노가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일이었다.

로랑이 정말로 뺨속까지 고통스러워했다. 나흘째 되는 날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불같은 얼굴로 일어나서 소리쳤다.

“나가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그 장면에 라위노가 진짜 만족감을 맛봤다.

특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좋아지는군요. 이전보다 더 솔직해졌어요.”

“나가라니까요!”

로랑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재촉했다.

‘대단해. 안 나가면 주먹질까지 하겠는걸.’

의사가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면서 밖으로 나갔다.

사실, 주먹질까지 할 정도로 로랑의 정신이 극히 혼미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 건강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 혼자 남게 됐을 때 그녀는 정신 자락을 쥐는 것도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한데 라위노는 결말을 앞당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저녁마다 흐느끼는 노랫소리가 로랑을 쫓아 다녔다. 그건 그녀가 모르는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어디선가 첼로가 통곡하는 듯했다. 소리는 때때로 바이올린의 고음까지 올라갔다가 즉각 높이만이 아니라 음색까지 바뀌어서 마치 맑고 매혹적이지만 슬픔이 절절한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기까지 했다. 가슴을 후비어 파고드는 멜로디는 그렇게 순환하면서 끝도 없이 반복됐다.

그 음악을 듣고 로랑이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이 어찌나 달콤하고 애잔한지, 의아하게 여기기 시작했었다. 어디선가 정말 연주를 하는 건가? 아니면 환청이 커지는 건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음악은 사람을 홀리는 듯이 똑같은 순환을 되풀이했다. 첼로가 바이올린으로 변하고, 바이올린이 통곡하는 목소리로 바뀌고... 하나의 음정이 반주 안에서 슬프게 울렸다. 한 시간이 지나서 로랑은 음악 소리 따위는 실제로 없으며 단지 자기 머릿속에서만 울리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구슬픈 가락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귀를 틀어막았지만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다. 첼로, 바이올린, 목소리... 첼로, 바이올린, 목소리...

“저 소리 때문에 정말 미칠 수도 있겠어.”

로랑이 중얼거렸다. 음악 소리를 막으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혼자 크게 소리 내어 말도 해 보았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그 음악 소리는 꿈에서도 쫓아다녔다.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뜨고 첼로와 바이올린, 사람 목소리... 첼로와 바이올린, 사람 목소리의 끝없는 반복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사람들이 저렇게 쉴 새 없이 연주하고 노래할 수는 없어. 저건 분명히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야... 사악한 힘이 사람을 미몽에 빠뜨리려고 드는 거야.’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서둘러 정원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나 멜로디는 이미 집요한 생각으로 바뀌었다. 로랑은 실제로 울리지 않는 음악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단지 정원을 어슬렁거리는 광인들의 비명과 신음, 웃음 따위가 그 소리를 약간 희미하게 할 뿐이었다.

20. 신입 환자

마리 로랑의 신경계가 서서히 망가져 갔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됐다. 한번은 산보하면서 제 손으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어찌나 골몰했는지 어떤 광인이 길을 건너 다가오면서 뭐라고 지껄이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불가사의는 모르는 게 좋아. 물론 그건 다 감상적인 거지.”

로랑이 놀라서 흠칫 몸을 떨며 상대방을 쳐다봤다. 그 사람도 다른 환자들처럼 잿빛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보기 좋은 몸매에 키가 훗칠하고 잘 생기고 능름한 얼굴이 금방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새로 온 환자인 모양이야.’ - 그녀가 생각했다. ‘면도한 지 닳새도 안 됐네. 한데 이 얼굴을 보니까 왜 누군가가 떠오르지?..’

문득 젊은이가 빠른 말로 속삭였다.

“당신을 압니다. 마드무아젤 로랑이지요? 당신 어머니 집에서 초상화를 봤어요.”

“나를 어떻게 알지요? 당신은 누군가요?”

로랑이 놀라서 물었다.

“세상은 아주 좁아. 나는 내 형제의 형제야. 나의 형제는 나인가?”

젊은이가 소리 높여 외쳤다.

남자 간호사가 눈에 띄지 않지만 주의 깊게 그를 주시하면서 옆으로 지나갔다.

간호사가 저만치 사라지자 젊은이가 다시 빠른 말로 속삭였다.

“나는 아르투아 도웰입니다. 도웰 교수의 아들이지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단지 미친 척하는 것일...”

간호사가 다시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아르투아가 갑자기 로랑한테서 멀어지며 외쳤다.

“나의 죽은 형이 여기 있다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너는 죽은 뒤 내 안에 들어왔지. 우리는 쌍둥이였어. 그러나 내가 아니라 네가 죽은 거야!!”

도웰은 그 뜻하지 않은 습격에 놀란 어떤 우울증 환자를 뒤쫓아 갔다. 난폭한 환자가 체수 작고 빈약한 우울증 환자를 건드릴까봐 남자 간호사가 그들 뒤를 또 쫓아갔다. 그렇게 그들이 정원 가장자리까지 달려간 뒤 도웰은 쫓아가던 환자를 포기하고 다시 로랑에게 돌아왔다. 그는 간호사보다 더 빨리 달렸다. 로랑 곁을 지나치면서 도웰이 달리는 속도를 줄이고 하던 말을 끝냈다.

“당신을 구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오늘 밤 탈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쪽으로 풀쩍 뛰어가더니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어떤 비정상적인 노파 주변을 맴돌면서 춤을 추었다. 춤을 끝내고는 장의자에 걸터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그의 연기가 어찌나 그럴싸했든지 로랑은 도웰이 정말 미친 사람 흉내만 내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마음에 희망이 떠올랐다. 그 젊은이가 도웰 교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잿빛 환자복과 면도하지 않은 얼굴 때문에 ‘개성이 상당히 죽긴’ 했어도, 부친과 닮았다는 것이 이제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초상화로 그녀를 알아보았다. 어머니를 찾아갔던 게 분명했다. 그런 일이 다 실제와

비슷했다. 어쨌든 이날 밤 로랑은 잠자리에 들지 않은 채 뜻밖의 구원자를 기다리기로 했다.

구원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그녀가 용기를 내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 마치 끈적한 악몽을 꾸다가 막 잠이 깬 것만 같았다.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노랫소리마저 더 조용해지고 멀리 사라져 허공에서 녹아 없어지게 됐다. 로랑이 음울한 지하실에서 신선한 대기로 막 나온 사람처럼 심호흡을 했다. 삶의 욕망이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힘으로 갑자기 그녀 안에서 타올랐다. 어찌나 기쁜지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조심해야 했다.

조반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그녀는 짐짓 우울한 얼굴을 하려고 애쓰면서 병동으로 발을 옮겼다. 그건 사실 최근에 늘 짓는 표정이었다.

입구 곁에 여느 때처럼 라위노 의사가 서 있었다. 그는 산책에서 감방으로 돌아오는 죄수들을 감시하는 옥지기처럼 환자들을 지켜보았다. 가운 밑에 숨긴 돌멩이며 찢어진 가운, 환자들의 팔과 얼굴에 할퀴 자국 등 아무리 사소한 것조차 그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환자들의 표정을 유독 주의 깊게 살피곤 했다.

로랑의 라위노의 곁을 지나치면서 그를 보지 않으려고 눈길을 내려뜨렸다. 얼른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잠깐 그녀를 세우고는 더 예리한 눈길로 얼굴을 들여다봤다.

“기분이 어떻소?”

“늘 그래요.”

“이건 또 무엇을 위한 어떤 거짓말이요?”

그녀가 지나가도록 하면서 그가 비아냥거리며 묻고는 뒤에 대고 덧붙였다.

“저녁에 우린 또 얘기를 나눌 거요.”

그녀가 지나간 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울한 얼굴을 기대했건만, 뭔가 들뜬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녀의 생각과 기분에서 내가 뭔가를 본 것일까? 그게 뭔지 찾아내야지...’

그리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 저녁에 그가 왔다. 그 만남을 로랑이 아주 겁냈다. 잘 견디기만 한다면 이 만남도 마지막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이제 그녀는 라위노 의사를 속으로 '대심문관'이라고 불렀다. 사실 몇 백 년 전에 살았다면 그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궤변과 꼬치꼬치 파고드는 심문, 예상치 못한 함정 질문들, 심리에 정통한 지식, 그리고 악마 같은 분석 따위를 그녀가 다 두려워했다. 그는 진정 '위대한 논리학자'요 현대판 메피스토펠레스였다. 그래서 모든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고 가장 확고한 진리들을 의심케 하여 약화시키는 재간이 뛰어났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파멸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의지를 다 모아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것도 역시 위험한 행보였다. 그건 노골적인 전쟁의 선포요, 공격의 강화를 초래하고야 말 마지막 자기방어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라위노가 와서 여느 때처럼 휘둥그런 눈으로 쏘아보면서

“자, 무엇을 위해 당신은 거짓말을 했지요?”

하고 물었을 때, 로랑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입술이 굳게 맞물리고 두 눈은 바닥을 향했다. 라위노가 예의 종교재판 식 심문을 개시했다. 로랑의 얼굴이 백짓장처럼 허영게 됐다가 별걸게 달아오르기도 했지만, 종내 입을 열지 않았다. 라위노가 인내심을 잃고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건 그에게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가 비웃듯이 말했다.

“침묵은 금이라. 자신의 가치를 다 희생하면서도 당신은 목소리 없는 짐승들과 완전한 백치들의 미덕이라도 간직하고 싶은가 보구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요. 침묵에는 폭발이 뒤따르지. 폭로적 달변의 안전밸브를 열지 않는다면 당신은 증오심으로 폭발할 것이요. 그리고 침묵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런다고 내가 당신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줄 아시오? 당신은 지금 '넌 나를 미치게 하려고 들지만 그렇게 안 될 걸.' 하고 생각하고 있소. 자, 우린 터놓고 얘기하게 될 거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귀여운 아가씨.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기가 나한테는 회중시계를 고장 내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이 복잡하지 않은 기계의 부품들을 난 속속들이 알고 있소. 저항하면 할수록, 당신은 광기의 암흑으로 걸잡을 수 없이 더 깊게 빠져들 거요.”

‘이천 사백 예순 하나, 이천 사백 예순 둘...’

라위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로랑이 계속 숫자를 헤아렸다.

간병인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이 고문이 얼마나 길어졌을지 모른다.

“들어오시오.”

라위노가 투명스레 말했다.

“7 번 병상의 환자가 죽은 것 같아요.”

간병하는 여자가 말했다. 라위노가 마지못해 일어났다.

“죽는 게 차라리 더 낫지.” - 그가 나직하게 투덜거렸다. “내일 우리의 흥미로운 대화를 마칩시다.”

로랑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말하고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고 나갔다.

로랑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 맥없이 탁자 위에 엎어졌다.

한데 벽 저편에서는 한없이 구슬픈 음악이 벌써 통곡하고 있었다. 그 매력적인 음악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로랑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분에 젖게 됐다. 아르투아 도웰과 만나기로 한 것도 이젠 그저 병적인 상상의 헛소리만으로 보이고, 어떤 투쟁도 소용없는 짓인 것만 같았다. 죽음, 오직 죽음만이 그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녀가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그러나 환자들의 자살은 라위노 의사의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목매달 것조차 하나 없었다. 불현듯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안 돼, 이건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비록 이 마지막 밤을... 도웰을 기다리겠어. 만일 그가 오지 못한다면...’

더 이상 생각을 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온몸으로 감지했다.

21. 탈주

그날 밤은 로랑이 라위노 의사의 사설 병원에서 지금까지 보낸 기간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시간이 방으로 흘러드는 익숙한 음악처럼 끝없이 지겹게 늘어졌다.

로랑이 창문에서 방문으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다. 복도에서 조심스레 내딛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근거리다가 얼어붙었다. 그간 당직 간병인의 발소리였다. 간병인은 문틈으로 들여다보려고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들곤 했다. 이백 측파리 전구가 밤새 방안을 밝히고 있었다. 라위노 의사는 '손봐야 할 환자들'에게는 잠시라도 숙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로랑이 옷도 벗지 않은 채 서둘러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척했다. 그리고 흔치 않은 일이 그녀에게 생겼다. 몇 날 밤을 불면으로 시달린 그녀가 깜빡 잠들고 말았다. 그 동안 겪은 일들로 인해 녹초가 될 정도였던 것이다. 잠든 시간은 불과 몇 분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밤이 다 지나간 것 같았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 문가로 달려갔다가 마침 들어서는 아르투아 도웰과 부딪쳤다. 그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녀가 터져 나오려는 환성을 간신히 참았다.

"서둘러요." - 그가 속삭였다. "간병인이 서쪽 복도에 있어요. 빨리 갑시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이끌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들의 신음과 비명이 그들의 발소리를 덮어 주었다. 한없이 길기만 한 복도의 끝이 나왔다. 마침내 건물 출구가 나왔다.

"정원에 경비들이 있지만, 피해서 빠져나갈 거예요..."

도웰이 로랑을 정원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면서 빠른 말로 속삭였다.

"하지만 개들이..."

"식사 때 남긴 빵과 고기를 계속 먹이면서 개들하고 친해졌어요. 난 여기 온 지 벌써 며칠 되지만,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당신과의 접촉을 피했지요."

정원은 먹물을 뿌린 것처럼 캄캄했다. 그러나 석조 담장을 따라 감옥 주변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워진 가로등 몇 개가 불빛을 뿜었다.

“저기 수풀이 있어요... 거기로 갑시다.”

갑자기 도웰이 풀밭에 엎드리면서 로랑의 손을 잡아당겼다. 그녀가 따라서 엎드렸다. 경비원 하나가 탈주자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경비원이 사라지자 그들이 담장에 들러붙었다.

어디선가 송아지만한 개 한 마리가 튀어나와 그들에게 뛰어오더니 도웰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가 빵 조각을 던졌다.

“봐요.” - 아르투아가 속삭였다. “가장 중요한 일을 조치해 놓았잖아요. 이제 저 담장을 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요?”

로랑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도웰이 딱 잘라 말했다.

“염려 놓으세요. 뒤따라 갈 테니.”

“담장을 넘은 뒤에는 어떡하지요?”

“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 준비돼 있어요. 자, 체조를 한다고 생각해요.”

도웰이 담장에 붙어서 두 손으로 받쳐 로랑이 꼭대기로 기어오르도록 도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경비원 하나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경보를 울렸다. 순식간에 온 정원에 불이 켜졌다. 경비원들과 개들이 서로 부르면서 탈주자들 쪽으로 쏘살같이 달려왔다.

“뛰어내려요!”

도웰이 재촉했고, 로랑이 놀라서 외쳤다.

“당신은?”

“어서 뛰어내려요!”

그가 소리를 지르자 로랑이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렸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를 받아 안았다.

아르투아 도웰이 경총 뛰어 손으로 담장 꼭대기를 움켜쥐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자 간호사 둘이 그의 발을 붙잡았다. 도웰은 그들을 한 손으로 끌어올릴

정도로 힘이 섰다. 하지만 다른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간호사들 위로 나뒹굴고 말았다.

담장 너머에서 시동 걸린 자동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얼른 떠나게들. 전 속력으로 달려!”

그가 간호사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소리쳤다.

자동차가 응답하여 부르릉거리면서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놓으시오. 내 발로 가겠소.”

도웰이 저항을 멈추고 말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 그의 팔을 단단히 움켜쥔 채 병동으로 데려갔다. 현관에 라위노가 가운 차림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다.

그가 간호사들에게 명령했다.

“독방으로 데려가라. 구속복을 입히고!”

도웰을 창문이 없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사방 벽과 바닥이 매트리스로 덮였다.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키면 여기다 집어넣었다. 간호사들이 도웰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들 뒤로 라위노가 독방에 들어섰다. 더 이상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두 손을 가운 주머니에 찌른 채, 도웰 위로 허리를 굽혀 둥그런 눈으로 쏘아보기 시작했다. 도웰이 그 눈길을 마주보았다. 라위노가 고개를 까닥이자 간호사들이 나갔다.

도웰에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미치광이 시늬는 쓸 만했어, 하지만 나를 속이기는 어렵지. 당신이 여기 온 첫날 난 알아봤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의도를 짐작하지는 못했어. 당신과 로랑은 이 장난질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걸세.”

“당신보다 더 비싸게 치르지는 않을 거요.”

도웰이 대꾸했다. 라위노가 바퀴벌레 같은 수염을 꿈틀거렸다.

“위협인가?”

“위협이야.”

도웰이 간결하게 내뱉었다.

“나에게 맞서기는 힘들 걸. 당신 같은 애송이들은 상대가 안 돼. 당국에 고발한다고? 조용없네, 친구. 게다가 당국이 급습하기 전에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 한데 진짜 이름이 뭔가? 뒤바리는 가명일 테고.”

“아르투아 도웰, 도웰 교수의 아들이오.”

라위노가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알게 되어 큰 영광이오.” - 그가 당혹감을 감추려고 조롱하는 말투를 취했다. “난 당신의 존경받는 부친과 아는 사이였네.”

“내 손이 묶여 있는 걸 신에게 감사하십시오.” - 도웰이 쓰아붙였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혼 좀 낫을 거요. 그리고 내 부친의 함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오... 쓰레기 같으니!”

“당신이 아직도 한참이나 단단히 묶여 있을 테니, 신에게 크게 감사해야겠군, 나의 귀중한 손님이여!”

라위노가 팩 돌아서서 나갔다. 자물쇠가 덜컥 소리를 냈다. 도웰이 혼자 남았다.

그는 별로 염려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그냥 놓아두지 않고 이 감옥에서 빼낼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위험한 처지에 빠졌다는 것은 알았다.

라위노는 도웰과의 싸움 결과에 자신의 사업이 전적으로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했다. 라위노가 대화를 끊고 방에서 훌쩍 나간 데는 이유가 있었다. 심리 파악에 능한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 금방 헤아렸고, 종교재판관 식의 재능을 적용하려 들지도 않았다. 아르투아 도웰과는 심리전이나 말이 아니라 단호한 행동으로만 싸워야 했던 것이다.

22. 생사의 기로에서

아르투아가 자신을 묶고 있는 줄의 매듭을 느슨하게 했다. 구속복(Strait jacket)으로 그를 퐁퐁 덮어씌울 때 일부러 근육을 긴장시켜 부풀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구속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감시를 받고 있었다. 손을 빼려고 하는 순간 자물쇠가 철컥 울리더니 문이 열리고 우악스럽게 생긴 간호사 둘이 들어와서 그를 다시 퐁퐁 묶었다. 이번에는 구속복 위에다 또 가죽 끈으로 칭칭 동였다. 간호사들은 암전히 굴지 않고 또 밧줄을 풀려고 했다가는 두들겨 맞을 것이라고 울러댔다. 도웰이 잠자코 있었다. 그들이 나갔다.

독방에는 창문이 없고 천장에 달린 전깃불이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도웰이 아침이 됐는지 몰랐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라위노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목이 말랐다. 곧 심한 공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굶겨 죽일 작정인가?’

배가 몹시 고팠지만 먹을 것을 청하지 않았다. 만일 라위노가 굶겨 죽이기로 했다면, 부탁해봤자 초라한 꼴만 될 터였다.

라위노가 그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줄을 도웰은 몰랐다. 그리고 라위노에겐 불만스럽게도 도웰은 이 시험을 이겨냈다.

배고픔과 갈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잠을 못 잔 그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잠이 들었다. 태평하게 쿨쿨 단잠을 잤다. 그것이 라위노에게 새로운 불쾌감을 준다는 것도 전혀 모른 채. 눈부신 램프 불빛도, 라위노의 음악 고문도 도웰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자 라위노는 의지력이 굳은 기질들에게 쓰는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다. 옆방에서 간호사들이 나무 마치로 철판을 두드리고 특별히 제작한 딸랑이를 흔들며 날카로운 소리를 요란하게 내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굉음이 울리면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대개는 잠을 깨고 두려움에 떨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했다. 그러나 도웰은 정말 강한 사람인 모양이었다. 여전히 어린애처럼 자고 있었다. 이 흔치 않은 케이스에 라위노마저 혀를 내둘렀다.

‘경악할 일이군. 저자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천사들의 나팔소리에도 깨지 않을 거야.’

“됐어, 그만해라!”

그가 간호사들에게 고향을 지르자 지옥의 굉음이 멈췄다.

그런데 사실 그 끔찍한 굉음 때문에 도웰이 잠에서 깬다는 것을 라위노는 몰랐다. 그러나 강한 의지의 소유자인 도웰은 의식이 퍼뜩 돌아온 순간 자신을 잘 통제하여 한숨 하나 내쉬지 않고 뒤척이지도 않음으로써 자기가 잠에서 깬다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

‘도웰은 물리적으로만 주무를 수 있다.’

그게 라위노가 내린 선고였다.

한데 도웰은 굉음이 멈추자 다시 진짜 잠이 들어서 저녁까지 내쳐 잤다. 그렇게 한잠을 자고 일어나니 심신이 상쾌하고 기운이 돋았다. 배고픔도 이전보다는 덜 힘들게 느껴졌다. 눈을 뜬 채 누워서 미소를 머금고 문에 난 감시 구멍을 쳐다봤다. 누군가의 둥그런 눈이 안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적을 자극하려고 아르투아가 일부러 명랑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건 라위노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꺾을 수 없는 의지도 있다는 것을 살면서 처음 실감했다.空空 뉘인 채 고립무원 상태로 바닥에 팽개쳐진 자가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방안을 주시하던 눈동자가 사라졌다.

눈동자가 사라진 뒤에도 도웰이 계속 노래를 더 크게 불렀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이 콧 막혔다. 뭔가가 목구멍을 심하게 자극했다. 코를 빼고 쿵쿵 냄새를 맡았다. 목구멍과 콧구멍이 간질거리고 금방 눈에서 바늘로 찌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냄새가 더 심해졌다.

도웰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죽을 때가 됐음을 깨달았다. 라위노가 화학전을 감행한 것이다. 염소 기체가 방안에 낮게 깔렸다. 도웰은 자신을 움아매고 있는 가죽 끈과 구속복에서 벗어날 힘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보존 본능이 이성의 논거보다 더 강했다. 믿기 어려운 힘을 동원하여 올라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질했다.

벌레처럼 온몸을 잔뜩 웅크렸다가 펴고 뱅뱅 돌고 벽에서 벽으로 대굴대굴 굴렀다. 그러나 비명을 지르지 않고 도와 달라고 기도도 않고 이를 옥다문 채 침묵했다. 희미해진 의식은 이미 몸을 통제하지 못했고, 본능 하나가 몸을 보호했다.

그러는 중에 불빛이 스러지고 도웰은 다시 어디론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머릿결을 건드리는 신선한 바람이 그에게 희미하게나마 의식을 불어넣었다. 그가 비상한 의지력을 끌어 모아 눈을 뜨려고 애썼다. 한순간 어떤 아는 얼굴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아르망인가...’

그러나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통증으로 빠개지는 것 같았다.

‘잠꼬대를 하는 거야,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군.’

그의 눈꺼풀이 닫혔다가 곧 다시 열렸다. 한낮의 햇살에 눈이 몹시 부셨다. 아르투아가 실눈을 떴다.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기분이 어때요?”

아르투아 도웰의 따갑고 화끈거리는 눈꺼풀 위에 물을 적신 솜뭉치가 얹혔다. 눈을 좀 더 크게 뜨고서야 아르투아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로랑을 알아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미소를 짓고 주변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때 브리케가 누워 있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난 아직 안 죽었나요?”

도웰이 희미한 소리로 물었다. 로랑이 대답했다.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음 직전까지 갔었지요.”

옆방에서 급히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 아르망이 나타났다. 그가 손을 흔들면서 외쳤다.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네!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거지? 이보게, 친구! 어떤가?”

“고맙네.”

도웰이 대답하다가 가슴의 통증을 느끼고 덧붙였다.

“머리가 아파... 가슴도...”

아르망이 주의를 주었다.

“말수를 줄이게. 자네한테 해로워. 그 악당 라위노가 자네를 선창(船倉)에 갇힌 쥐처럼 가스로 독살하려고 했지 뭐가. 하지만 우리가 그자의 악행을 참으로 멋지게 막아냈지, 아르투아.”

그러면서 아르망이 의기양양하여 웃음을 터뜨리려 하자 로랑이 나무라는 눈길로 그를 쳐다봤다. 그의 너무 요란한 기쁨이 병자의 평정을 깰까 우려한 것이다.

“안 그럴게요, 안 그러겠어.”

그녀의 눈총을 받고서 아르망이 웃음기를 거두었다.

“이제 자초지종을 들려주겠네. 마드무아젤 로랑을 받아 안고서 기다리다가 자네가 뒤따라 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어...”

“자네들... 내가 외치는 소릴 들었나?”

아르투아가 물었다.

“들었네. 입을 다물고 있게! 우리는 라위노가 추격대를 보내기 전에 서둘러 차를 몰았지. 자네하고 격투를 벌이는 통에 그의 개떼가 늦게 출발했어. 그 점에서 자네는 우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데 큰 도움을 준 거야. 자네가 거기서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린 훤히 알고 있었지. 이제 공공연한 싸움이 된 거야. 우린, 그러니까 나하고 샤우브는 최대한 빨리 자네를 도우러 가려고 했네. 하지만 먼저 마드무아젤 로랑을 안전하게 모시고 나서 자네를 구하는 계획을 짜고 행동에 돌입해야 했던 걸세. 자네가 포로로 잡히리라고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석조 담장 안으로 침입해야 했지, 근데 자네도 알다시피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린 이렇게 움직이기로 했네. 즉, 나하고 샤우브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가서 위생검열 나왔다고 밝힌 거야. 샤우브가 갖가지 관인이 찍힌 명령서까지 작성했어. 다행히 정문에는 늘 지키는 경비가 아니라 간호사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자는 누구든 안으로 들여놓으려면 사전에 전화를 걸어 알려야 한다고 라위노가 내린 지시를 몰랐던 모양이야.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한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잠꼬대가 아니었군...” - 아르투아가 말을 가로챘다. “경찰 제복 차림의 자네를 보고 자동차 소리를 들었던 것이 기억나.”

“그래, 그렇지, 자동차에서 신선한 공기를 쐬게 하자 자네가 정신이 든 거야. 하지만 금방 다시 의식을 잃었어. 자, 계속 더 들어보게. 간호사가 문을 열어서 우리가 들어갔네. 나머지 일은 우리 짐작보다는 쉽지 않았지만 그리 어렵지도 않았어. 라위노의 집무실로 우리를 안내하라고 요구했지. 근데 우리의 요구를 받은 두 번째 간호사는 경험이 많은 녀석임이 틀림없네. 그자는 우리를 수상하게 여기고 보고하겠다고면서 건물로 들어갔어. 몇 분 뒤 매부리코에 대모테 안경을 걸친 자가 흰 가운을 입고 나오더군...”

“라위노의 조수, 의사 부시아.”

아르망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다.

“그는 라위노 의사가 바쁘니 대신 자기가 우리와 얘기 나눌 수 있다고 하더군. 반드시 라위노를 봐야 한다고 내가 고집 부렸지. 부시는 라위노가 중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는 거야. 그러자 샤우브가 더 많이 생각도 않고 부시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아르망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쥐었다.

“이렇게 비틀었네. 비명을 지르는 부시를 남겨두고 우리는 병동으로 들어섰어. 근데, 젠장, 라위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운 좋게도 그자가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는 거야. 자네를 정신병자라 하고 입원시킬 때 본 적이 있어서 그자임을 금방 알았지. ‘무슨 일입니까?’ 그가 날카롭게 묻더군. 우리는 더 이상 연극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고 라위노에게 다가가서 리볼버를 꺼내 이마에 겨눴지. 그러나 뒤따라온 부시가 그 순간 샤우브의 손목을 내리친 거야. 그 비실비실한 주먹코 늙은이한테서 그런 민첩함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그것도 강하게 일격을 가하는 바람에 샤우브가 리볼버를 떨어뜨렸어. 그 틈에 라위노는 내 손을 움켜쥐었지. 그리고 한바탕 소동이 시작됐는데, 그걸 조리 있게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야.

라위노와 부시를 도우러 어느 새 간호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더군. 그자들 수효가 제법 많아서 우리를 간단히 제압할 수도 있었어.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 제복에 많은 자들이 머뭇거리더군. 경찰에 대항하면, 그것도 권력의 대표자에게 물리력을 동원하면

중벌을 받는다는 걸 그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라위노가 '저자들 제복은 가짜야!'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그저 지켜보는 입장을 택했고 몇 놈들만이 신성불가침의 경찰 제복에 손을 대려고 들었지. 그자들한테는 없는 피스톨이 우리의 두 번째 에이스였네. 아, 우리의 완력과 민첩함, 필사적인 자세도 그에 못지않은 에이스였을 거야. 그래서 양측의 전력이 비슷해진 거지.

떨어뜨린 리볼버를 주우려고 샤우브가 허리를 굽히자 간호사 한 놈이 그 위로 올라탔지. 알고 보니 샤우브는 종합 격투기의 대가더군. 등 뒤로 덮친 놈을 떼어낸 뒤 낮쪽에 정타를 몇 방 날렸어. 그러면서도 어떤 녀석이 주우려고 손을 뻗는 걸 보고 떨어져 있는 리볼버를 발로 가볍게 밀어내기까지 했어. 공정하게 말해서, 샤우브는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싸웠네.

나한테도 간호사 두 녀석이 매달렸어. 샤우브가 없었다면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났을지 몰라. 그가 정말 잘 대처했네. 리볼버를 어렵사리 주워 들더니 더 이상 망설이지도 않고 발사했다네. 몇 발에 간호사들의 열기가 팍 수그러들었어. 개중 한 놈이 피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으면서 비명을 내지른 뒤로 다른 자들은 삼시간에 자위를 감추고 말았네. 하지만 라위노는 쉽게 굴하지 않더군. 우리가 양쪽에서 관자놀이에 리볼버를 들이대는데도 그자는 오히려 호통을 치는 거야. '나한테도 무기가 있어.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당신들을 쏘라고 지시하겠소!'

그러자 샤우브가 영양가 없는 말들은 걷어치우고 라위노의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네. 그 기술을 걸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덩치 큰 깡패들도 하마처럼 울부짖으며 온순하고 고분고분해질 정도야. 라위노의 손목에서 뼈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더군. 그런데도 그자는 여전히 버티지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간호사들에게 계속 소리치는 거야. '너희들, 보기만 하고 있냐? 무기를 가져와라!' 몇 놈이 달려가더군, 무기를 가지러 가는 거겠지. 그리고 다른 몇 놈은 우리에게 슬금슬금 다가들었어. 내가 라위노의 머리통에 대고 있던 리볼버로 그자들을 향해 몇 발 날렸지. 놈들이 다시 기겁하고, 한 놈은 비명을 내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졌어..."

아르망이 숨을 돌렸다.

"그래, 정말 화끈했어. 라위노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점점 힘이 빠지는데, 샤우브는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지. 라위노가 안간힘을 다해 봐야 별 수 있나, 결국

아파서 몸을 배배 꼬며 잠긴 목소리로 울부짖더군. '원하는 게 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르투아 도웰을 당장 내놓아라.' 그러자 그자는 이를 갈면서 그러더군. '난 당연히 당신 얼굴을 알아보았어. 손목 좀 놓아주시오, 빌어먹을! 그가 있는 데로 안내할 테니...'

샤우브가 벌써 의식을 잃어가는 그자의 손목을 정신이 돌아오게끔 조금씩 풀어 주었어. 라위노가 우리를 자네가 갇혀 있던 독방으로 안내해서 눈짓으로 열쇠를 가리켰지. 내가 문을 열고 라위노와 샤우브와 함께 들어섰어. 참으로 즐겁지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포대기에 싸인 갓난애처럼 구속복에 덮인 자네가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꿈틀거리는데, 아아, 절반쯤 발에 밟힌 벌레와 다를 바가 없었네. 방안에는 염소 가스가 자욱해서 가슴이 오그라들고 목구멍이 죄어들었다네. 물론 냄새도 지독했지.

샤우브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고 턱 밑으로 가벼운 펀치를 날리자 의사는 썩은 가마니처럼 바닥에 푹 고꾸라지더군. 우리도 숨 쉬기가 어려워 헐떡거리면서 자네를 빼낸 뒤 문을 꽁 닫았네."

"라위노는? 그가..."

"헐떡이기는 해도 질식해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 하지만 우리가 떠난 뒤에 일꾼들이 그자를 빼냈을 거야... 그 지옥에서 우리가 그래도 무사히 빠져나온 셈이야, 남은 총알을 개들한테 쏠 수밖에 없었던 일만 제외하면... 그리고 자네가 여기 있게 된 거네."

"내가 의식을 잃은 지 오래 됐나?"

"열 시간. 의사는 자네 맥박과 호흡이 돌아온 뒤 조금 전에 돌아갔는데,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더군. 이제, 이보게..."

아르망이 손바닥을 문지르면서 말을 이었다.

"세상을 별걱 뒤집어 놓을 만한 재판이 남아 있네. 라위노는 코른 교수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을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네."

"하지만, 살았든 죽었든, 내 부친의 머리를 먼저 찾아야 해."

아르투아가 나직이 말했다.

23. 다시 몸뚱이를 잃다.

예상치도 않았는데 브리케가 돌아오자 코른 교수는 어찌나 반가웠는지 그녀를 욕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하기야 그럴 겨를도 없었다. 존이 브리케를 안아 옮겨야 했다. 그녀는 통증 때문에 신음을 연발했다.

“의사 선생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 코른을 보고서 그녀가 말했다. “당신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야.”

존이 도망자를 침대에 눕히도록 거들면서 코른이 쓰아붙였다.

“맙소사, 아직 외투도 안 벗었네.”

“내가 도와주지.”

코른이 브리케의 외투를 조심스레 벗기면서 노련한 눈길로 살살이 살폈다. 그녀의 얼굴이 놀라우리만치 젊고 신선해졌다. 주름 자국도 하나 없는 걸 보면서 코른이 생각했다.

‘내분비선들이 작용한 거야. 안젤리카의 젊은 몸이 브리케의 머리통을 젊게 만들었군.’

시체 안치소에서 누구의 몸뚱이를 빼내야 할지 코른 교수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신문들을 주의 깊게 훑었고 ‘행방불명된’ 안젤리카의 수색 기사를 읽으면서 냉소를 지었었다.

“조심해요... 발이 아파요.”

코른이 옆으로 돌려 눕히려 하자 브리케가 이맛살을 구겼다.

“너무 많이 뛰어 다녔군! 내가 경고하지 않았던가요.”

간병인이 들어왔다. 무딘 표정에 주글주글한 노파였다.

“그녀의 옷을 벗기시오.”

코른이 고갯짓으로 브리케를 가리켰다.

“마드무아젤 로랑은 어디 있지요?”

브리케가 의아하여 물었다.

“여기에 없소. 병이 났지.”

코른이 몸을 돌려 침대 등받이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고는 방에서 나갔다.

“여기서 오래 일했어요?”

브리케가 새 간병인에게 물었다.

노파가 자기 입을 가리키면서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를 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브리케가 나름대로 짐작했다.

‘병어리인가 봐. 그러면 얘기 나눌 사람이 없는데...’

간병인이 말없이 외투를 치우고 나갔다.

코른이 다시 나타났다.

“발을 보여주세요.”

“춤을 많이 추었어요.”

브리케가 고해성사 하듯이 입을 열었다.

“발바닥 상처가 금방 터졌지요. 그래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도 계속 춤을 추었던 말이에요?”

“아니요, 춤추기엔 아팠어요. 그러나 며칠 동안 테니스를 쳤어요. 정말 재미난 게임이야!”

코른이 브리케의 수다를 건성으로 들으면서 발을 찬찬히 살피고는 이맛살을 더 깊게 찌푸렸다. 정강이에서 무릎까지 툭툭 붓고 피가 시커멓게 죽었다. 몇 군데를 꼭꼭 눌렀다.

“아아, 아파요!..”

브리케가 비명을 내질렀다.

“열이 나나?”

“네, 엷저녁부터.”

“흠...”

코른이 시가를 꺼내 입에 물었다.

“아주 심각한 상태야.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꼴이 된 거요. 그래, 누구하고 테니스를 쳤소?”

브리케가 당황했다.

“어떤... 아는 청년하고요.”

“여기서 달아난 뒤로 당신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해주지 않겠소?”

“여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가 살아 있는 걸 보더니 경악하더군요. 내 부상은 치명적이 아니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지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머리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소?”

“물론, 안 했지요.” - 브리케가 확실하게 대답했다.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상했을 거예요.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걸요.”

코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 잘 됐군.’

“한데 내 다리는 어땡지요, 교수님?”

“잘라야 할 것 같소.”

브리케의 두 눈에 공포가 가득 찼다.

“다리를 자른다구요! 내 다리를? 나를 불구자로 만든다구요?”

어렵사리 구해서 살려낸 몸뚱이를 불구로 만들기엔 코른 본인도 원치 않았다. 게다가 불구자를 공개한다면 시연 효과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다리의 앰퓨테이션(amputation, 절단)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다리를 새로 만들 수는 없나요?”

“걱정 말아요. 내일까지 두고 봅시다. 다시 들르리다.”

코른이 나간 뒤 말없는 간병인이 다시 들어왔다. 멀건 수프가 담긴 사발과 토스트 조각을 내밀었다. 브리케는 식욕이 없었다. 열이 오르는 통에 간병인이 손짓과 표정으로 먹으라고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두 손가락쯤 뜨다가 그만뒀다.

“치워요. 넘어가지가 않아.”

간병인이 나갔다.

“먼저 체온을 재야 돼. 그런 간단한 일도 모른단 말이야? 벌써 말했잖소.”

옆방에서 코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간병인이 다시 들어와서 브리케에게 체온계를 내밀었다.

병자가 체온계를 순순히 겨드랑이에 꽂았다. 체온계를 빼어 보니 39 도였다.

간병인이 체온을 적고 병자 곁에 앉았다.

브리케는 간병인 노파의 둔하고 냉담한 얼굴이 보기 싫어서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고개 돌리는 동작 하나에도 다리와 아랫배에서 통증이 일었다. 브리케가 희미한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감고 아르망을 생각했다.

‘다정한 사람, 언제나 보게 될까?..’

저녁 아홉 시 열이 심해지고 헛소리까지 나왔다. 브리케는 요트 선실에 있는 것만 같았다. 파도의 출렁임이 커지면서 요트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구토를 동반하는 경련이 가슴에서 생기다가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아르망이 달려들어 목을 누른다. 그녀가 외마디를 내지르며 침대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축축하고 차가운 뭔가가 그녀의 이마와 가슴을 건드린다. 악몽이 사라진다.

아르망과 함께 테니스 코트에 있는 자신을 본다. 네트 너머에 푸른 바다가 있다. 태양이 사정없이 내리비치는 가운데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난다.

‘골치가 이렇게 아프지 않다면... 햇빛이 너무 강해!.. 공을 칠 수가 없어...’

스트로크를 하려고 라켓을 올리는 아르망의 동작을 그녀가 긴장하여 주시한다.

“플레이!”

선명한 햇살에 치아를 번뜩이면서 아르망이 외친다. 그러고는 그녀가 응답하기도 전에 공을 친다.

“아웃”

아르망의 실수를 좋아하면서 브리케가 큰 소리로 대답하고...

“아직도 테니스를 치시나?”

누군가의 기분 나쁜 목소리를 듣고서 눈을 뜬다. 눈앞에서 코른이 허리를 굽히고 그녀의 손을 쥐고 있다. 맥박을 잴다. 그리고는 그녀의 다리를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몇 시나 됐어요?”

브리케가 간신히 혀를 놀려 묻는다.

“밤 한 시. 이봐요, 춤추는 아가씨, 앰퓨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겠는걸.”

“그게 무슨 뜻이지요?”

“잘라내야 한다는 뜻이오.”

“언제요?”

“당장. 한 시간이라도 더 지체했다간 온몸이 감염될 거야.”

브리케의 머릿속이 뒤엉킨다. 코른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리는 것 같고,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많이 잘라야 하나요?”

거의 남의 일처럼 그녀가 말한다.

“이 정도까지.”

코른이 자기 하복부 아래 허벅지에 손바닥을 가져다댄다. 그 손짓을 보고 브리케의 복부가 차가워진다. 그녀의 의식이 점차 더 또렷해진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싫어요! 그렇게는 안하겠어요!”

“죽기를 바라오?”

코른이 차분하게 묻는다.

“아니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아르망은 어떡하지요? 나를 사랑하는데...”

브리케가 더듬더듬 말을 잇는다.

“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한데 당신은 또 다시...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예요, 난 당신이 무서워! 살려 줘요! 나를 살려 줘요!..”

그녀가 다시 헛소리를 내지르면서 일어나려고 발작적으로 움직였다. 간병인 노파가 간신히 그녀를 제지했다. 곧 존이 달려와서 거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코른은 옆방에서 수술을 준비하느라고 빠르게 움직였다.

정확히 밤 두 시에 브리케를 수술대에 눕혔다. 그녀가 정신이 돌아와서 코른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사형 집행인을 보는 듯했다.

그러다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를 구해 줘요...”

그녀의 얼굴에 마스크가 덮였다. 간병인이 맥박을 잡았다. 존이 마스크를 더 바짝 씌웠다. 브리케가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속이 울렁댔다. 수술대에 누워 있던 장면을 희미하게 떠올렸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살짝 들어 다리를 보고는 나직한 신음을 토했다. 다리는 무릎 위에서 잘리고 붕대가 감겨 있었다. 코른이 약속을 지키기는 했다. ‘당신의 몸이 덜 기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의족을 달 수 있게끔 계산하여 위험한 절단 수술을 해냈다.

수술 다음 날 브리케는 비록 신열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온종일 기분이 괜찮았다. 코른은 고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다. 한 시간마다 들어서 다리를 살펴보곤 했다.

“다리가 없이 이제 난 뭘 하지요?”

맥없는 물음에 코른이 위로했다.

“걱정 말아요. 먼저보다 더 좋은 다리를 만들어 줄 테니. 춤도 추게 될 거야.”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워졌다. 절단 부위 위쪽이 붉은 색을 띠고 부어올랐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열이 높아졌다. 브리케가 몸을 뒤척이며 신음하고 헛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밤 열한 시 체온이 40.6 도까지 올라갔다.

코로나가 화가 나서 욕지거리를 해댔다. 혈액 전체에 감염이 시작된 게 분명했다. 그러자 브리케의 몸통을 구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전시물의 일부라도 구해야겠다고 작심했다.

'혈관을 전부 소독액과 생리 용액으로 씻어낸 뒤 신선하고 건강한 혈액을 주입하면, 머리는 살게 될 거야.'

브리케를 다시 수술대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브리케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서 예리한 외과용 메스가 첫 번째 수술 이후 남은 붉은 봉합 위의 목을 민첩하게 절개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 절단으로 인해 브리케의 머리가 매혹적인 젊은 몸뚱이에서 떨어져 나간 것만이 아니었다. 그 절단으로 인해 브리케는 온 세상에서, 그녀가 누리던 기쁨과 희망에서도 멀어지게 됐다.

24. 톰이 두 번째 죽다

톰의 머리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다. 톰은 의식 하나로 사는 삶에 적응하지 못했다. 살아 있다는 것을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그에겐 일하고 움직이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자신의 단단한 몸뚱이를 지치게 한 뒤 많이 먹고 폭 자는 것이 꼭 필요했다.

그는 자주 눈을 감고 상상에 잠겼다. 등을 쪽 펴고 무거운 자루들을 들어 나르는 상상. 그러면 자신의 팽팽한 근육들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이 얼마나 생생했든지 자신의 단단한 몸집을 보고 싶은 마음에 눈을 뜨곤 했다. 그러나 자신의 밑에는 이전처럼 탁자 다리들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마다 이를 부드득 갈고 다시 눈을 감았다.

기분을 돌리려고 고향 마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에겐 영원히 잃어버린 약혼녀도 떠올랐다. 코른에게 새 몸뚱이를 얼른 붙여 달라고 부탁한 것도 벌써 몇 차례, 코른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미루기만 했다.

“적당한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 조금만 더 참게나.”

“허접한 몸뚱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까지 간청한 것은, 다시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허접한 몸으로는 자네가 힘을 못 쓸 거야. 자네에겐 건강한 몸뚱이가 있어야 하네.”

툼이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에도 날짜는 쏜살같이 지나갔다. 한데 그의 머리는 여전히 높은 탁자 위에 우두커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특히 괴로웠다. 환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방이 빙글빙글 돌고 안개가 자욱이 퍼졌는데, 그 안개 속에서 말의 머리가 보였다. 태양이 떠올랐다. 마당에서는 개가 뛰어 다니고 닭들이 소란을 피웠고... 난데없이 어디선가 노호하는 화물차가 날아와 툼에게 달려들었다. 그런 장면은 끝도 없이 반복됐고, 툼은 수도 없이 죽었다.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숫자를 세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에게는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다가 한 가지 장난에 빠졌다. 공기의 흐름을 입속에 담아 두었다가 갑자기 입을 짝 벌리면, 공기가 재미난 소리를 내면서 빠져 나가는 것이었다.

그게 마음에 들어서 장난을 다시 시작했다.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저절로 빠져나갈 때까지 공기를 잔뜩 머금었다. 그러면서 툼이 혀의 방향을 돌리게 됐다. 그러자 아주 우스꽝스러운 소리들이 나왔다. 공기의 흐름을 몇 초 동안이나 붙잡아둘 수 있을까?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쉬-쉬-쉬’ 공기가 빠져 나갔다. 또 해 보았다. 열둘까지는 가야 해...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아홉... 열하나, 열 두우...

억눌렀던 공기가 갑자기 입천장을 거세게 때리는 바람에 툼은 자기 머리가 받침대에서 솟구치는 것처럼 느꼈다.

‘에헤, 탁자에서 날아오르나 봐.’

통이 결눈질로 보니, 피가 받침대의 유리 뚜껑을 흥건히 채우고는 마룻바닥으로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공기의 흐름 때문에 머리가 살짝 들리면서 목의 혈관들에 연결된 관들이 느슨해진 모양이었다. 통의 머리가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제 정말 끝장인가? 실제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머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이 살아 있는 산소를 옮기면서 머리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자기의 피를 보면서 자신이 천천히 사그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죽고 싶지 않았다! 의식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 코른이 약속한 새 몸뚱이를 기다려야 하는데...

통이 목 근육들에 힘을 빼서 자기 머리가 내려앉게 하려고 기를 쓰고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상황만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 관들의 유리 캡이 혈관들에서 더 많이 빠진 것이다. 희미해지는 의식을 다 끌어 모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살면서 한 번도 질러본 적이 없는 것처럼 비명을 토해 냈다.

그러나 그건 이미 비명이 아니었다. 그건 죽기 직전에 그르렁거리는 소리였을 뿐...

선잠이 들었던 존이 이상한 소리에 눈을 뜨고 방으로 달려왔을 때 통의 머리는 간신히 입술만 꿈쩍였다. 존이 머릿통을 최대한 제 자리에 맞춰 놓고 관들을 더 깊이 연결하고 피를 꼼꼼하게 닦아냈다. 그래야 간밤의 사건을 코른 교수가 알아차리지 못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몸에서 분리된 브리케의 머리가 예전 자기 자리에, 유리판이 달린 금속 탁자 위에 놓였다. 코른이 머리에 의식이 돌아오도록 했다.

그가 감염된 혈액의 잔재를 머리에서 말끔히 '씻어 내고' 섭씨 37 도로 덥혀진 신선하고 건강한 혈액을 주입하자 브리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몇 분 뒤 머리가 눈을 뜨고는 아직 뭐가 뭔지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코른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안간힘을 쓰면서 아래를 보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몸통이 또 없네..."

브리케의 머리가 중얼거렸고,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렁했다. 이제 머리는 그저 쉬쉬쉬 하는 소리만 낼 수 있었다. 성대가 이전 절개 부위 위에서 다시 잘린 것이었다.

그런 머리를 보면서 코른이 생각했다.

‘아주 좋아, 여러 관들에 습기가 금방 채워지는군, 눈물샘에 남은 습기만 아니라면. 하지만 귀중한 액체를 눈물로 잃어서는 안 되지.’

“울지 마, 슬퍼하지 말아요, 마드무아젤 브리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결과에 처하게 된 거요. 하지만 이전 것보다 더 좋은 몸통을 새로 붙여 주겠어. 며칠만 더 참으시오.”

그러고는 브리케의 머리에서 발을 돌려 톰의 머리로 다가갔다.

“그래, 우리 농장주는 어떻게 지내시나?”

코른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고 톰의 머리를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 외양이 영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피부는 거무튀튀하게 변하고 입이 반쯤 열렸다. 코른이 관들을 살피고는 존을 호되게 꾸짖었다.

“톰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이 둘러댔다.

“네가 자빠져 잤지, 밥통아!”

코른이 가까이서 머리통을 이리저리 만지기 시작했다.

“에그, 무서워라!...” - 브리케의 머리가 쉼 소리를 냈다. “그는 죽었어요. 난 죽은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 나도 죽을까봐 겁나... 근데 왜 죽었지요?”

“그녀의 공기 밸브를 닫아라!”

코른이 화를 내며 존에게 명령했다.

브리케가 하던 말을 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입술을 무기력하게 달싹이면서 간병인을 놀란 눈으로 애절하게 계속 쳐다봤다.

“이십 분 이내에 머리를 다시 살려내지 못하면, 내다버릴 수밖에 없지.”

코른이 진단을 내렸다.

십오 분이 지나서 머리통이 살아 있다는 징표를 조금 보였다. 눈꺼풀과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무감각하고 맥이 없었다. 다시 이 분이 지나자 머리통이 연결되지 않는 단어 몇 마디를 소리 냈다. 코른은 벌써 의기양양했다. 그러나 머리통이 갑자기 다시 입을 꼭 다물었다. 안면의 신경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코른이 체온계를 보았다.

“이건 시체의 온도야. 그럴 만도 하지!”

그러고는 브리케가 있다는 사실도 잊고는 무성한 머리털을 사납게 거머쥐어 탁자에서 떼어낸 뒤 커다란 금속 대야에 내던졌다.

“저걸 냉장고에 넣어라... 해부를 해야 할 거야.”

흑인이 재빨리 대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브리케의 머리통이 경악하여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주시했다.

서재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코른이 막 피우려던 시가를 바닥에 내던지고 문을 거칠게 닫고는 자기 서재로 갔다.

라위노의 전화였다. 그는 인편으로 급하게 편지를 보냈으며 코른이 벌써 받아 봐야 한다고 알렸다.

코른이 밑으로 내려가 현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냈다. 계단을 올라오면서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뜯어 읽기 시작했다. 라위노가 전한 바로는, 아르투아 도웰이 환자로 가장하여 자기 병원에 침입한 뒤 마드무아젤 로랑을 데리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코른이 발을 헛디뎈 계단에서 엎어질 뻔했다.

“아르투아 도웰!.. 교수의 아들... 그가 여기 있다고? 물론 그자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새로이 등장한 적은 코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코른이 서재에서 편지를 불태운 뒤 양탄자 위를 바장이면서 향후 행동 계획을 잡느라고 머리를 굴렸다. 도웰 교수의 머리를 없애야 하나? 그거야 언제든 손바닥 뒤집기다. 그러나 아직은 교수의 머리가 필요했다. 단지 이 증거물이 외부인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다. 언제든 경찰의 수색이 가능하고 적들이 그의 집으로 침입할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엔 브리케의 머리를 서둘러 시연에 내놓아야 했다. 승자들을 재단하는 법이란 없다. 로랑과 아르투아 도웰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일반의 인정과 존경의 아우라가 코른이라는 이름을 감싸면 그들과 싸우기가 더 쉬울 터였다.

코른이 수화기를 들고 학술 협회의 비서를 불러서 대회 개최를 협의하기 위해 들르라고 청했다. 그 대회에서 자신이 직접 최신의 연구 업적을 과시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유력 신문들의 편집부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 기자들을 보내라고 청했다.

'코른 교수의 위대한 발명을 둘러싸고 신문들이 마구 떠들도록 만들어야 해... 시연은 사흘쯤 뒤에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브리케의 머리가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고 몸통을 잃었다는 생각에 적응되겠지. 그렇다면, 이젠...'

코른이 실험실로 들어가서 서랍장들을 뒤져 주사기와 분젠등을 꺼내고 숨과 '파라핀'이라고 적힌 상자를 들고는 도웰 교수의 머리 쪽으로 발을 옮겼다.

25. 음모자들

아르망의 작은집이 아르투아 도웰과 아르망, 샤우브, 로랑 등 '음모자들'의 본부가 됐다. 전체 회의에서는 로랑이 위험하더라도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로랑이 한시 바빠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르망이 로랑 부인에게 가서 부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딸이 무사한 것을 보자 노부인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아르망이 부인의 팔을 잡아 소파에 앉혔다.

모녀가 삼층의 방 두 칸에 자리를 잡았다. 로랑 부인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자기 딸의 '구원자'인 아르투아 도웰이 여전히 병석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다소 퇴색됐다.

다행히도 그는 독가스의 후유증에 그리 오래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유난히 강건한 신체 기관들도 제 구실을 했다.

로랑 부인과 딸이 번갈아 병자의 침대 곁을 지켰다. 아르투아 도웰이 로랑 모녀와 아주 친해졌고, 마리 로랑은 그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했다. 아버지의 머리를 도울 힘이 없는 로랑이 이제 아들에게 정성을 쏟았다.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여겼다. 그러나 간병인의 자리를 마지못해 어머니에게 내주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아르투아 도웰은 처녀인 그녀의 순진한 상상을 놀라게 한 첫 남자였다. 그와의 앓은 낭만적 상황에서 벌어졌다. 즉, 그는 중세의 기사처럼 그녀를 라위노의 무시무시한 병원에서 구출한 것이다. 그의 부친의 비극적 운명은 그에게도 비극적으로 각인됐다. 그리고 용기와 힘, 젊음 같은 개인적 자질은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이 됐다.

아르투아 도웰 역시 마리 로랑을 정겨운 눈길로 맞이하곤 했다. 그는 자기감정을 더 잘 헤아렸고, 자신의 다정함이 살뜰한 간병인에 대한 병자의 의무만이 아니라는 점을 자신에게 숨기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의 다정한 눈길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로랑 부인은 딸의 선택을 전적으로 용인하는 게 분명한데도 아무 것도 모르는 체했다. 스포츠에 몰입하면서 여자들을 경멸적으로 대하는 샤우브는 속으로 아르투아를 가엾게 여겼고, 아르망은 남의 행복의 서광을 보면서 무겁게 한숨을 쉬고 자기도 모르게 안젤리카의 매혹적인 몸매를 떠올렸다. 그런데 이제 그 몸통에서 그는 안젤리카가 아니라 브리케의 머리를 더 자주 떠올렸다. 그런 '배신'을 두고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게 다 그저 관념연합의 법칙일 뿐이라고 합리화했다. 즉, 브리케의 머리가 어디서나 안젤리카의 몸을 쫓아다닌 것이라고.

아르투아 도웰은 의사가 걸어도 좋다고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러나 아르투아에게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하는 것만 허락됐고,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도웰의 폐를 각별히 돌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아르투아가 자의든 타의든 의장의 역할을 맡게 됐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간략하게 반박하거나 친구들 간의 '논쟁'을 요약하게 됐다.

한데 논쟁은 대체로 사나웠다. 아르망과 샤우브가 특히 뜨거웠다.

라위노와 코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샤우브는 왠지 라위노를 제물로 점찍고는 그를 '화적처럼 습격'하자는 계획을 키웠다.

"우린 이 개자식을 완전히 죽이지 못했어. 한데 그 개를 없애버려야 해. 그 개의 호흡 자체가 지구를 더럽히고 있어! 내 손으로 그놈의 목을 졸라 죽여야 속이 시원할 거야. 자네는 말하지." - 그가 도웰을 보면서 열을 올렸다. "이 사건을 법정과 형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이야. 그러나 라위노가 직접 나한테 말한 바로는, 그가 당국을 다 매수하고 있다는 거야."

"지역 당국뿐이지."

도웰이 한마디 보태자 아르망이 제지하고 나섰다.

"잠깐만, 아르투아, 자네는 아직 말을 하면 안 돼. 해로워. 그리고 샤우브, 자네는 시급한 것을 얘기하게. 라위노쯤이야 우리는 언제든 혼낼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당면 목표는 코른의 범죄를 폭로하고 도웰 교수의 머리를 찾아내는 것이네. 우린 어떤 방법으로든 코른의 집에 침투해야 돼."

"근데 어떻게 잠입한단 말이지?"

아르투아가 물었다.

"어떻게? 강도와 도둑들이 하는 식이지."

"자네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강도가 아니잖나. 그것도 기술이 제법 있어야..."

아르망이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이마를 탁 쳤다.

"그래, 순회공연에 장을 초대하세나. 브리케가 나를 친구처럼 여기고 그의 직업의 비밀을 알려줬거든. 그는 으쓱할 거야! 살면서 유일하게 사리사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남의 집 자물쇠를 깨는 거지."

"한데 그가 그다지 사심이 없지 않다면?"

"우리가 그에게 지불하면 돼. 그는 우리에게 길을 내주고 우리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지, 간단하잖나."

그러나 여기서 아르투아 도웰이 그의 열기를 식혔다. 아르투아가 나직하게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런 낭만적 요소가 지금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네. 코른은 라위노한테서 내가 파리에 도착했고 마드무아젤 로랑의 구출에 관여했다는 걸 이미 들어 알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익명으로 다닐 근거가 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엔, 나는... 고인이 된 도웰 교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건에 개입하고 재판과 수색 따위를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네.”

“또 재판 얘기로군.” - 아르망이 무망하다는 듯이 손사래를 쳤다. “자네만 교묘한 법정 공방에 휘말리고, 코른은 교묘하게 빠져 나갈 거야.”

아르투아가 기침을 하다가 가슴 통증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아르투아 곁에 앉은 로랑 부인이 염려했다.

“괜찮습니다.” - 그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대답했다. “통증은 이제 사라질 거야...”

그 순간 마리 로랑이 방으로 들어섰는데, 뭔가에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

“이것 좀 읽어 봐요.”

그녀가 도웰에게 신문을 내밀었다.

1 면을 장식한 굵은 활자가 눈에 확 들어왔다.

코른 교수의 일대 획기적인 발명

중간 제목은 조금 더 작은 활자로 찍혔다.

되살아난 사람의 머리가 공개된다.

기사는 내일 저녁 학술대회에서 코른 교수가 소생시킨 사람 머리를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어서 코른의 연구 이력이 소개되고, 그의 학술적 노고와 그가 시행한 눈부신 수술들이 열거됐다.

첫 기사 아래에는 코른의 자필 서명이 담긴 논문이 실려 있었다. 거기에는 처음에 개를 대상으로 성공하고 이어서 사람의 머리를 되살렸다는 실험 내력이 대략적으로 기술됐다.

로랑이 아르투아 도웰의 표정과 기사를 읽어 내리는 그의 눈길을 긴장한 눈으로 주시했다. 도웰이 걸으려는 태연을 유지했다. 기사 끝에 가서야 얼굴에 서글픈 미소가 나타났다가 곧 사라졌다.

“정말 열 받는 일 아닌가요?”

아르투아가 말없이 신문을 건네줄 때 마리 로랑이 소리쳤다.

“이 몸쓸 자는 이 ‘놀라운 발명’에서 당신 부친의 역할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군요. 안 돼, 난 그런 짓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요!”

로랑의 두 뺨이 발갱게 달아올랐다.

“코른이 나한테나 당신 아버지한테, 또 몸이 없는 존재라는 지옥을 위해 소생시킨 불행한 머리들에게 가한 짓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해요. 그는 법정만이 아니라 공중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그가 의기양양하게 굴도록 방치한다면, 그건 가장 큰 불공정일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지요?”

도웰의 나직한 물음에 마리 로랑이 열을 올렸다.

“그의 대성공을 망치는 거지요! 학술대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살인자요 범죄자, 날도둑이라는 비난을 그 얼굴에 퍼붓는 거지요!!”

로랑 부인이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안절부절못했다. 딸의 신경이 얼마나 크게 악화됐는지를 비로소 이해했다. 온순하고 절제된 딸이 이렇게 분개하는 것을 엄마는 처음 보았다. 로랑 부인이 딸을 달래 보았지만, 딸은 주변에 아무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분노와 복수의 갈망으로 한껏 달아올랐다. 아르망과 샤우브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열기와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다른 이들을 압도했다. 로랑 부인이 간청하는 눈길로 아르투아 도웰을 바라봤다. 그가 그 눈길을 알아차리고 입을 뗐다.

“마드무아젤 로랑, 당신의 행위는 아무리 고결한 감정에서 나왔다 해도, 무모한...”

그러나 로랑이 그 말을 가로챘다

“지혜만큼 가치가 있는 무모함도 있는 법입니다. 내가 무슨 영웅이 되려고 폭로에 나선다는 생각은 마세요. 난 그저 달리 행동할 수 없을 뿐이에요. 나의 도덕적 잣대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는 것은 무얼까요? 검찰 수사관한테 전모를 말할 수도 없지 않나요?”

“아니요, 난 코른이 대중 앞에서 치욕을 맛보기를 원해요! 코른은 다른 이들을 불행에 빠뜨리면서 범죄와 살인으로 자신의 명성을 쌓고 있어요! 내일 그는 영광의 월계관을 쓰기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 해요.”

“그런 행동에 난 반대합니다, 마드무아젤 로랑.”

로랑이 너무 흥분하여 신경계가 깨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아르투아 도웰이 조용한 소리로 말했다.

“아주 섭섭하군요. 하지만 세상이 다 반대해도 난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아직 나를 몰라요!”

아르투아 도웰이 미소를 지었다. 젊은 혈기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발강게 상기된 뺨을 지닌 마리라는 아가씨가 이제 한층 더 마음에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더 커졌다.

“하지만 그건 깊이 생각하지 않은 행보일 거요. 당신은 큰 위험에 처할 텐데...”

“우리가 그녀를 지키겠네!”

아르망이 가격이 준비된 장검을 쥔 것처럼 손을 치켜들면서 외쳤다.

“그래, 우리가 당신을 지켜 주겠어요.”

샤우브가 허공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우렁찬 목소리로 친구를 곁들었다.

마리 로랑이 그런 지지를 보면서 아르투아를 나무라는 눈길로 쳐다봤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을 지지할 겁니다.”

그의 말에 로랑이 반색을 띠었다. 그러나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신은 안 돼요...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난 갈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반대해도 난 이 생각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직 나를 몰라요.”

미소를 지으면서 도웰이 그녀가 한 말을 되풀이했다.

26. 상처뿐인 승리

다음 날 학술 대회를 코앞에 두고 코른이 브리케의 머리를 주도면밀하게 살폈다.

검사를 끝낸 뒤 머리에게 말했다.

“실은, 오늘 저녁 여덟 시에 당신을 청중이 많은 모임에 데리고 갈 거요. 거기서 당신은 말을 하게 될 텐데, 질문을 받으면 간결하게 답변해요. 불필요한 얘기는 삼가고. 알겠소?”

코른이 공기 밸브를 열자 브리케가 쉼 소리를 냈다.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부탁한 것은... 제발...”

그녀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코른이 밖으로 나갔다.

그의 동요가 점점 더 커졌다. 쉽지 않은 과제가 눈앞에 있었다. 바로 학술 대회장으로 머리를 운반하는 것. 아주 작은 충격도 머리의 생명에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특별히 장치된 자동차가 준비됐다. 진동을 방지하는 바퀴가 달리고 사다리로 옮기는 데 필요한 손잡이가 마련된 특수 탁자 위에 다른 기구들과 함께 머리를 올려놓았다. 마침내 준비가 다 끝났다. 저녁 일곱 시 그들이 거리로 나섰다.

엄청나게 큰 홀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다. 의학계의 백발들과 번쩍이는 대머리들이 검은 프록을 차려 입고 일층 무대 앞의 좌석들을 차지했다. 안경의 유리들이 반짝거렸다. 이층의 칸막이 자리와 계단식 좌석은 의학계와 이리저리 연결된 선택된 청중에게 제공됐다.

귀부인들의 호사한 의상이 보석 장식을 번쩍이면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등장한 콘서트홀을 연상케 했다.

시작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절제된 소음이 홀을 채웠다.

무대 곁에 마련된 작은 탁자들 앞에서 신문기자들이 연필 쥔 손을 부지런히 놀리며 부산을 떨었다. 무대 오른쪽에는 촬영기 몇 대가 코른의 중대 발표와 살아난 머리의 모든 순간을 필름에 담으려고 눈에 불을 켜다. 무대 위 기다란 테이블 앞에는 학계의 거성들 중에서 명예로운 인사 몇몇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무대 한가운데에 연단이 우뚝 서 있고, 그 위에 놓인 마이크를 통해 전 세계로 연설이 중개될 터였다. 두 번째 마이크는 브리케의 머리 앞에 놓였다. 그녀는 무대 오른쪽에 우뚝 솟아 있었다. 정성 들인 화장 덕분에 머리가 의외로 매력적인 분기기마저 띠었으며, 그와 함께 놀라운 장면에 미처 준비되지 않은 관객들이 맛볼 목직한 인상도 많이 떨어졌다. 간호인과 존이 머리 옆 탁자 곁에 섰다.



마리 로랑과 아르투아 도웰, 아르망, 샤우브가 연단에서 불과 두 발짝 떨어진 맨 앞줄에 앉았다. 샤우브 한 사람만 위장하지 않은 채 평소의 모습이였다.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둥근 모자를 쓴 로랑은 코른이 눈을 돌리다가 우연히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챙을 꼭 누르고 고개를 낮게 숙였다. 아르투아와 아르망은 변장하고 나타났다. 그들의 검은

불수염과 콧수염이 아주 근사했다. 일을 더 잘 도모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각자 분산된 눈길로 주변을 훑어보면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르망은 잔뜩 주눅이 든 상태였다. 브리케의 머리를 보고는 거의 숨이 멎을 뻔한 것이다.

정각 여덟 시 코른이 연단에 올라섰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아주 당당했다. 청중이 끊이지 않는 박수로 오랫동안 그를 환영했다. 촬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신문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코른 교수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발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건 형식에서 눈부시고 능숙하게 구성된 스피치였다. 코른은 요절한 도웰 교수가 숨지기 전에 이룩한, 아주 귀중한 작업을 잊지 않고 상기했다. 그러나 고인의 작업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신의 '소박한 업적'을 말하는 것도 빼먹지 않았다. 모든 발명의 영광이 바로 그에게, 코른 교수에게 속한다는 것을 청중이 추호도 의심하게 해서 안 될 일이었다.

그의 스피치가 박수 때문에 몇 번 끊겼다. 수백 명의 귀부인들이 작은 망원경과 오페라글라스를 그가 있는 쪽으로 돌렸다. 남자들의 망원경과 외눈안경들이 역시 적잖은 흥미를 가지고 브리케의 머리로 쏠렸다. 머리는 억지웃음을 짓고 있었다.

코른 교수가 신호를 보내자 간호인이 밸브를 열어 공기를 들여보냈고, 브리케의 머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기분이 어떤가요?”

늙은 과학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브리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쉼 소리였다. 강하게 불어넣은 공기 흐름이 휘파람 소리를 냈고, 목소리에는 변조라는 게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말한다는 사실은 청중에게 비상한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요란한 박수갈채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늘 받지 못하는 못할 터였다. 그러나 한때 작은 선술집들에서 공연으로 월계관에 심취하던 브리케가 이번에는 피곤하게 눈꺼풀을 내리깔기만 했다.

로랑이 한층 더 동요하게 됐다. 신경성 발열에 전신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치아들이 덜덜 떨리지 않게 하려고 욕물었다.

‘지금이야.’

몇 번이나 중얼거렸지만 매번 결단력이 부족했다. 상황이 그녀를 억눌렀다. 매번 순간을 보내고 난 뒤 그녀는 코른 교수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달래려고 애썼다.

의학계 거성들의 연설이 시작됐다.

중진 학자들 중 한 사람인, 머리 허연 노인이 연단으로 나왔다.

그는 희미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코른 교수의 천재적 발명을, 과학의 위력을, 죽음에 대한 승리를, 위대한 과학적 업적이 세상에 선사하는 지성들과 접촉하는 행운에 대해 말했다.

로랑이 가장 덜 기대한 순간에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증오의 회오리가 그녀를 사로잡고 터지게 했다. 이미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연단으로 뛰어 올랐다. 놀란 노학자를 팻 밀치다시피 하고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독하게 창백한 얼굴과 살인자를 추적하는 푸리아에(*복수의 여신)의 뜨거운 눈길과 험뜩이는 목소리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맹렬하게 쏟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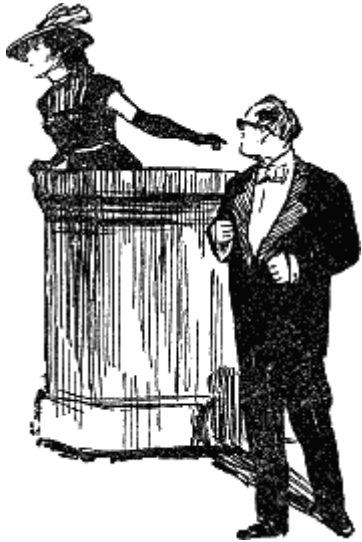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홀 안이 들썩거렸다.

처음 한순간 코른 교수는 당황하여 로랑을 제지하려는 듯이 그녀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다. 그러다가 재빨리 존에게 몸을 돌려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였다. 존이 문으로 빠져나갔다.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아무도 거기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저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 로랑이 코른을 가리키면서 절규했다. “그는 도둑에다가 살인자예요! 도웰 교수의 업적을 가로챘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도웰을 죽였단 말입니다! 지금도 도웰의 머리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괴롭히고 고문하여 실험을

계속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실험을 자신의 발명처럼 내놓고 있어요...
코른이 자기에게 약물을 투입했다고 도웰이 나한테 직접 말했어요...”



청중은 당황하여 패닉 상태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상체를 들썩거렸다. 신문기자들 몇 명도 펜을 떨어뜨리고 아연실색하여 돌처럼 굳었다. 촬영 기사만이 촬영기 손잡이를 부지런히 돌렸다,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뜻밖의 반전에 기뻐하면서.

코른 교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얼굴에 연민의 미소를 띤 채 태연하게 서 있었다. 신경성 경련이 로랑의 목구멍을 억누르기만을 기다렸다가, 말이 잠깐 끊긴 틈을 이용해 문가에 서 있는 안내원들에게 위엄 있게 말했다.

“그녀를 데리고 나가시오! 실성한 사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단 말ियो?”

안내원들이 로랑 쪽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이 객석 사이로 그녀에게 달려들기 전에, 아르망과 샤푸브, 아르투아가 먼저 달려가서 그녀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다. 코른이 일단의 무리를 수상쩍은 눈길로 쏘아보았다.

복도에서는 로랑을 경찰들이 잡아두려고 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그녀를 거리로 데리고 나와 자동차에 태울 수 있었다. 그들이 떠났다.

장내가 다소 진정되자 코른 교수가 연단으로 나가서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청중에게 사과했다.

“로랑은 신경과민에다 히스테리가 심한 여성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살려낸 브리케 시체의 머리와 날마다 접촉하면서 겪어야 했던 체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부서졌습니다. 미친 거지요...”

이 발언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한 홀에서 울렸다.

일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건 쉬쉬 하는 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마치 죽음의 바람이 한겨울 옷풍처럼 홀 위에서 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수백 개의 눈들이 이제는 브리케의 머리를 마치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경악과 연민으로 바라보았다. ... 객석에 앉은 사람들의 기분이 완전히 망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끝을 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곧 다음 연사들이 미리 준비된 스피치를 하고 축전이 소개되고, 코른 교수를 여러 대학과 과학아카데미의 명예 회원이요 박사로 선출한다는 증서들이 낭독됐다.

대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코른 교수의 등 뒤로 흑인이 나타나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브리케의 머리를 되가져갈 준비를 했다. 머리가 지치고 놀라서 금방 생기를 잃었다.

자동차 안에 혼자 남은 코른 교수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부르드득 갈고 욕을 해대는 바람에, 운전수가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물어야 했다.

“뭐라고 하셨나요?”

27. 마지막 만남

학술 대회에서 코른이 소동을 겪으며 발표한 다음 날 아침, 아르투아 도웰이 경찰서장에게 출두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코른의 집을 수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서장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코른 교수의 자택은 이미 간밤에 수색을 끝냈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지요. 마드무아젤 로랑의 신고는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망가진 망상의 결과로 드러났어요. 조간신문에서 그런 기사도 읽지 않았습니까?”

“마드무아젤 로랑의 신고가 망상의 결과라고 어찌 그리 쉽게 단정한 겁니까?”

“왜냐하면...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건 전혀 무의미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수색 결과 확인된 것은...”

“마드무아젤 브리케의 머리를 신문해 봤나요?”

“아니요, 우리는 머리통들한테는 아무 것도 묻지 않았소.”

“저런! 그 머리도 내 아버지의 머리를 봤다고 증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런 사실을 나한테 직접 알렸단 말입니다. 수색을 재개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할 근거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경찰서장이 날카롭게 대꾸했다.

‘이 사람이 코른에게 매수된 건 아닌가?’ 아르투아가 잠시 생각했다.

경찰서장이 다시 입을 놀렸다.

“그리고 다시 수색을 한다면 사회적 불만만 야기될 수 있어요. 학술 협회는 이 정신 나간 로랑의 발언에 이미 화가 잔뜩 나 있단 말입니다. 다들 코른 교수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는 판인데. 그에게 위로를 표하고 로랑의 행위에 분개하는 편지와 전보들을 그는 수백 통이나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코른이 몇몇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근거도 없이 그렇게 몰아쳐서는 안 됩니다.”

서장의 훈계조에 도웰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내가 근거를 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기회가 당신에게 이미 제공됐지요. 그래서 당국이 수색을 한 것 아닙니까?”

“정 그렇게 거부한다면, 나는 검찰에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투아가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났다.

“안됐지만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군요.”

서장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검찰을 언급한 것이 효과를 냈다. 서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수색을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룰테면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그걸 검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 수색은 나와 마드무아젤 로랑, 내 친구 아르망의 입회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인물들은 다 수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두 팔을 벌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경찰 몇 명을 당신에게 보내지요. 수사관도 부르겠습니다.”

오전 열한 시에 아르투아가 이미 코른의 현관 벨을 눌렀다.

흑인 존이 안에서 걸린 쇠사슬을 풀지 않은 채 묵직한 참나무 문을 열었다.

“코른 교수께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동행한 경찰이 존에게 불청객들을 아파트 안으로 들이도록 했다.

코른 교수가 애꿎게 모욕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서재에서 맞이했다.

그가 실험실 문을 활짝 열고 로랑에게 사나운 눈길을 흘깃 던지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들어들 가보시지요.”

수사관과 로랑, 아르투아 도웰, 코른, 아르망, 또 두 명의 경찰이 들어갔다.

아주 힘겹고 역겨운 체험들의 현장에 다시 발을 들이면서 로랑이 몹시 동요했다. 심장이 더욱 세게 고동쳤다.

실험실에는 브리케의 머리만 있었다. 흉조를 잃은 두 뺨이 미라의 누런빛을 띠었다. 그건 로랑과 아르망을 보자 웃음을 띠면서 눈을 깜빡거렸다. 아르망이 질겁하여 몸을 떨면서 돌아섰다.

그들이 실험실 곁에 달린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살이 많고 거대한 코가 달린, 나이 든 사람의 배코 친 반들반들한 머리통이 있었다. 머리의 두 눈은 새카만 안경으로 덮였다. 입술이 가볍게 바르르 떨렸다.

안경을 가리키면서 눈이 아프기 때문이라고 코른이 해명하고는 빈정대는 미소를 머금고 덧붙였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요.”

실제로 지하실에서 더그매까지 집안을 다 뒤져도 다른 머리들은 나오지 않았다.

돌아 나오는 도중에 그들은 코가 육중한 머리통이 있던 방을 다시 거치게 됐다. 실망한 아르투아는 벌써 다음 문가로 발을 옮겼고, 그 뒤를 이어서 수사관과 코른도 출구 쪽으로 향했다.

“잠깐만이요.”

로랑이 그들을 불러 세웠다.

두툼한 코가 달린 머리통으로 다가서면서 그녀가 공기 밸브를 열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지요?”

머리통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로랑이 공기 흐름을 더 강하게 불어넣었다.

쉼 목소리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누구요? 코른, 당신인가? 나의 귀를 열어 주오! 당신 말이 들리지 않아...”

로랑이 머리통의 귀를 들여다보고는 거기서 솜뭉치를 꺼냈다.

“당신은 누구지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나는 도웰 교수였소.”

“그런데, 당신의 얼굴은?”

로랑이 놀라서 혈떡였다.

“얼굴?..” - 머리통이 힘겹게 입을 놀렸다. “오오... 내 얼굴까지 빼앗아갔군... 작은 수술... 코 피부 아래 파라핀을 넣고... 아아, 이 흉측한 두개골 상자 안에서 나의 것이라곤 뇌만 남았군... 그러나 그것도 작동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난 죽어 가오...”

우리의 실험은 완전하지 못했어... 비록 내 머리가 내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오래 살기는 했어도."

"왜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수사관이 한 걸음 다가서서 물었다.

"나의 동료가 근래 들어 나를 불신하게 됐구려." - 머리통이 웃음을 지으려고 했다. "그는 내가 듣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소... 안경은 빛이 통하지 않아... 그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문객들 앞에서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안경 좀 벗겨 주시오..."

로랑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겼다.



"마드무아젤 로랑... 아가씨요? 안녕하세요, 친구!.. 코른은 당신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는데... 난 상태가 안 좋아요...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동료 코른은 어제서야 나한테 관용을 베풀었지... 만일 오늘 내 스스로 죽지 않는다면, 그가 내일 나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다가 한쪽에 서 있는 아르투아를 보더니, 망연자실 한 듯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면서 기쁘게 입을 놀렸다.

“아르투아!.. 내 아들이!”

희미한 두 눈이 일순간 반짝였다.

“아버지, 나의 소중한 아버지!” - 아르투아가 머리에게 다가섰다. “내 아버지한테 무슨 짓들을 한 거요?..

그가 비틀거렸다. 아르망이 붙잡아 부축했다.

“아... 좋아... 너를 다시 보다니... 내가 죽은 뒤에...”

도웰 교수의 머리통이 쉼 목소리를 냈다.

성대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단어가 이어지는 중간마다 공기가 쇠쇠 소리를 내면서 목구멍에서 새나왔다.

“아르투아, 내 이마에 입을 맞추렴... 불쾌하지... 았다면...”

아르투아가 허리를 꺾어 입을 맞추었다.

“그래... 이제 좋아졌다...”

“도웰 교수님.” - 수사관이 말했다. “교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머리가 수사관에게 꺼져가는 눈길을 돌리는데, 상황이 어떤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곧 알아차리고서 눈길을 천천히 로랑에게 돌리면서 쉼 소리를 냈다.

“그녀한테... 말했다고요... 그녀가 전말을 알고 있소.”

머리통의 입술이 움짱거리기를 멈추고 두 눈에 연기가 덮였다.

“끝이야!..”

로랑이 말했다.

잠시 다들 말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압도되어.

“자아, 이제...” - 수사관이 힘겨운 침묵을 깨고는 코른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나를 따라 서재로 갑시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재로 들어가자 아르투아는 아버지 머리 곁의 탁자 위로 힘없이 무너져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불쌍한 아버지, 불쌍해!”

로랑이 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아르투아가 벌떡 몸을 일으켜서 그녀의 손을 힘차게 쥐었다.

그때 코른의 서재에서 총성이 울렸다.

(끝)

러시아 작가 벨랴예프의 작품. 1937 발표.
공상과학소설의 고전이라 할 만함.
모험과 엽기의 재미에다가 삶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함.
지금까지도 많은 출판사에서 여전히 출간되고 있으며,
1984 년 러시아에서 영화로 제작됨.